

# PKO 저널

## PEACEKEEPING OPERATION JOURNAL

### Study & Research

-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F) 파견과 관련된 문제와 한국의 과제  
| 대전대학교 특임교수 송승중
-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결과 : 레바논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함의  
| 국방대학교 전문교수 문진혁, 건양대학교 교수 지효근
- 유엔 작전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파병부대 교육 방안  
| 前 UNIFIL 첩보수집과장 예.대령 김판영
- 남수단에서의 유엔 평화활동의 도전과 응전  
| 육군중령 김세하
- 남수단의 민주주의 이행과 선거 난제에 관한 연구  
| 육군대위 임솔, 육군소령 박성수
- Evolving Discourse on Hezbollah's Armament :  
Implications for Lebanon and the United Nations  
| 해군중령 채연정

### Training & Experience

- 블루라인(Blue Line)에서의 13개월 파병 생활의 의미  
| 육군소령 박보영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ROK PKO Cente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VOL. 30 June 2025

---

VOL. **30** June 2025

# PKO *저널*

PEACEKEEPING OPERATION JOURNAL





# CONTENTS

---

## Study & Research

-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F) 파견과 관련된 문제와  
한국의 과제 ..... 007  
| 대전대학교 특임교수 송승종
-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결과 :  
레바논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함의 ..... 033  
| 국방대학교 전문교수 문진혁, 건양대학교 교수 지효근
- 유엔 작전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파병부대 교육 방안 ..... 057  
| 前 UNIFIL 첩보수집과장 예.대령 김판영
- 남수단에서의 유엔 평화활동의 도전과 응전 ..... 081  
| 육군중령 김세하
- 남수단의 민주주의 이행과 선거 난제에 관한 연구 ..... 111  
| 육군대위 임술, 육군소령 박성수
- Evolving Discourse on Hezbollah's Armament :  
Implications for Lebanon and the United Nations ..... 133  
| 해군중령 채연정

---

## Training & Experience

- 블루라인(Blue Line)에서의 13개월 파병 생활의 의미 ..... 161  
| 육군소령 박보영



# Study & Research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F) 파견과 관련된 문제와 한국의 과제  
| 대전대학교 특임교수 송승종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결과 :  
레바논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함의  
| 국방대학교 전문교수 문진혁, 건양대학교 교수 지효근

유엔 작전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파병부대 교육 방안  
| 前 UNIFIL 첩보수집과장 예.대령 김판영

남수단에서의 유엔 평화활동의 도전과 응전  
| 육군중령 김세하

남수단의 민주주의 이행과 선거 난제에 관한 연구  
| 육군대위 임솔, 육군소령 박성수

Evolving Discourse on Hezbollah's Armament :  
Implications for Lebanon and the United Nations  
| 해군중령 채연정





##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F) 파견과 관련된 문제와 한국의 과제

Issues related to the dispatch of the Ukrainian  
Peacekeeping Force (PKF) and Korea's tasks

대전대학교 특임교수 송승종\*  
Professor Song, Seong-jong

---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



## 요약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력 침략은 국제법과 유럽 안보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다. 현재 미-러 휴전 논의는 조건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한 국제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방의 원조 피로감과 글로벌 사우스의 협상 촉구 속에서, 러시아의 지연 전술은 평화유지활동(PKO)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젤렌스키는 최소 20만 명의 평화유지군(PKF)을 주장하지만, 유럽의 병력 제약으로 3만명 규모의 다국적군이 유력하며, 드론 감시 활용이 예상된다. 중국의 조건부 참여 제안은 서방의 회의를 놓고 있다. NATO-EU 하이브리드 모델은 군사·정치적 균형을 제공하지만, 유엔 주도 모델은 러시아 거부권과 운용 능력 부족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PKO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레바논, 남수단 등 PKO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PKO에 기여하고, 지정학적 경쟁 속 외교·안보 전략을 재평가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럽 안보 참여는 안보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대북 억제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평화유지 역량 발전과 글로벌 평화유지 메커니즘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PKO 참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은 가치 기반 동맹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능동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기존 PKO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평화유지 모델 제시를 통해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국제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F),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유지활동(PKO), 지휘체계, 유럽국가들의 군사력,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 ABSTRACT

Russia's illegal military invasion of Ukraine is a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seriously undermines the European security order. Ongoing ceasefire talks between the U.S. and Russia are faltering over incompatible terms, and President Zelensky is calling for robust international guarantees. Amid Western aid fatigue and pressure from the Global South to negotiate, Russia's delaying tactics are crippling the effectiveness of peacekeeping operations. While Zelensky demands at least 200,000 peacekeepers, Europe's troop constraints make a multinational force of around 30,000 more realistic—likely supplemented by drone surveillance. China's proposal for conditional participation has been met with skepticism in the West. A NATO–EU hybrid model could strike the necessary military and political balance, but a U.N.–led mission remains unlikely given Russia's veto power and limited operational capacity. It is therefore time to consider a new peacekeeping model. Drawing on its experience in Lebanon and South Sudan, South Korea should offer to contribute to a Ukraine PKO and reassess its broader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y amid intensifying geopolitical competition. The crisis in Ukraine carries clea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own security. Engagement in European security will expand Seoul's cooperative networks, bolster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catalyze its defense industry. As a responsible middle power, South Korea must support international peace, develop its peacekeeping capabilities, and participate in reforming global peacekeeping mechanisms. Contributing to a Ukrainian PKO will enhance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and positively influence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 the post-Cold War realignment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South Korea needs a balanced approach that deepens ties with like-minded allies and pursues an assertive diplomatic strategy in a rapidly changing world. By analyzing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PKO frameworks and proposing effective new models, South Korea can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and help guide the global community toward a constructive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 Ukrainian peacekeeping forces (PKF), Russia–Ukraine war, peacekeeping operations (PKO), command structure, military power of European countries, ceasefire negotiations



#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F) 파견과 관련된 문제와 한국의 과제

## Issues related to the dispatch of the Ukrainian Peacekeeping Force (PKF) and Korea's tasks

대전대학교 특임교수 송승종

Professor Song, Seong-jong

### I. 서론

2022년 2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재래식 군사 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두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국제법과 주권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유럽 안보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전쟁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지정학적, 군사적,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불안을 심화시켰으며, 세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전쟁 범죄 혐의는 국제 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그 결과는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단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적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후 재건 과정에 적극적 참여하며, 평화유지 노력에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또는 평화 협정 가능성이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러나 과거 분쟁 사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적대 행위 중단 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은 적대 행위 중단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치 가능한 다국적 평화유지작전(PKO) 구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적인 전후 복구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창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더욱 강조된다. 첫째, 광범위한 파괴와 인명 피해를 야기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러시아의 추가적인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국제 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안전한 귀환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의 실현과 미래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임무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제3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PKO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우크라이나 PKO의 규모와 구성을 결정짓는 구조적, 정치적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과 국제 사회의 역학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정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질 평화유지군의 다양한 지휘 체계와 전략적 목표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효과적인 임무 수행

을 위한 최적의 지휘 구조를 모색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변화하는 유럽 안보 환경과 글로벌 평화유지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과거 유럽 평화유지 작전의 역사적 경험과 국제 안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정화와 한국의 글로벌 안보 역할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휴전 가능성을 평가하여 평화유지 작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제3장은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F)의 규모와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핵심 문제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 유럽의 제한된 병력 규모, PKF 구성의 전략적 요인, 중국의 잠재적 참여 등이 포함된다. 제4장은 신뢰할 수 있는 PKF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 사항을 제시 및 검토한다. 여기에는 핵심 목표, 지휘구조 대안, NATO 주도 프레임워크에서 유엔 주도 이니셔티브까지 다양한 모델에 대한 비교 평가가 포함되며, 과거의 평화유지군 파견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우크라이나 PKO 임무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상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임무에 외교적, 물질적, 또는 운영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 II. 우크라이나 전쟁과 휴전 가능성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유지 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안정적인 휴전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025년 4월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노력으로 30일간의 잠정 휴전에 대한 잠정적 틀이 마련되었지만, 양측의 조건은 대단히 상이하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와 같은 전략적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철수, 군사 동원 중단, 서방 무기 공급 중단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스티브 워트코프 특사를 통해 전달된 미국의 제안은 “전투 중단”을 통해 평화 및 안보 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매개 변수를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sup>1)</sup> 유럽의 주요국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드론 감시 및 방어적 억지와 결합된 3만명 미만의 “안심 부대(assurance forces)”의 배치를 기반으로 보완적인 안정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대의 정확한 성격과 그것이 유엔, 나토, EU 또는 혼합 사령부 하에서 기능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휴전과 PKO 계획은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PKO의 형태와 신뢰성은 러시아의 행동, 우크라이나의 신뢰, 휴전의 지속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sup>2)</sup>

우크라이나는 국내적으로 휴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의 중단이 러시아가 재편성하거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의 불법적 무력침략으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또 다른 부다페스트 의정서”가 체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두 약속을 넘어 미래 러시아의 침략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국제적 보장을 요구했다.<sup>3)</sup> 우크라이나의 여론도 비슷하게 경계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모든 잃어버린 영토의 회복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휴전 협정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적 감시와 제재 집행 메커니즘, 영토 회복 기준, 민간인 보호 기준을 연결하는 “휴전 이후 로드맵”에 대한 요구를 반복했다.

서방 정부들은 전략적 인내와 정치적 피로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의 대중들은 對우크라이나 원조 제공과 인플레이션 부담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독일·프랑스·슬로바키아의 우파 포퓰리즘 세력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sup>4)</sup>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과 2026년 중간선거를 둘러싼 의회 분열이 심화될 조짐이다. 글로벌사우스의 역할 또한 휴전 협정의 정당성을 복잡하게 만든다. 인도, 터키, 브라질, 남아공 같은 같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양보를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는 서구의 전통적인 안보 규범(예: NATO의 집단안보 조항)과 분쟁 종식을 원하는 대다수 국가들의 욕구 사이에서 현격한 지정학적 격차가 드러난다.

1) Staff Reporter, “How Will Russia Respond to the U.S.-Proposed Ceasefire in Ukraine?,” *Startfor*, 14 Mar 2025.

2) Jill Lawless, “European troops, US support are part of an emerging plan for Ukraine. But it faces many hurdles,” *Washington Post*, 21 February 2025.

3) Staff Reporter, “Zelenskyy: Ukraine would need at least 200,000 peacekeepers for ceasefire,” *VOA News*, 21 January 2025.

4) Brahma Chellaney, “The Global Divide Over the Ukraine War,” *Project Syndicate*, 13 March 2025.

이러한 긴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추진하려는 잠재적 PKO의 궁극적인 구조, 권한, 국제적 참여와 지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화유지 임무가 영토 분할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러시아의 점령지역을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역 내 주요국(특히, NATO 회원국)들로부터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휴전협상과 관련하여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다.<sup>5)</sup> 시나리오 1은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 협정에 조건부로 동의하지만, 실시 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 NATO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금지, 우크라이나의 중립 지위 공식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러시아는 전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시나리오 2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휴전에 빠르게 동의하는 방안이며, 시나리오 3은 새로운 요구조건들을 내세우며 휴전을 완전히 거부하는 방안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나리오 1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 PKO에 주는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PKO가 처음부터 러시아에 의해 지연되거나 정치적으로 조작될 위험이 있다. 둘째, 임무의 취약성이다. 러시아가 선호하는 PKF는 상징적이며 비무장·경무장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의미한 억제역 행사가 곤란하여 임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셋째, 중립성의 훼손이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에 대한 양보가 이뤄질수록 (예: NATO 인력 배제), PKF는 신뢰성과 능력이 감소하여 휴전 위반사항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평화유지 임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휴전 조항, 휴전 조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세부적 규정, 위반시에 적용 가능한 처벌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들이 없다면, PKF는 새로운 분쟁의 수동적인 관찰자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요컨대, 우크라이나에서 PKO의 성공 또는 실패는 궁극적으로 임무의 규모나 위임명령(mandate)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 유럽 안보구조에서 신뢰성, 실행가능성, 정당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국들 간의 '지정학적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5) Staff Reporter, *Stratfor*, 14 May 2025.

### III.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의 규모와 관련된 사안들

#### 1.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후 평화유지 임무가 미래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2025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젤렌스키는 휴전 이후 안보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수치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한계치로 묘사하면서, 그보다 낮은 수치는 “기껏해야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적대 행위를 억제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150만 명 이상의 현역 및 예비군을 동원하고 있으며, 외국 전투원을 포함한 지원병력을 계속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비대칭성은 국제적 보장이 실제 병력 주둔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수용 불가능한 정도의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6)</sup>

젤렌스키의 발언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필요성 모두를 반영한다. 국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평화 협정에도 영토의 양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전략적으로는 20만명의 평화유지군을 요청함으로써, 서방 동맹국들에게 상징적 규모의 병력 배치로는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억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보스니아나 말리에서와 같이 병력 규모의 부족으로 임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국제사회의 개입이 좌절되었던 과거의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sup>7)</sup>

#### 2. 유럽의 군사적 제약

안보 강화 군에 대한 유럽의 지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창설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심각하다. 유럽의 NATO 회원국 중 프랑스만이 200,000명을 초과하는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현역 병력은 150,000명 미만이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인력 제한 뿐만 아니라 해외 군사 배치에 대한 헌법 및 의회 제한도 직면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6) Staff Reporter, “Zelenskyy: Ukraine would need at least 200,000 peacekeepers for ceasefire,” *VOA News*, 21 January 2024

7) Jill Lawless, “European troops, US support are part of an emerging plan for Ukraine. But it faces many hurdles,” *AP News*, 21 February 2025.

같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병력 배치 명령이 입법 승인을 필요로 하며, 종종 연합 협상과 얽혀 있다.<sup>8)</sup> 유럽 군대의 제도적 분열은 추가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교리, 지휘 체계, 장비 표준을 따르고 있다. 오랫동안 NATO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상호 운용성의 결여는 다국적 PKO의 신속한 창설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다른 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원정군을 투입하고 있어, 정치적 의지가 있더라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군사력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설령 유럽 국가들이 2~3만 명의 병력을 초기 배치한다고 해도, 다년간의 순환 배치 일정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객원 교수인 마이클 클라크는 평화 유지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20년 또는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2년 안에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작전의 장기적인 재정적 부담, 병력 모집 압력, 그리고 병력 수송에 대한 요구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시험할 수 있다.<sup>9)</sup>

### 3. PKF 규모 결정과 관련된 고려 사항

우크라이나의 PKO에 적합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호, 억제력 신뢰성, 장기적 지속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병력이 너무 적으면 형식적·상징적 존재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병력이 너무 많으면 러시아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서방 기획자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 제시되는 구상은 30,000명 미만의 인원을 제한적으로 배치하고, 최전방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하며, 원자력 발전소, 항구, 에너지 그리드 등 인프라 보안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드론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용과 일치하며, 최전방에 병력을 집중할 필요성을 줄이면서도 상황 인식을 유지할 수 있다. NATO 기획자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기반을 둔 ISR 플랫폼을 확대하여 휴전 구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평화유지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전자 감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러한 구성이 수

8) Steven Erlanger and Jeanna Smialek, “Europe Talks Tough on Military Spending, but Unity Is Fracturing,” *New York Times*, 26 March 2025; Staff Reporter, “Which countries are ready to send their troops to Ukraine as part of a peacekeeping mission?,” *visitukraine.today*, 17 February 2025.

9) Staff Reporter, “European troops, US support are part of an emerging plan for Ukraine. But it faces many hurdles,” *Economic Times*, 21 February 2025.

동적 감시 임무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콩고 동부나 시리아에서 유엔 작전이 실패한 것으로 인식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sup>10)</sup>

우크라이나 측은 다국적 억제력과 현지 안정화 능력을 결합한 다차원적·다층적 평화지원 모델을 선호한다. 이 개념은 서방 지상군 핵심 요소(즉, 영국·프랑스 주도 연합군에서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가군과 협력해 작전을 수행하며,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배치된 핵심 공중 및 ISR 지원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모델의 운용 논리는 모듈형 확장성에 있다. 이는 새로운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확대될 수 있으며, 배치 초기 단계에서 갈등 격화 위험을 최소화한다. 전통적인 유엔평화유지 임무가 중립성과 최소한의 무력 사용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 모델은 NATO 지휘통제(C2) 프레임워크 외부에 위치한 강력한 전투 능력과 일관된 지휘 구조를 요구하는 억제기반 태세와 일치한다. 우크라이나 전략가들은 부대 구조에 전문능력 부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여기에는 민군 연락관, 사이버 및 디지털 인프라 보호 팀, 고급 폭발물 처리(EOD) 부대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는 러시아군의 물리적 위협과 전자전, 정보 교란, 핵심 인프라 파괴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위협 환경에서 작전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보스니아의 UNPROFOR 같은 다국적 파병 작전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며, 유연한 조정 메커니즘,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 복잡한 부대를 다중 교대 주기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 전략적 지원이 결여될 경우, 이러한 임무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sup>11)</sup>

#### 4. 가장 가능성이 높은 PKO 규모

현재의 지정학적 제약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PKO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성은 미국이 제공하는 물류 및 정보 지원을 받아 영국과 프랑스의 병력을 중심으로 하는 30,000명의 다국적 병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국경 감시 및 EOD(폭발물 처리)를 위한 특수 부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독일과 캐나다와 같이 파병하지 않는 국가들은 다른 곳에서 NATO 병력을 보충할 수 있다. 공군력, 특히 미국과 NATO

10) Larisa Brown, "Military chiefs propose 30,000-strong Ukraine peacekeeping force," *The Times*, 19 February 2025.

11) Ben Barry, "Potential European mission in Ukraine: key military factors," *IISS*, 7 March 2025.

의 ISR(정보, 감시, 정찰) 역량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산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기지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억제력 범위와 신속한 대응 능력을 모두 보장할 것이다.<sup>12)</sup> 무인 플랫폼은 휴전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군대가 직접 교전 역할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모듈식 PKO는 젤렌스키가 원래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지만, 유럽의 지배적인 정치적 의지와 지속적인 배치의 물류적 현실을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부대가 러시아의 보복을 유발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유럽 이외의 국가들도 더 광범위한 연합의 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전투 배치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휘부 물류, 사이버 방어, 인도주의적 연락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임무의 정당성을 확대하고 NATO의 동부 측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sup>13)</sup>

## 5. 중국의 입장 및 잠재적 역할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중국은 협상 평화 정착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어떤 평화유지군 제안도 지지하지 않았다. 중국 분석가들은 친서방적 성향의 평화유지 임무가 “대립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했다.<sup>14)</sup>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된 중국의 핵심적 우려는 NATO 같은 군사동맹체가 정권 교체나 국경변경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으로는 정치적 해결을 주장해온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휴전 후 안정화 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이는 엄격히 중국이 제시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 측에 따르면, 중국은 휴전 후 자국의 PKF를 파견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보증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NATO 주도나 서방 연합의 일환으로가 아니라, 특히 초기 정상회담 형식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지 않는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 이러한 제안은 중개자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 간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때문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

12) George Parker and Leila Abboud, “UK to Convene ‘Coalition of the Willing’ for Ukraine Peace Force,” *Financial Times*, March 11, 2025

13) Ben Barry and others, “A European Reassurance Force for Ukraine: Options and Challenges,” *IISS*, March 2025.

14) Staff Reporter, “Ukraine Partition a Possible Option—Just Not Kellogg’s Version,” *Asia Times*, 15 April 2025.

서 깊은 회의론이 제기되었다.<sup>15)</sup>

서방 주도 PKO 틀에 동참하는 대신, 중국의 참여는 휴전 후 제한된 범위 내 역할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NATO가 정의한 전투나 지휘구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제한적 참여의 속셈은 전술적이다. 중립성을 과시하고, 러시아 지원을 통해 초래되는 명성의 손실을 완화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라시아에서 안정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리고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지원을 축소하지 않는 점은 중국의 PKF 참여가 주로 상징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해 중국 정책 분석가들은 분쟁 후 우크라이나에 ‘다자간 균형된 존재’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BRICS 관찰단이나 유엔 민간 감시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서방의 일방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은 휴전 협정의 정당성, 외교적 대화의 포용성, 작전 지휘 구조의 설계에 달려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푸틴-시진핑 사이의 강대국 간 협정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서방의 전략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sup>16)</sup>

#### IV. 우크라이나 PKF 지휘체계와 관련된 대안의 모색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잠재적 PKF의 지휘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 분야의 기술적 작업이 아니다. 이는 PKO 임무의 정당성, 운용성, 지속가능성,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보내는 전략적 신호를 결정하는 지정학적 시험대입니다. NATO 주도 작전부터 유엔 결의에 따른 파병까지 각각의 대안들은 확산(escalation), 위험 분담, 정치적 결속력에 대한 자체적 부담, 제약 및 합의 등을 내포한다. 지휘구조의 설계는 부대 간 상호운용성과 대응 태세뿐 아니라, 임무의 정치적 이미지를 결정한다. 즉, 서방 주도의 개입주의, 다자간 협력, 중립적 안정화 중 어떤 것으로 인식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전쟁 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략적으로 민감하고 외교적으로 복잡한 지역에서 지휘체계 모델의 선택은 단순히 의도

15) Finbarr Bermingham and others, "China could play 'substantial' peace role in Ukraine as US seeks a quick deal," *South China Morning Post*, 17 February 2025.

16) Lingling Wei and others, "China Tries to Play Role of Peacemaker in Ukraine," *Wall Street Journal*, 12 February 2025.

를 넘어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나아가 억제력, 연합체의 단결력, 장기적 평화의 전망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크라이나 PKF 지휘체계로 고려될 수 있는 모델(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 1. NATO 주도 모델

나토(NATO) 주도 구조는 원활한 상호운용성, 표준화된 교전 규칙, 공유 정보 프레임워크, 강력한 물자 수송 및 전략적 수송 능력을 포함한 상당한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NATO의 검증된 지휘 구조—특히 연합군작전사령부(ACO)를 통해—는 다국적 부대를 통합된 지휘 체계 하에 통합하도록 설계되어 임무수행시 마찰, 중복, 지연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NATO 주도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정치적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명시적으로 경고해 왔듯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 NATO 병력 배치는 전략적 도발로 간주될 것이며, 모스크바가 선언한 ‘레드 라인’ 중 하나를 넘을 수 있어 긴장 고조나 새로운 적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sup>17)</sup> 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특히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NATO 인프라와 정보 자산을 PKO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해 왔다. 공식적으로 NATO 임무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만장일치 승인 요건을 회피하고 러시아의 반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sup>18)</sup>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NATO의 관여(간접적이라도)는 동맹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은 모스크바와의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역할을 지지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은 우크라이나 PKO의 중앙 지휘체계로 NATO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sup>19)</sup>

## 2. NATO-EU 하이브리드 모델

이 접근법은 NATO의 군사적 자산과 EU의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활용하는 방안이다. 작전 통제권은 NATO의 군사계획 담당자가 담당하고, 민간인 참여, 재건, 법적 감독에 대한 책임은 EU가 맡는다. 이러한 모델은 전략적 요구 사항과 정치적 시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보다

17) Laura Gozzi, “Putin warns West against sending troops to Ukraine,” *BBC News*, 1 March 2024.

18) John Irish and Elizabeth Pineau, “Europeans back strong Ukraine army, differ on future ‘reassurance force’,” *Reuters*, 28 March 2025.

19) Jennifer Rankin, “Orbán problem pushes EU towards ‘coalitions of the willing’ on Ukraine,” *Guardian*, 2 Mar 2025.

균형 잡힌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NATO-EU의 하이브리드 노력은 드물고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는 주로 두 조직 사이에 구조화된 정치-군사적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이다. 2002년에 체결된 ‘베를린 플러스(Berlin Plus)’ 협정은 NATO 자산을 사용하는 EU 주도 작전을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실행은 제한적이었다.<sup>20)</sup> 보스니아(EUFOR 알테아)에서 EU는 NATO의 물류에 의존하면서 군사 지휘권을 행사했지만, 코소보와 군사적 자율성에 대한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보다 야심적인 PKO 구상이 좌절되었다.<sup>21)</sup>

2011년 리비아 개입은 이러한 마찰을 강조했다. NATO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73호에 따라 군사적 집행 조치를 취하는 동안, 정치적 안정화에 대한 EU의 역할은 파편화되고 사후 대응적이었다.<sup>22)</sup> 통일된 위기 대응 센터의 부재로 인해 작전 수행이 분산되었고, SHAPE와 유럽 외부 행동 서비스(EEAS)가 일관성 없는 평가를 내리고 중복되는 임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NATO-EU 하이브리드 PKF는 통합 합동작전센터가 필요하며, 이 센터는 브뤼셀 등에 본부를 두고, 통합연락 담당관과 분쟁완화 전담반으로 구성될 것이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설계된 ‘확전(escalation) 사다리’와 사건 대응 매뉴얼이 명시된 이중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특히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관련하여 정보 공유에 대한 공유 원칙을 성문화해야 한다.

긍정적 측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특정 EU 회원국이 전투 부대를 배치하지 않고도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NATO가 군사적 중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 국가는 법치 자문 팀에 기여할 수 있고, NATO는 지역 안보와 ISR을 제공할 수 있다. NATO-EU 역할 분담은 아프간의 지방재건 팀(PRT)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민군협력 방식의 분업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역할 분담 합의와 교전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델은 제도적 교착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NATO의 신속성과 결단력에 대한 선호는 EU의 지루한 의사결정 문화와 충돌할 수 있다. 또한 병력순환 일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사전배치 훈련 및 지휘관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 Nicholas Williams, “NATO-EU Cooperation: Don’t Forget Berlin Plus!,” *ELN*, 28 March 2018.

21) Olivier Rittmann, “Operation Althea and the Virtues of the Berlin Plus Agreement,” *NATO Defense College*, 2021.

22) George Parker and Leila Abboud, “UK to Convene ‘Coalition of the Willing’ for Ukraine Peace Force,” *Financial Times*, 11 March 2025.

### 3. ‘자발적 연합(Coalition of willingness)’ 주도 모델

영국과 프랑스가 지지하는 ‘자발적 연합(coalition of willingness)’ 모델은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 대신 적절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 모델의 매력은 정치적 민첩성에 있다: 국가들은 번거로운 조약이나 거부권이 행사되기 쉬운 의사결정 기관에 구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한다. 이 접근법은 이라크 전쟁(2003년), 리비아 개입(2011년) 등 다자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연합이 형성된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맥락에서 이 모델은 호주, 캐나다, 발트해 연안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은 중견 민주주의 국가들이 특히 NATO가 주도하는 전투 임무에 대한 국내 정치적 제약 하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병력, 정보 감시 및 정찰 자산, 안정화 부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sup>23)</sup>

그러나 이 모델에는 잘 알려진 함정이 있다. 역사적 사례에 따르면, 임시 연합은 상호 운용성 결함, 일관성 없는 훈련 기준, 그리고 상이한 교전 규칙(ROE)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3년 이라크 전쟁 초기에 미국과 폴란드 군대는 서로 다른 확대 기준과 주의 사항을 적용하여 실시간 지휘 결정에 혼란을 야기했다. 리비아에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간의 지휘권 이양으로 작전 일관성이 깨졌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연합군 특수 부대가 이러한 불일치에 취약할 수 있으며, 특히 공통된 교리나 중앙 C2 구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sup>24)</sup> 자금 조달은 또 다른 취약점이다. 제도적 자금 지원이 없으면 연합 노력은 국내 정치 변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사헬에서는 프랑스가 타쿠바에서 철수하면서 소규모 유럽 기부자들이 노출되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 행정부의 변화나 유럽의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임무 수행 과정에서 헌신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정치적 가용성 및 신속한 확장성 등의 전략적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 부대들의 무질서한 배치의 조합이 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의 법률적 조율, 서면 양해각서(MOU), 그리고 NATO의 연합합동태스크포스(CJTF) 프레임워크를 모델로 하는 핵심 지휘구조가 필요하다.<sup>25)</sup>

23) John Paul Rathbone, “Will Europe put ‘boots on the ground’ in Ukraine?,” *Financial Times*, 23 January 2025.

24) John Karlsrud and Yf Reykers, “Ad hoc coalitions and institutional exploitation in international security: towards a typology,” *Third World Quarterly*, Vol. 41, No. 9 (2020), pp. 1518–1536.

25) Lawrence Freedman, “Failure in the Sahel,” *Comment is Freed*, 3 November 2024; Jeremy Friedman, “The Case for Inclusive Alliances,” *Foreign Affairs*, 17 July 2024.

#### 4. EU 주도 모델

EU 주도 평화유지군은 전략적 자율성과 유럽 안보에서 보다 가시적 역할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의 열망을 나타낸다. EU 주도 PKF는 NATO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럽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발트 연안국가, 핀란드, 폴란드 같은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유럽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특히 관심이 많다. EU의 군사적 야망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이 누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EU가 주도하는 PKF는 EU의 전략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심각한 운영상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EU는 대규모 PKO 유지에 필요한 군사적 자산, 물류 전문성, 지휘통제 구조 등이 부족하다. EU 회원국들은 군사적 역량에 대한 수요가 많고,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아프리카와 발칸반도에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제공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sup>26)</sup>

게다가, EU 주도 모델은 NATO와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EU가 자체적인 군사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면 NATO의 자원이 고갈되고 ‘대서양 횡단’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EU 모델은 EU 회원국들 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sup>27)</sup> 프랑스와 독일은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지하는 반면,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NATO의 역할이 훼손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U 전용 부대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U는 휴전이 성립된 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하는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수 있다. EU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감시하고 러시아의 추가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려면 NATO와의 긴밀한 협력, 상당한 추가적인 자원, 그리고 EU 회원국들 간의 단합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sup>28)</sup>

26) Garvan Walshe, “How Europe Can Defend Itself,” *Foreign Policy*, 18 February 2025.

27) Lucia Retter, “European Strategic Autonomy in Defence,” *RAND*, 9 November 2021.

28) Transatlantic Task Force,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A New Blueprint for Strategic Autonomy,” *Beyond the Horizon*, 25 March 2025.

## 5. 유엔 주도 모델

유엔 주도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F)은 다른 모델이 따라올 수 없는 글로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를 제공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병력 기여를 유치하고, 주권과 평화에 대한 다자간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sup>29)</sup> 예를 들면, 나미비아(1989-90)의 유엔임시행정기구(UNTAG) 임무나 중동의 유엔임시감시단(UNTSO) 옵서버 임무와 같은 역사적 선례는 정치적 합의가 존재할 때 유엔 주도 작전의 안정화 잠재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구조적 및 정치적 장애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유엔 PKF는 가능성이 낮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앞세워 안보리 승인이 필요한 PKO 미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sup>30)</sup> 설령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더라도 유엔의 평화유지 부서는 6개월 내 파병이 곤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보다 훨씬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PKF는 운용적 능력 면에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 일례로 DRC에서 MONUSCO는 허약한 위임명령(mandate)과 기동력 부족으로 인해 민병대를 무장해제 하는데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다르푸르에서 UNAMID는 항공수송 자산의 부족, 분쟁의 와중에 임무 수행, 주둔국(host) 정부와의 협력 부족 등으로 방해를 받았다. 상기 선례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에서의 유엔 PKF(특히 경무장 상태에서의 임무 수행간)가 휴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sup>31)</sup>

또한 유엔 자금 부족은 주요 기여국의 체납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임무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인력을 기여할 수는 있지만, 훈련, 장비, 언어 장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NATO나 EU의 병행 지원이 없다면 유엔 임무는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민간 감시요원(옵서버)은 다른 PKF 구조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NATO나 EU가 하드파워를 담당하는 동안 휴전 검증의 중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9) Naman Karl-Thomas Habtom, "The Global South, Not Europe, Should Play Peacekeeper in Ukraine," *Foreign Policy*, 13 February 2025.

30) Shelby Magid and Yulia Shalomov, "Russia's veto makes a mockery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tlantic Council*, 15 March 2022.

31) Trevor Findlay, "The Use of Force in UN Peace Operations," *SIPRI*, 2002.

〈표1〉 우크라이나 PKO 모델의 장단점 비교

모델	장점	단점	구분
NATO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력한 지휘·통제 능력</li> <li>광범위한 병참정보 지원</li> <li>효과(예: 리비아, 코소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적으로 민감, 러시아의 반대</li> <li>非NATO 국가들 사이에서 정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li> </ul>	
NATO-EU 하이브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형잡힌 정치적 감독(EU)과 작전 효율성 (NATO)</li> <li>유럽에서 잠재적으로 더 큰 정당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O(미국)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li> <li>미국이 직접 개입을 꺼림</li> <li>복잡한 기관 간 조율 필요</li> </ul>	O
자발적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하고 정치적 적응력</li> <li>번거로운 관료주의 없이 신속한 전개</li> <li>정치적으로 덜 도발적 (직접적 NATO 브랜드화 회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휘 및 통제 구조 약화</li> <li>제한된 정보 공유 능력</li> <li>작전 응집력 및 지속 가능성 의문</li> </ul>	
EU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내 높은 정당성</li> <li>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CSDP)과의 통합</li> <li>NATO 개입을 경계하는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수용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O에 비해 제한된 지휘 인프라</li> <li>NATO와의 중복 및 자원 전용 위험</li> <li>주요 군사 작전 경험 부족</li> </ul>	
UN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범위한 국제적 정당성과 정치적 수용성</li> <li>글로벌 외교적 지지 확보가 용이</li> <li>러시아 및 서방의 지배에 회의적인 다른 국가에 덜 도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느리고 복잡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li> <li>미약한 지휘 및 통제 효율성</li> <li>안보리의 지정학적 교착상태에 취약</li> </ul>	X

## V. 결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재래식 군사 분쟁으로, 국제법과 주권 원칙에 대한 도전이자 유럽 안보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2025년 4월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30일 잠정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양측의 조건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지역 철수와 서방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전투 중단”을 통한 평화 협상 시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러시아의 재편성 기회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강력한 국제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원조 피로감과 국내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은 영토 양보를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휴전 협상 접근 방식은 추가 요구사항을 통한 지연 전술이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PKO의 효과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화유지군(PKF) 규모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20만 명의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보다 적은 숫자는 “기껏해야 상징적인 존재”로 실질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럽 NATO 회원국들은 상비군 규모 제한, 헌법의회적 제약, 다른 지역 파병 부담 등으로 대규모 병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구성은 미국의 물류·정보 지원을 받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3만 명 규모 다국적 병력으로, 드론 감시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평화유지군 파견을 제안했으나, 서방 연합이 아닌 중국 주도의 조건부 제안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 관계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PKF 지휘체계 중 NATO-EU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모델은 NATO의 군사적 자산과 EU의 정치적 정당성을 결합해 전략적 요구와 정치적 시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NATO의 군사적 계획과 작전 통제 능력을 활용하면서, EU의 민간 참여, 재건, 법적 감독 역량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균형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특정 EU 회원국이 전투 부대를 배치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중립국의 법률자문 기여와 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반면, 유엔 주도 모델은 글로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다.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유엔 평화유지 부서의 신속 배치 한계, 운용 능력의 극심한 편차,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NATO 주도 모델은 러시아의 강한 반발, EU 주도 모델은 군사 자산과 지휘통제 구조 부족, ‘자발적 연합’ 모델은 상호운용성과 일관된 교전규칙 부재가 각각 약점으로 지적된다.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PKO) 창설 논의는 한국에 다양하고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평화유지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PKO에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기여가 가능하다. 특히 레바논(UNIFIL), 남수단(UNMISS), 아프간 등에서의 PKO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뢰제거, 의료지원, 민군작전, 재건사업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는 임무의 성공

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탈냉전 이후 형성된 국제 안보질서가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재편되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재평가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안보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는 강대국 간 경쟁의 심화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가치기반 동맹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PKO 참여는 이러한 복합적 외교를 실천하는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PKO를 통해 한국은 유럽 안보 아키텍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보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고, 북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안보 관심은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었으나,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시야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유럽 안보에 대한 기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 국가들의 안보 참여를 촉진하는 상호주의적 접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우크라이나 PKO 참여는 대북 억제력 강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우크라이나 PKO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군사 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안보 지원은 한국 방산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 여섯째, 평화유지 참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세계 10위권)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PKO 참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보여주며,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PKO 참여를 통해 획득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자국의 평화유지 역량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평화유지 메커니즘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드러난 기존 PKO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평화유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국제사회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Barry, Ben. 2025. *Potential European Mission in Ukraine: Key Military Factors*.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March 7.
- Barry, Ben, et al. 2025. *A European Reassurance Force for Ukraine: Options and Challenges*.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March.
- Berminghamin, Finbarr, et al. 2025. "China Could Play 'Substantial' Peace Role in Ukraine as US Seeks a Quick Deal."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17.
- Chellaney, Brahma. 2025. "The Global Divide Over the Ukraine War." *Project Syndicate*, March 13.
- Erlanger, Steven, and Jeanna Smialek. 2025. "Europe Talks Tough on Military Spending, but Unity Is Fracturing." *New York Times*, March 26.
- Findlay, Trevor. 2002. *The Use of Force in UN Peace Operations*.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 Freedman, Lawrence. 2024. "Failure in the Sahel." *Comment is Freed*, November 3.
- Friedman, Jeremy. 2024. "The Case for Inclusive Alliances." *Foreign Affairs*, July 17.
- Gozzi, Laura. 2024. "Putin Warns West against Sending Troops to Ukraine." *BBC News*, March 1.
- Habtom, Naman Karl-Thomas. 2025. "The Global South, Not Europe, Should Play Peacekeeper in Ukraine." *Foreign Policy*, February 13.
- Irish, John, and Elizabeth Pineau. 2025. "Europeans Back Strong Ukraine Army, Differ on Future 'Reassurance Force'." *Reuters*, March 28.
- Karlsrud, John, and Yf Reykers. 2020. "Ad Hoc Coalitions and Institutional Exploitation in International Security: Towards a Typology." *Third World Quarterly* 41 (9): 1518-1536.
- Lawless, Jill. 2025a. "European Troops, US Support Are Part of an Emerging Plan for Ukraine. But It Faces Many Hurdles." *Washington Post*, February 21.
- ———. 2025b. "European Troops, US Support Are Part of an Emerging Plan for Ukraine. But It Faces Many Hurdles." *AP News*, February 21.
- Lawson, Jill. 2025c. "European Troops, US Support Are Part of an Emerging Plan for

Ukraine. But It Faces Many Hurdles.” *Economic Times*, February 21.

- Magid, Shelby, and Yulia Shalomov. 2022. “Russia’s Veto Makes a Mockery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tlantic Council*, March 15.
- Parker, George, and Leila Abboud. 2025a. “UK to Convene ‘Coalition of the Willing’ for Ukraine Peace Force.” *Financial Times*, March 11.
- ———. 2025b. “UK to Convene ‘Coalition of the Willing’ for Ukraine Peace Force.” *Financial Times*, March 11.
- Rankin, Jennifer. 2025. “Orbán Problem Pushes EU towards ‘Coalitions of the Willing’ on Ukraine.” *Guardian*, March 2.
- Rathbone, John Paul. 2025. “Will Europe Put ‘Boots on the Ground’ in Ukraine?” *Financial Times*, January 23.
- Retter, Lucia. 2021. *European Strategic Autonomy in Defence*.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November 9.
- Rittimann, Olivier. 2021. “Operation Althea and the Virtues of the Berlin Plus Agreement.” *NATO Defense College*.
- Staff Reporter. 2024. “Zelenskyy: Ukraine Would Need at Least 200,000 Peacekeepers for Ceasefire.” *VOA News*, January 21.
- ———. 2025a. “How Will Russia Respond to the U.S.–Proposed Ceasefire in Ukraine?” *Stratfor*, March 14.
- ———. 2025b. “Stratfor Analysis.” *Stratfor*, May 14.
- ———. 2025c. “Zelenskyy: Ukraine Would Need at Least 200,000 Peacekeepers for Ceasefire.” *VOA News*, January 21.
- ———. 2025d. “Which Countries Are Ready to Send Their Troops to Ukraine as Part of a Peacekeeping Mission?” *VisitUkraine.Today*, February 17.
- ———. 2025e. “Ukraine Partition a Possible Option—Just Not Kellogg’s Version.” *Asia Times*, April 15.
- Transatlantic Task Force. 2025.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A New Blueprint for Strategic Autonomy*. Brussels: Beyond the Horizon, March 25.
- Wei, Lingling, et al. 2025. “China Tries to Play Role of Peacemaker in Ukrain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2.

- Walshe, Garvan. 2025. “How Europe Can Defend Itself.” *Foreign Policy*, February 18.
- Williams, Nicholas. 2018. “NATO–EU Cooperation: Don’t Forget Berlin Plus!” *European Leadership Network*, March 28.





##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결과: 레바논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함의

The Aftermath of the Israel-Hezbollah War: Implications for  
Lebanon an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국방대학교 전문교수 문진혁\*

Professor Moon, Jin-hyeok

건양대학교 교수 지효근\*\*

Professor Jee, Hyo-keun

\*) 국방대학교 PKO센터 교수(안보학 박사), 주레바논 국방무관 역임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정치학 박사), 주레바논 국방무관 역임



## 요약

1980년대 중반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된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Hezbollah)는 2006년 이스라엘과 전쟁을 거치면서 레바논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비국가 무장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4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 헤즈볼라의 수장이었던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 사무총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제거되고 핵심 군사시설이 파괴되면서 헤즈볼라의 군사적 및 정치적 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이번 갈등은 헤즈볼라가 이란 및 시리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중동 지역의 역학구조와 이란이 주도하는 연대 조직인 '저항의 축'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은 정전협정에 따라서 무력 충돌은 단기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장기적인 이행 가능성에 도전이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레바논군(LAF, Lebanese Armed Forces)이 안보를 주도하는 국가방위 전략을 구축하고, 무력 사용의 국가 독점을 실현하는 것이 레바논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엔 레바논임무단(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남아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유엔 레바논임무단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전협정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 레바논임무단과 정전협정의 주요 중재국들은 장기적인 분쟁 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엔안보리결의1701호(2006)에서 명시된 위임명령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헤즈볼라, 비국가행위자,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레바논군, 유엔 레바논임무단



## ABSTRACT

Hezbollah, a Shiite armed faction established in the mid-1980s with Iranian support, expanded it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in Lebanon following the 2006 war with Israel, and grew into the most powerful non-state armed group in the Middle East. However, during the full-scale war with Israel in 2024, Hezbollah suffered a serious blow as its leadership including Secretary-General Hassan Nasrallah, was eliminated and its key military infrastructure was destroyed, severely undermining its military and political foundations. This conflic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Middle East, particularly due to Hezbollah's close ties with Iran and Syria, and it presented new challenges to the activities of the so-called "Axis of Resistance" led by Iran. While the 2024 Israel-Hezbollah war resulted in a short-term cessation of hostilities through a ceasefire agreement, the long-term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remains uncertain. Above a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tensifying its calls for Hezbollah's disarmament. A key challenge for Lebanon is to establish a national defense strategy led by the Lebanese Armed Forces (LAF) and to ensure the state's monopoly on the use of force. Despite the 2024 conflict, 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remains a crucial mechanism for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owever, without sustained international support, UNIFIL's ability to fulfill its monitoring and mediation roles may be limited, potentially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easefire. UNIFIL and the major mediating states must formulate a long-term conflict prevention strategy to ensure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mandate outline i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1 (2006).

**Keyword:** Hezbollah, Non-State Actor, 2024 Israel-Hezbollah War, Lebanese Armed Forc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결과: 레바논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함의

## The Aftermath of the Israel-Hezbollah War: Implications for Lebanon an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국방대학교 전문교수 문진혁

Professor Moon, Jin-hyeok

건양대학교 교수 지효근

Professor Jee, Hyo-keun

### I. 서론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Hezbollah)는 1982년 창설 이후 소위 ‘국가속의 국가’로 군림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로 주목받아 왔다.<sup>1)</sup> 그런데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는 격변을 겪고 있다. 2023년 10월 하마스는 ‘알-아크사 홍수작전’(영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개시하였으며, 헤즈볼라는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전선을 열었다.

헤즈볼라의 도발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2024년 9월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우선 헤즈볼라 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호출기와 무전기를 폭발시키고,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공습에 이어 지상작전을 전개한 결과, 헤즈볼라 지도부 및 군사시설은

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at Is Hezbollah?” 24 October 2024.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hezbollah>(검색일: 2025.3.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의 여파로 레바논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4,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남부 레바논의 시아파 무슬림 거주지역은 폐허가 되었다.<sup>2)</sup>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을 막지 못한 유엔 레바논임무단(UNIFIL, UN Interim Force in Lebanon)은 철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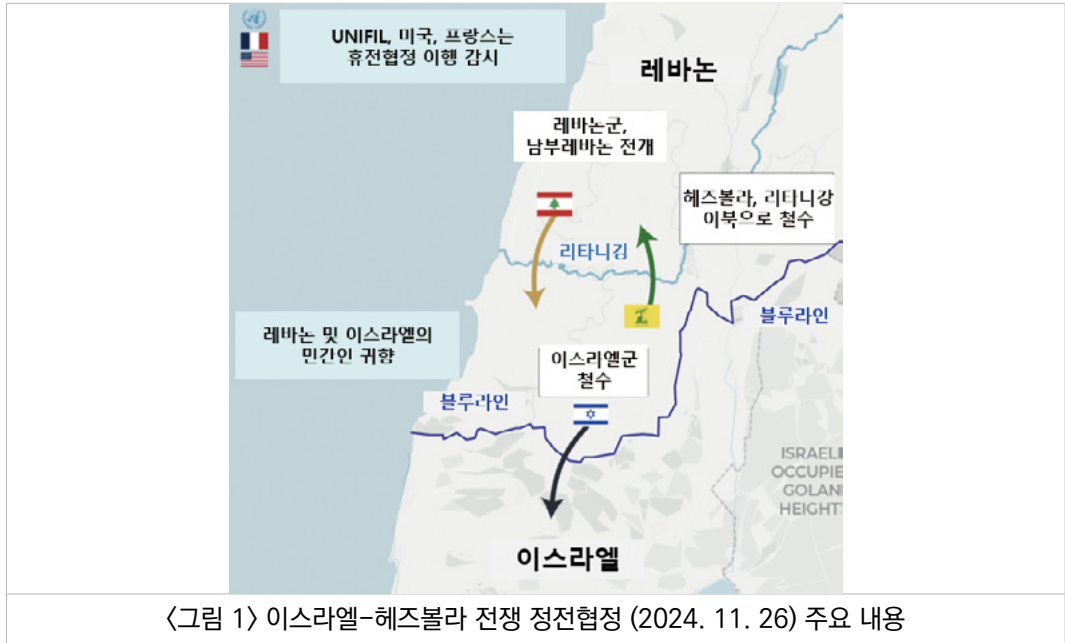
2024년 11.27일 발효된 정전협정은 궁지에 몰린 헤즈볼라의 항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리타니강 이남에서 헤즈볼라 전투원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스라엘군이 자유롭게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정전협정에 명문화하였다(그림 1 참조). 이러한 가운데 레바논 국회는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정치적 교착상태를 종식하고, 2025년 1월 레바논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셉 아운(Joseph Aoun)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헤즈볼라가 정치권의 대통령 선출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전쟁 이후, 헤즈볼라는 조직의 생존과 재건을 위해 전략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아울러 일부 서구권 국가는 2024년 전쟁의 결과를 이란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킬 기회로 삼고 있으며, 레바논 정치권은 국제사회로부터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치구조의 한계와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려온 레바논 국민들은 헤즈볼라가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헤즈볼라가 초래한 전쟁 피해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무력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sup>3)</sup> 이러한 가운데 본고는 제2장에서 헤즈볼라의 탄생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2024년 전쟁 결과, 헤즈볼라의 쇠퇴를 초래한 요인<sup>4)</sup>과 지역적 영향을 고찰하였다. 제4장 결론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가 레바논 및 유엔 레바논임무단에게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2) Hugo Bachega. "Battered but defiant – what will happen to Hezbollah's weapons?" BBC. 7 February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p82pm3exz0o>(검색일: 2025. 3. 3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 Patricia Karam. "Hezbollah's Likely Demise and Lebanon's Uncertain Future." Arab Center Washington DC. 4 December 2024.. <https://arabcenterdc.org/resource/hezbollahs-likely-demise-and-lebanons-uncertain-future/> (검색일: 2025. 3. 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4) Devore & Stähli(2015)는 헤즈볼라의 효과성 결정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 Marc R. Devore & Armin B. Stähli. "Explaining Hezbollah' Effectiveness: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nts of the Rise of Violent Non-State Actor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27. No. 2(2015), pp. 331-357.



출처: Aljazeera. "Israel-Hezbollah ceasefire takes effect in Lebanon" 26 November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1/26/biden-announces-israel-hezbollah-ceasefire-agreement>(검색일: 2025. 3.30).

## II. 헤즈볼라의 탄생과 성장

역사적으로 20세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동은 이슬람 순니파 주도의 세계이었으며,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주요 담론은 아랍민족주의였다.<sup>5)</sup>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에 무너진 이후부터 아랍민족주의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불과 6일 만에 패배한 이후, 아랍 사회 전반에는 깊은 실망감이 퍼졌고, 세속적인 이념으로 간주되는 아랍민족주의보다는 이슬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sup>6)</sup>

헤즈볼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2년 이란의 후원으로 창설되었다. 박찬기(2008)는

5) 아랍민족주의는 아랍인들이 한민족임을 주장하고 아랍인들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로 아랍문화와 아랍어를 칭송하고, 아랍권의 부흥과 정치적 통합을 주장한다. 하병주. "아랍민족주의 기원과 특성." 『국제정치연구』 제5집 제1호 (2002), pp. 123-124.

6) 성일광. "폭풍전야 2025년 중동." SEJONG FOCUS. 2024년 12월24일.

헤즈볼라의 형성과정에 다섯 가지 결정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sup>7)</sup> 주요 내용은 첫째, 레바논의 구조적 불균형<sup>8)</sup>, 둘째,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시아 민중운동과 지도자 무사 알사드르(Musa al-Sadr)의 등장<sup>9)</sup>, 셋째, 내전의 시작과 레바논 정부의 붕괴<sup>10)</sup>, 넷째,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아말(Amal)에 대한 도전세력의 등장<sup>11)</sup>, 다섯째, 이란과 시리아 등 외부세력의 영향 등이다.

부연하면, 이란의 지도자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는 1982년 테헤란에서 레바논 성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과의 항쟁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으며,<sup>12)</sup>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인원 약 5천 명을 레바논으로 파견하였다.<sup>13)</sup> 이후 레바논 시아운동가들은 베카 계곡(Bekaa valley)에서 호메이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저항운동 단체를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헤즈볼라의 배경이 되었다.<sup>14)</sup> 또한 이란이 지원한 자금은 헤즈볼라의 성장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 헤즈볼라가 월 150~200달러의 정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시 아말 운동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소속되었던 시아파 전투원을 끌어들이 수 있었고, 헤즈볼라 전투원은 약 7,000명 규모로 급속히 확장될 수 있었다.<sup>15)</sup>

- 7) 박찬기. “헤즈볼라(Hezbollah)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집』 제48집 3호(2008), pp. 208-222.
- 8) 레바논이 194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시아파가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것을 의미한다. 1932년 레바논 인구통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54%, 수니파 무슬림이 22.4%, 시아파 무슬림이 19.6% 차지했으며, 이러한 통계에 근거하여 종파별로 국가의 3권을 분리하였다. 종파간 정치권력을 분배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아출신 고위공직자는 단지 3.2%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에 비교하여 당시 시아파에 할당된 국회의장의 권한은 매우 미약하였다. 경제적으로도 시아파는 소외되었다. 1970년대 초반 시아파 무슬림의 소득이 레바논 국민 평균소득의 75%에 불과하였다. 박찬기(2008), pp. 208-209.
- 9) 알사드르(Musa al-Sadr)는 이란 태생이지만 1959년 그의 조상의 모국인 레바논으로 이주하였으며, 1967년 레바논 시아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시아최고위원회(Supreme Shia Council)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1973년 이후 알사드르는 무력투쟁노선을 선택하였는데, 다음해 3월 베카 계곡의 군중집회에서(약 7만 5천 명 참석) 레바논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면서 혁명적인 무력투쟁을 역설하였다. 박찬기(2008), pp. 210-211.
- 10) 레바논 내전(1975~1989년)이 시작되자 시아파 무슬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말운동(Amal Movement)이 결성되었다. 박찬기(2008), p. 212.
- 11) 1982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소탕작전에 아말운동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아말운동은 정통성을 상실하고 여러 조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중 가장 과격한 단체가 헤즈볼라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박찬기(2008), pp. 215-217.
- 12) 박찬기(2008), p. 219.
- 13) Marc R. Devore & Armin B. Stähli(2015), p. 341.
- 14) 박찬기(2008), p. 219.
- 15) Marc R. Devore & Armin B. Stähli(2015), p. 342.

헤즈볼라는 1985년 그 존재를 공식화하고 성명서(The Hezbollah Program)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이슬람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 및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레바논에서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는 것, 둘째 레바논 기독교 정당 카티브(Kataeb Party)를 굴복시키고, 그들이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에게 자행한 범죄를 단죄하는 것, 셋째 레바논 후손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 형태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므로 유일한 해법은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sup>16)</sup>

창설 이후 헤즈볼라는 테러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였으며, 레바논 국민들에게 저항군으로서의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대표적으로 1983년 베이루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및 프랑스군 건물에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미군 241명, 프랑스군 58명이 사망하였다.<sup>17)</sup> 그 여파로 미국, 프랑스, 이태리 등으로 편성되었던 다국적군은 1984년 레바논에서 철수하였으며, 1996년 이후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군은 2000년 전격적으로 철수한 사례가 있다.

헤즈볼라의 활동 노선은 레바논의 국내외 정치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고찰되었다. 창설 초기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내전으로 인하여 헤즈볼라가 정치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헤즈볼라도 종파별 권력배분, 무능과 부패 등 레바논 정치구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비판하였다.<sup>18)</sup> 그러나 1992년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가 사무총장이 된 이후로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치권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였다.<sup>19)</sup> 1992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8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5년부터 정부 내각에도 임명되었다. 레바논 내전을 종식시킨 1989년 타이프협약(Taif Agreement)에 의하면 레

16) 지효근. “헤즈볼라의 정치군사적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1, 2차 레바논전쟁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81호 (2020), p. 143.

17) 국방대학교. 『레바논 핸드북』 (서울: 국군인쇄창, 2014), p. 58.

18) Augustus R. Norton. “The Role of Hezbollah in Lebanese Domestic Politics.”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 42. No. 4(2007), pp. 480-481.

19)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는 1980년대 초 헤즈볼라를 창설하는데 참여한 이후로 1992년부터 2024년 9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할 때까지 30년 이상 사무총장 직책을 수행하여 왔다.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로 같은 해 10월 말에 슈라 위원회(Shura Council)에 의해서 나임 카심(Naim Qasim)이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바논 국회에서 기독교와 무슬림 의석 배분은 각각 64석이며, 시아파 의석은 27석이었다.<sup>20)</sup> 따라서 헤즈볼라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여 12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공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표1〉 헤즈볼라의 국회의원 당선 의석수

구분	1992년	1996년	2000년	2005년	2009년	2019년	2022년
의석수	12(8)	9(7)	12(10)	14	12	13	13

출처: 의석수는 헤즈볼라와 헤즈볼라 연합 무소속의원의 의석을 합친 것이며, 헤즈볼라 자체 의석수는 팔호안의 숫자임. 지효근(2020), p. 15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헤즈볼라가 군사중심적 활동에서 입장을 바꿔 레바논 정치권에 참여한 것은 두 가지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헤즈볼라가 테러집단이 아닌 정치집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헤즈볼라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치 참여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sup>22)</sup> 부연하면, 레바논 내전을 종식시킨 타이프 협약(Taif Agreement)에 의하면 레바논 내 모든 무장단체는 무장을 포기해야 했지만, 헤즈볼라는 정치권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명분으로 삼아 무장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레바논 다른 정치집단은 어떤 조치도 내리지 못했다.

정부 내각에서도 헤즈볼라는 야당 세력과 함께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베이루트 일부, 남부 레바논, 베카 계곡 등의 시아파 이슬람이 다수인 지역 대부분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국가 속의 국가와 같은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6년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헤즈볼라는 효과적인 전후 복구사업 등을 통하여

20) 레바논의 종파별 권력배분은 레바논 정치의 근간이 되었다. 194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시 권력의 주도권을 잡았던 마론파 기독교와 수니파 지도자들 간 합의한 국민협약(National Pact)에 의해서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국회의장은 시아파 이슬람, 그리고 국무총리는 수니파 이슬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회 의석수는 1932년 당시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독교 65석, 무슬림 55석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레바논 내전(1975년~1989년)을 종식시켰던 1989년 타이프 협정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의 분권은 유지하였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의석수를 1:1로 조정되었다. 이경수·김은비, “레바논은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3호 (2021). p. 240.

21) 헤즈볼라는 202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128석 가운데 13석을 유지하면서 헤즈볼라를 포함한 시아파 및 親시리아 성향의 3.18 동맹은 다수당 위치를 상실하였다.

22) 지효근(2020), pp. 148-149.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sup>23)</sup> 2006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레바논 국민의 87%가 헤즈볼라의 저항활동에 지지를 보냈으며, 헤즈볼라와 종교적으로 다른 기독교와 드루즈의 80%도 지지했다는 점에서 헤즈볼라는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그렇다면 2006년 전쟁 당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이 전쟁을 연구한 Cordesman(2007)은 헤즈볼라가 전투 시 인구밀집지역과 민간인 거주지역에 근접함으로써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이스라엘군에게 도시지역 작전을 강요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함으로써 레바논 국민의 저항의지를 고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sup>25)</sup> 이러한 비정규전 및 게릴라 전술은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과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참여했던 경험과 레바논 내전 기간 중 습득한 전술을 개선한 것이었다.<sup>26)</sup>

둘째, 헤즈볼라는 당시 약 1만~1만 6천 기의 단거리 로켓과 사거리가 연장된 그라드 계열의 122밀리 카슈사(Grad-series Katyusha) 로켓을 보유하고 있었다.<sup>27)</sup>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발사가 가능한 소형 로켓이지만 부정확하고, 탄두가 소형이어서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다량의 로켓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민에게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28)</sup>

셋째, 이스라엘과의 접경지역의 지하 40미터 깊이에 수 km에 걸쳐서 그물망처럼 지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재보급 없이도 몇 주 이상을 버틸 수 있도록 의료시설, 무기, 수돗물, 물자 등을 비축해 놓았다. 도청이나 전파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하에 광섬유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전투를 지휘할 수 있었으며, 무기와 보급품을 지하병커와 터널에 분산하여 보관함으

23) Maryclare Roche and Michael Robbins. "What the Lebanese People Really Think of Hezbollah." Foreign Affairs. July 12 2024. <https://www.foreignaffairs.com/middle-east/what-lebanese-people-really-think-hezbollah>(검색일: 2025.3.27).

24) Anthony H. Cordesman. Lessons of the 2006 Israeli-Hezbollah War (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7), pp. 28-29.

25) Anthony H. Cordesman(2007), pp. 42-45.

26) Marc R. Devore & Armin B. Stähli(2015), p. 344.

27) Anthony H. Cordesman(2007), p. 100.

28) Anthony H. Cordesman(2007), p. 102.

로써 생존성을 높일 수 있었다.<sup>29)</sup>

넷째, 헤즈볼라는 국제여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사용한 약 4백만 개의 집속탄 가운데 약 30~40%에 해당하는 1백만 개가 불발탄이었던 사실을 활용하여 국제적 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였다.<sup>30)</sup> 요컨대 헤즈볼라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sup>31)</sup>을 도입하여 다양한 비대칭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2)</sup>

### III.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결과

#### 1.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경과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Gaza Strip)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헤즈볼라의 보복성 교전이 약 1년간 지속되어 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지역에 박격포와 로켓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려 했으나,<sup>33)</sup> 양측의 교전은 2024년 9월 이후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은 헤즈볼라 대원의 무선전화와 무전기를 폭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를 활용하여 지하 18미터에 위치한 지휘본부를 타격함으로써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 사무총장과 그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하셈 사피에딘(Hashem Safieddine)을 제거하였

29) Anthony H. Cordesman(2007), p.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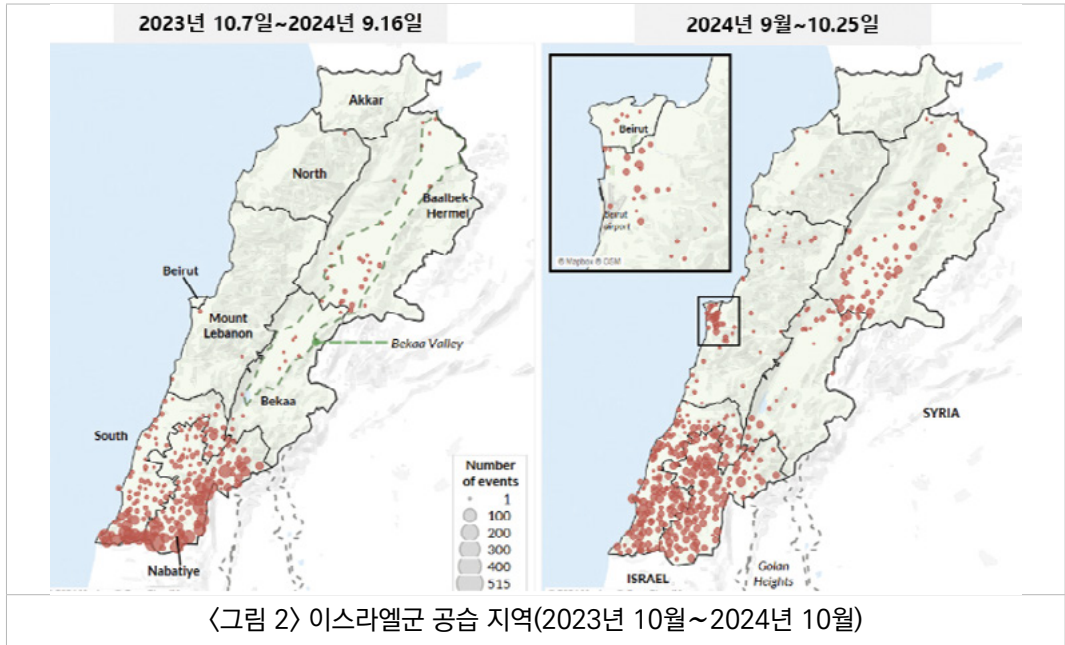
30) 지효근(2020), p. 158.

31)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하여 상대국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전쟁 형태를 말한다. 이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한다. 예를 들면 군사적 공격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 오정보와 역정보를 이용한 정치적 공작 같은 비군사적 수단이 포함된다. 지효근(2020), pp. 146-14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2) Frank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ton: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pp. 35-42.

33) Mohammed Hussein. "Mapping 11 months of Israel-Lebanon cross-border attacks." Aljazeera. 11 September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9/11/mapping-11-months-if-israel-lebanon-cross-border-attacks>(검색일: 2025.3.25).

다.<sup>34)</sup> 헤즈볼라 군사시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공습으로 푸아드 슈크르(Fuad Shukr), 알리 카라키(Ali Karaki) 등 고위사령관들이 사망하면서 헤즈볼라의 지휘체계는 마비되었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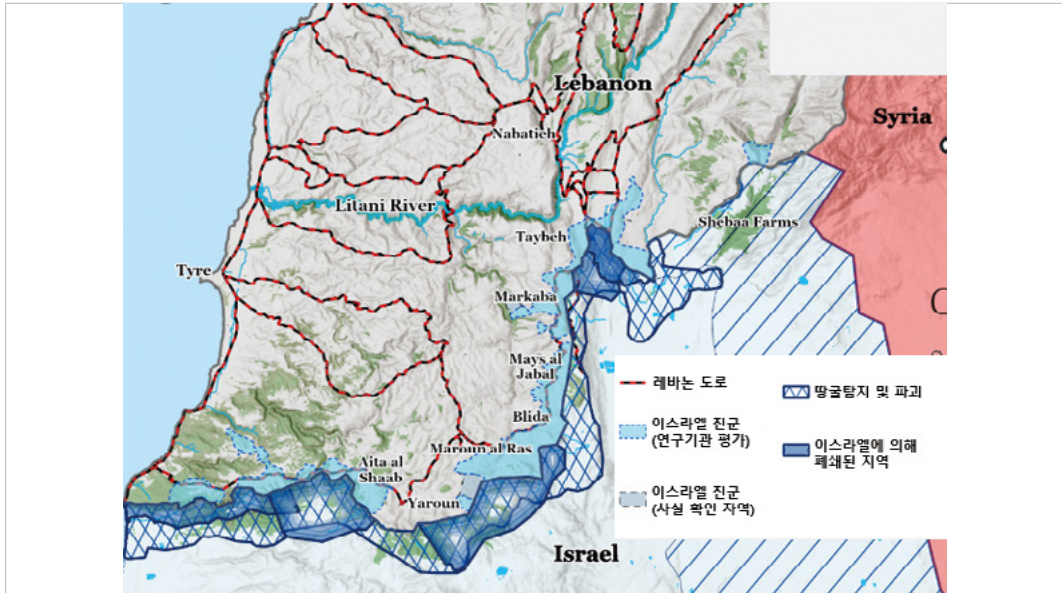
출처: Ameneh Mehvar. "Q&A: Behind the data on the Israel-Hezbollah war." ACLED. 1 November 2024. <https://acleddata.com/>(검색일: 2025.3.25).

이스라엘군은 10월 1일부터 헤즈볼라의 공격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 실향민들을 이스라엘 북부지역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상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레바논 남부지역에 최소 18개 여단, 약 7~10만 명의 이스라엘군 부대가 투입되어 헤즈볼라 군사시설, 땅굴, 무기고고를 파괴하고 시리아 국경검문소를 공격함으로써 헤즈볼라의 무기 공급망을 차단하였다.<sup>36)</sup>

34) Reuters. "Hezbollah's Hashem Safieddine, heir apparent to Nasrallah, killed in Israeli attack, group says." 23 October 2024.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hezbollahs-hashem-safieddine-heir-apparent-nasrallah-killed-israeli-attack-group-2024-10-23/>(검색일: 2025.3.25).

3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at Is Hezbollah?" 24 October 2024.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hezbollah>(검색일: 2025.3.23).

36) Iran International. "What Iran and Hezbollah lost in war with Israel." 27 November 2024.



〈그림 3〉 이스라엘군 남부 레바논 작전 지역(2024년 10~11월)

출처: Johanna Moore. “Has Israel launched a ground operation into Lebanon?” Critical Threats. 21 November 2024. <https://www.criticalthreats.org/analysis/understanding-israels-campaign-to-defeat-hezbollah-in-lebanon>(검색일: 2025.3.25).

미국의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헤즈볼라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sup>37)</sup> 첫째,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으로 헤즈볼라의 지휘체제와 통신망을 마비시킨 것이 헤즈볼라의 전투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상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로켓과 박격포 공격에 의존하였으며, 이스라엘군의 지상공격을 저지하지 못했던 전술적 한계를 드러냈다.

셋째, 방자의 입장된 헤즈볼라는 철수<sup>38)</sup>와 재조직<sup>39)</sup>을 통해서 전투력을 보존하지 못하였다. 부연하면 방자는 철수 시 군수물자를 보호하거나 파괴해야 하지만, 헤즈볼라는 코넷(Kornet)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야간 투시경 등 고가의 장비를 철수시키지 못하고 이스라

37)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Hezbollah’s Military Forces Are Failing in Lebanon.” 28 October 2024.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hezbollah%E2%80%99s-military-forces-are-failing-lebanon>(검색일: 2025.3.25)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8) 철수란 적과 접촉하고 있는 부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적지역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작전이며, 방작전 형태 중 지역방어 종류의 하나이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국군인쇄창, 2020), p. 326.

39) 재조직이란 심대한 전투손실을 입은 부대가 재편성만으로 전투력 회복이 곤란하고 작전지속이 불가능할 때, 2차 이상의 상급부대가 해당부대의 전투력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동참모본부(2020), p. 244.

엘군에게 압수당했다. 넷째, 헤즈볼라는 휴전을 강제하거나 붕괴된 조직을 재편성하기 위한 지연전<sup>40)</sup>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투에서 주도권 상실로 이어졌으며, 헤즈볼라 전투력이 약화되었던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2024년 전쟁 결과 양측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레바논에서 약 4천 명이 사망하였으며, 약 12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세계은행은 레바논의 전쟁 피해 복구에 최소 85억 달러가 소요되며, 2024년 레바논의 실질 GDP 성장률은 최소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만성적인 위기로 시달려 왔던 레바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sup>41)</sup>

〈표2〉 이스라엘-레바논 주요 전쟁 피해

구분	인명 피해	재산 피해	피난민 발생
레바논	3,823명 사망	약 85억불 상당 (가구 약 10만 호 파괴)	120만 명
이스라엘	군인 80명 사망 민간인 47명 사망	토지 약 28km <sup>2</sup> 소실	46,500명

출처: The Associate Press. "The Israel-Hezbollah war by the numbers." 27 November 2024. <https://apnews.com/article/israel-lebanon-war-numbers-hezbollah-military-6f1a651ebba0a88fbd7ca59a57acd1e>(검색일: 2025.3.25).

## 2. 헤즈볼라의 군사적, 정치적 쇠퇴

2006년 전쟁 시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헤즈볼라는 2024년 전쟁 결과,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2025년 2월에 있었던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와 그의 후계자로 예정되었던 하셈 사피에딘(Hashem Safieddine)의 합동 장례식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 가운데 헤즈볼라의 운명이 바뀌고 있

40) 지연이란 적과 접촉하고 있는 부대가 일정한 공간을 이용하여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하고, 적의 공격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시간을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군사행동 또는 결과를 의미한다. 합동참모본부(2020), p. 310.

41) The Associate Press. "The Israel-Hezbollah war by the numbers." 26 November 2024. <https://apnews.com/article/israel-lebanon-war-numbers-hezbollah-military-6f1a651ebba0a88fbd7ca59a57acd1e>(검색일: 2025.3.25).

음을 보여주었다.<sup>42)</sup>

헤즈볼라의 군사적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언론에 의하면 헤즈볼라 전투원 약 3,800명이 사망하였으며, 약 7,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폭발 장치, 드론,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등 총 15만 5천 점 이상의 무기 및 장비와 컴퓨터 통신·전자 장비 및 문서 12만 1천 점을 확보하였다.<sup>43)</sup> 헤즈볼라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할 수는 없지만, 일변 전쟁을 통해 헤즈볼라에게 상당히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24년 전쟁은 헤즈볼라의 대중적 이미지에 균열을 가져왔다. 최근 아랍 바로미터(Arab Barometer)의 조사에 의하면, 레바논 국민의 67%가 헤즈볼라의 무장활동이 레바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2021년의 48% 수준에서 급격히 증가한 결과이다.<sup>44)</sup> 레바논 국민 다수가 헤즈볼라의 무모한 도발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헤즈볼라의 정당성이 약화된 것이다.

### 3. 지역적 영향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1980년 이후 최근까지 역내 정세를 주도하던 이란의 시아파 연대조직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하마스, 헤즈볼라와 시리아 측 이란의 '저항의 축' 세 개가 무너진 것이다.<sup>45)</sup> 한편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의 여파로 레바논 정치권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2025년 1월 레바논 국회는 레바논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셉 아운(Joseph Aoun)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유엔 안보리결의 1701호(2006)에 따라서 레바논군이 남부 레바논의 치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 11월 정전협정의 타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42) 헤즈볼라를 위시하여 가자지구의 하마스나 예멘의 후티 등의 역내 무장 정파들의 배후에는 이란이 존재한다. 이들은 '시아 벨트(Shiite belt)'로 불리기도 했으나 인남식(2024)은 하마스나 이슬라미지하드는 수니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을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으로 정의하였다. 인남식. "2024 중동분쟁의 배경과 전망." IFAN FOCUS(2024/8월14일), p. 2.

43) Jerusalem Post. "IDF reveals military achievements of Operation Northern Arrows after Lebanon ceasefire." 29 November 2024. <https://www.jpost.com/middle-east/article-831293>(검색일: 2025.3.25).

44) Len Khodorkovsky. "Lebanon can regain independence with Hezbollah's demise and weakened Iranian regime." Arabiya News. 11 February 2025. <https://english.alarabiya.net/views/2025/02/11/lebanon-can-regain-independence-with-hezbollah-s-demise-and-weakened-iranian-regime>(검색일: 2025.3.25).

45) 성일광. "폭풍전야 2025년 중동." SEJONG FOCUS. 2024년 12월24일.

하여 왔다.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방지하고, 레바논군이 국가안보를 주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전쟁은 중동의 역학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Fawaz(2025)는 헤즈볼라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있는 이란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 이후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잃은 지지자들이 헤즈볼라의 재건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헤즈볼라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충성심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sup>46)</sup> 2024년 12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또 다른 측면에서 헤즈볼라의 입지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시리아를 통과하여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를 받을 수 있었던 보급로가 붕괴되면서 헤즈볼라의 재보급 및 재무장은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HTS, Hayat Tahrir al-Sham)의 수장 ‘아흐메드 알 샤라’(Ahmed al-Sharaa)는 시리아가 더 이상 헤즈볼라에게 안전한 물자보급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에 2024년 전쟁은 이스라엘이 군사적 기술 우위를 확인하고, 결정적으로 저항의 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세한 정보력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작전수행 능력은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역지력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내 이란의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함으로써 헤즈볼라에 대한 이란의 무기 공급능력은 30% 이상 감소하였다.<sup>47)</sup>

유엔, 미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2024년 11월 26일 정전협정에 합의하였으며, 다음날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19마일)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 지역으로 전투원을 이동시켜야 하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둘째, 레바논 정부는 남부 지역의 평화유지와 감시를 위해 약 5,000명의 군인을 배치해야 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5개국이 정전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실시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1년 이상 분쟁 끝에 60일 동안 잠정적인 정전협정이 체결되었

46) Yassin K. Fawaz. "The end of Hezbollah?" The Arab Weekly. 26 February 2025. <https://thearabweekly.com/end-hezbollah>(검색일: 2025.3.25).

47) Len Khodorkovsky. "Lebanon can regain independence with Hezbollah's demise and weakened Iranian regime." Arabiya News. 11 February 2025. <https://english.alarabiya.net/views/2025/02/11/lebanon-can-regain-independence-with-hezbollah-s-demise-and-weakened-iranian-regime>(검색일: 2025.3.25).

지만, 향후 상황의 변화는 불확실하다. 국제사회는 이 정전협정의 이행 여부와 안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IV. 결론: 레바논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함의

2024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은 헤즈볼라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레바논 내에서 무장단체의 존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촉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의 사망과 함께 핵심 지휘부가 제거되었으며, 군사시설의 대대적인 손실은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2006년 이후 레바논에서 '국가 속의 국가' 역할을 자임하던 헤즈볼라는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쇠퇴의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25년 1월 조셉 아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레바논을 재건하고 무장 활동을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고 약속하였다.<sup>48)</sup> 이러한 조건하에서 레바논은 비국가행위자의 무력 사용을 통제하고, 국가 주도의 안보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하게 되었다.<sup>49)</sup> 이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요구해온 유엔안보리결의 제1701호(2006)의 충실한 이행과 맞닿아 있다. 최근 레바논군은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해체하고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불과 6개월 이전에 레바논군의 이러한 활동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sup>50)</sup>

유엔 레바논임무단(UNIFIL)은 1978년 창설 이후 약 47년간(2025년 기준) 남부 레바논에서 분쟁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의 불만, 특

48)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Hezbollah>(검색일: 2025.3.25).

49) Wendt(2003)는 국가는 조직적 폭력의 합법적 사용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조직이라고 설명하였다. Alexander Wendt.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4(2003), pp. 504; 알렉산더 웬트(저). 박건영 등(편).『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pp. 294-297.

50) The Guardian. "The price was huge: Hezbollah reeling as Lebanese ponder sacrifices of its war." 3 March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mar/03/the-price-of-this-war-was-huge-hezbollah-left-reeling-after-conflict-with-israel>(검색일: 2025.3.25).

히 이스라엘의 공개적인 철수 요구는 임무단의 존속 가능성에 도전이 되고 있다.<sup>51)</sup>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번 전쟁에서 평화유지군 5명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크와 (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Under-Secretary-General of the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 안보리는 임무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sup>52)</sup>

안보리는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의 종료 이후에 남부레바논(블루라인~리타니강 이남)에서의 분쟁 재발 방지,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및 허가되지 않은 무장 인원의 활동과 무기 반입의 통제를 위해서 유엔 레바논임무단이 레바논군을 지원하도록 위임명령 (mandate)을 부여하였으며,<sup>53)</sup> 이 임무는 2024년 안보리결의(제2749호)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24년 전쟁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블루라인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와 무장단체의 활동 억제를 위한 감시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유엔 레바논 임무단의 감시 및 중재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전협정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 레바논 임무단과 정전협정 주요 중재국들은 장기적인 분쟁 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51) Aljazeera. "Netanyahu wants UNIFIL out of southern Lebanon. Why?" 16 October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0/16/netanyahu-wants-unifil-out-of-lebanon-why>(검색일: 2025.3.25).

5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fers unanimous support to UNIFIL peacekeepers." 15 October 2024. <https://www.un.org/en/delegate/security-council-offers-unanimous-support-unifil-peacekeepers>(검색일: 2025.3.25).

53) United Nations. S/RES/1701(2006). para 8 and para 11(e).

8. Calls for Israel and Lebanon to support a permanent ceasefire and a long term solution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elements:

- full respect for the Blue Line by both parties;
  - security arrangements to prevent the resumption of hostil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between the Blue Line and the Litani river of an area free of any armed personnel, assets and weapons other than those of the Government of Lebanon and of UNIFIL as authorized in paragraph 11, deployed in this area;
  - full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aif Accords, and of resolutions 1559(2004) and 1680(2006), that require the disarmament of all armed groups in Lebanon, so that, pursuant to the Lebanese cabinet decision of 27 July 2006, there will be no weapons or authority in Lebanon other than that of the Lebanese State;
  - no foreign forces in Lebanon without the consent of its Government;
  - no sales or supply of arms and related materiel to Lebanon except as authorized by its Government;
- 11(e). Assist the Lebanese armed forces in taking step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area as referred to in paragraph 8.

유엔안보리결의 1701호(2006)의 위임명령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 레바논임무단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 동명부대의 파병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54)</sup>

레바논 평화를 위한 향후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레바논 정치권은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둘러싼 국내 합의를 유도해내야 한다. 둘째, 레바논군은 치안 능력을 강화하고, 남부지역을 포함한 전역에서 국가 주도의 법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UNIFIL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분쟁 예방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보리결의 1701호(2006)의 위임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레바논은 현재 안보 및 경제를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더 이상 실패국가 길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54) 이경수·김은비. “레바논은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3호(2021). p. 258.

## 참고문헌

### ■ 단행본 및 논문

- 국방대학교. 『레바논 핸드북』(서울: 국군인쇄창, 2014).
- 문진혁.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딜레마.” 『PKO 저널』 Vol. 24(2022).
- 박찬기. “헤zbollah(Hezbollah)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집』 제48집 3호(2008).
- 성일광. “폭풍전야 2025년 중동.” SEJONG FOCUS. 2024년 12월24일.
- 알렉산더 웬트. 박건영 등(편).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pp. 294-297.
- 이경수·김은비. “레바논은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3호(2021).
- 이장욱.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주요 이슈와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외교』 제148호(2024).
- 인남식. “2024 중동 분쟁의 배경과 전망.” IFAN FOCUS(2024/8월14일).
- 지호근. “헤zbollah의 정치군사적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1, 2차 레바논전쟁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81호(2020).
- 하병주. “아랍민족주의 기원과 특성.” 『국제정치연구』 제5집 제1호(2002).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국군인쇄창, 2020),
- Agubamah, Edgar & Odigbo Stephanie Theresa. “Hezbollah Involvement in Israel-Hamas War: Causes and Implications 2023-2024.” Kashere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Issue 1(2025).
- Cordesman, Anthony H. . Lessons of the 2006 Israeli-Hezbollah War (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7).
- Devore, Marc R. & Armin B. Stähli. “Explaining Hezbollah’ Effectiveness: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nts of the Rise of Violent Non-State Actor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27. No. 2(2015).
- Hoffman, Frank G.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ton: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 Norton, Augustus R. “The Role of Hezbollah in Lebanese Domestic Politics.”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 42. No. 4(2007).
- Wendt, Alexander.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4(2003).

## ■ 저널 및 인터넷 기사

- 김은비.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분석과 전망.” 「월간 국방대」 74호. 2024/11월.
- 이다운.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년 7월16일.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6842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2&pageCnt=10](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6842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2&pageCnt=10)(검색일: 2024.12.22).
- 이경수. “헤즈볼라-이스라엘 전쟁으로 장기화되는 레바논의 인도주의적 위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브리프」 제4권 25호. 2024년 10월14일. <https://snuac.snu.ac.kr/?p=47062>(검색일: 2024.12.22).
- 인남식. “2024 중동 분쟁의 배경과 전망.” IFAN FOCUS. 14 August 2024.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7&pblctDtaSn=14354&clCode=P07&boardSe=>(검색일: 2024.12.22).
- Aljazeera. “Netanyahu wants UNIFIL out of southern Lebanon. Why?” 16 October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0/16/netanyahu-wants-unifil-out-of-lebanon-why>(검색일: 2025.3.25).
- Bachega, Hugo. “Battered but defiant – what will happen to Hezbollah’s weapons?” BBC. 7 February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p82pm3exz0o>(검색일: 2025. 3. 30)
- Badran, Tony.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 30 June 2021. <https://www.fdd.org/analysis/2021/06/30/united-nations-interim-force-in-lebanon/>(검색일: 2025.1.31).
- BBC. “What is Hezbollah and why has it been fighting Israel in Lebanon?” 15 February 2025.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67307858>(검색일: 2025.3.23).
- Byman, Daniel et al. “Escalating to War between Israel, Hezbollah, and Ira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ctober 2024. <https://www.csis.org/analysis/escalating-war-between-israel-hezbollah-and-iran>(검색일: 2025.3.23).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at Is Hezbollah?” 24 October 2024.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hezbollah>(검색일: 2025.3.23).

- Fawaz, Yassin K. “The end of Hezbollah?” The Arab Weekly. 26 February 2025. <https://thearabweekly.com/end-hezbollah>(검색일: 2025.3.25).
- Feltman, Jeffrey. “Debating UN peacekeeping in Lebanon.” 15 June 2020.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articles/debating-un-peacekeeping-in-lebanon/> (검색일: 2025.3.23).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Hezbollah’s Military Forces Are Failing in Lebanon.” 28 October 2024.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hezbollah%E2%80%99s-military-forces-are-failing-lebanon>(검색일: 2025.3.25)
- Iran International. “What Iran and Hezbollah lost in war with Israel.” 27 November 2024. <https://www.iranintl.com/en/202411270763>(검색일: 2025.3.25).
- Jerusalem Post. “IDF reveals military achievements of Operation Northern Arrows after Lebanon ceasefire.” 29 November 2024. <https://www.jpost.com/middle-east/article-831293>(검색일: 2025.3.25).
- Johnes, Seth G. et al. “The Coming Conflict with Hezbollah.”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024. <https://www.csis.org/analysis/coming-conflict-hezbollah>(검색일: 2025.3.23).
- Karam, Patricia. “Hezbollah’s Likely Demise and Lebanon’s Uncertain Future.” Arab Center Washington DC. 4 December 2024. <https://arabcenterdc.org/resource/hezbollahs-likely-demise-and-lebanons-uncertain-future/>(검색일: 2025.3.23).
- Khodorkovsky, Len. “Lebanon can regain independence with Hezbollah’s demise and weakened Iranian regime.” Arabiya News. 11 February 2025. <https://english.alarabiya.net/views/2025/02/11/lebanon-can-regain-independence-with-hezbollah-s-demise-and-weakened-iranian-regime>(검색일: 2025.3.25).
- May, Clifford D. “Israel’s Gift: Lebanese patriots now have a chance to throw off Tehran’s yok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 4 December 2024.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4/dec/3/israel-gift-lebanese-patriots-chance-throw-iran-yo/>(검색일: 2025.3.23).
- Mehvar, Ameneh. “Q&A: Behind the data on the Israel-Hezbollah war.” ACLED. 1 November 2024. <https://acleddata.com>(검색일: 2025.3.25).
- Moore, Johanna. “Has Israel launched a ground operation into Lebanon?” Critical Threats. 21 November 2024. <https://www.criticalthreats.org/analysis/understanding-israels-campaign-to-defeat-hezbollah-in-lebanon>(검색일: 2025.3.25).

- Reuters. "Hezbollah's Hashem Safieddine, heir apparent to Nasrallah, killed in Israeli attack, group says." 23 October 2024.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hezbollahs-hashem-safieddine-heir-apparent-nasrallah-killed-israeli-attack-group-2024-10-23/>(검색일: 2025.3.25).
- Roche, Maryclare and Michael Robbins. "What the Lebanese People Really Think of Hezbollah." Foreign Affairs. July 12 2024. <https://www.foreignaffairs.com/middle-east/what-lebanese-people-really-think-hezbollah>(검색일: 2025.3.27).
- The Associate Press. "The Israel-Hezbollah war by the numbers." 26 November 2024. <https://apnews.com/article/israel-lebanon-war-numbers-hezbollah-military-6f1a651ebba0a88fbd7ca59a57acd1e>(검색일: 2025.3.25).
- The Guardian. "The price was huge: Hezbollah reeling as Lebanese ponder sacrifices of its war." 3 March 2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mar/03/the-price-of-this-war-was-huge-hezbollah-left-reeling-after-conflict-with-israel>(검색일: 2025.3.25).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fers unanimous support to UNIFIL peacekeepers." 15 October 2024. <https://www.un.org/en/delegate/security-council-offers-unanimous-support-unifil-peacekeepers>(검색일: 2025.3.25).
- Wimmen, Heiko. "UNIFIL is Needed More than Ever to Keep the Peace in Southern Lebanon." Crisis Group. 22 August 2023. <https://www.crisisgroup.org/middle-east-north-africa/east-mediterranean-mena/lebanon/unifil-needed-more-ever-keep-peace-southern-lebanon>(검색일: 2025.3.23).
- Young, Michael. "Lebanon's Future in a Handful of Words." Diwan. 17 December 2024. <https://carnegieendowment.org/middle-east/diwan/2024/12/lebanons-future-in-a-handful-of-words?lang=en&center=middle-east>(검색일: 2025.3.23).

#### ■ 유엔 문서

- United Nations. S/RES/425(1978); S/RES/426(1978); S/RES/1559(2004); S/RES/1701(2006); S/RES/2749(2024).



# 유엔 작전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파병부대 교육 방안

前 UNIFIL 첩보수집과장 예.대령 김판영

Retired Colonel Kim, Pan-young



## 요약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일부 위험지역에서 무장세력, 테러리스트에 의해 유엔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하는 적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유엔임무단에서는 적대세력들이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해서 공격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에서 전개하는 군의 장비편제가 미흡하고 훈련수준이 낮은 상태로 임무단에 전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재 임무단에 파병되는 국가 중 일부 국가는 보호/대응을 위한 편제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수준이 낮다. 유엔본부는 각국의 파병부대가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잘 훈련받은 부대들이 파병되도록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유엔본부에서 파병부대 첨단장비 보유 및 파병 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엔보병대대 교범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파병부대 파병 전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유엔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엔임무단의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유엔의 개혁 활동인 A4P를 분석하고, 유엔임무단 군사령부의 실질적인 임무수행 주체인 보병대대의 임무와 요구되는 능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군 파병부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우리군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파병부대를 위한 파병 전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보강과 교육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유엔이 지향하는 방향과 유엔임무단으로 전개하는 보병대대의 훈련에 대한 요구수준 등을 분석하여 향후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등 유엔임무단에 파병되는 한국군 파병 전 임무수행 역량 향상과 관련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ABSTRACT

The environment of the UN peacekeeping mission is changing. Hostilities targeting UN peacekeepers by militants and terrorists are increasing in some dangerous areas. At the U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outh Sudan, and Central Africa, hostile forces are attacking UN peacekeepers, causing many casualties.

The military's equipment of some member countries is insufficient, and the training level is low. Currently, some of the countries sent to the mission are lacking equipment for protection/response and have low training levels. The UN headquarter is paying attention to the troops from each country to have advanced equipment and well-trained units to be deployed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own defense capabilities and perform practical tasks. The UN headquarter focuses on the possession of advanced equipment for deployed units and pre-deployed training, and the UN Infantry Battalion instructors have also been revised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al changes. Accordingly, the training before deploying the ROK troops needs to be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UN mission that require change in the United Nations, analyze the A4P, a UN reform activity to reform it, and analyze the duties and required capabilities of the infantry battalions, which are the actual subjects of the UN mission's military comman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apabilities required of the ROK troops and the efforts of the Korean military to improve them. To effectively carry out pre-deployed training for deploying troops, I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 and educ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level of demands for the training of infantry battalions deployed as UN mission, I will examine the implications of improving the ability to carry out missions before deploying the ROK troops to UN missions such as the Dongmyeong Unit in Lebanon and the Hanbit Unit in South Sudan.



# 유엔 작전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파병부대 교육 방안

前 UNIFIL 첩보수집과장 예.대령 김판영

Retired Colonel Kim, Pan-young

## I. 서론

필자는 2년 동안의 국제평화활동센터 교훈처장(2018~19년)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보병대대 교범발간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였다. 또한 UNIFIL 임무단에서 정보처 첩보수집과장(2022년)으로 근무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교훈처장으로 근무 당시에 교육은 개인파병요원에 집중하였으며, 파병부대 교육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참모 혹은 정전감시단으로 개인별 파병을 가는 요원들에 대해서 국제법과 유엔에 대한 지식 등 교육을 심도 있게 했던 기억이 있다. 반면 부대파병으로 파병을 가는 요원들에 대해서 부대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대장 중심으로 특기별 교육에 집중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유엔의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대파병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엔임무단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이 이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유엔임무단에서는 적대세력들이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해서 공격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유엔본부는 각국의 파병부대가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잘 훈련받은 부대들이 파병되도록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유엔본부에서 파병부대 운영과 장비보유 및 파병 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엔보병대대 교범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파병부대 파병 전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는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 발간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여<sup>1)</sup> 변화되는 유엔 환경과 이에 대한 유엔의 노력과 파병부대에 대한 요구 능력 등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UNIFIL 임무단 첩보수집과장을 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유엔임무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경험하였다.

본지에서는 유엔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엔임무단의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유엔의 개혁 활동인 A4P를 분석하고, 유엔임무단 군사령부의 실질적인 임무 수행 주체인 보병대대의 임무와 요구되는 능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군 파병부대에 요구되는 능력과 이를 향상하기 위한 파병 전 교육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UN ITS(Integrated Training Service, 통합훈련처)

1) 유엔의 보병대대교범은 2020년 ITS(Integrated Training Service, 통합훈련처) 주관으로 새롭게 발간되었다. 이후 ITS는 2021년 2월부터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을 위한 군사전문가들을 선정하여 토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유엔 교범사업에 한국군이 참여한 사례는 없었으나 2021년 ITS는 한국 국방부로 군사전문가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PKO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참여하였다. 필자는 2년 동안의 국제평화활동센터 교훈처장(2018~19년)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범발간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였다. 2021년 2월부터 매달 이슈를 선정하고 토의와 의견을 교환하였고 소그룹별로는 매주 토의를 통해 그룹에 부여된 과제 토의와 세부 안을 작성해 나갔다.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모든 토의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8월 최종 초안을 작성하고 9월 우간다 엔테베의 지역지원센터(RSCE)에 군사전문가들이 모여서 2주간 대면회의를 하였으며, 이후 참고교범을 발간하였다.

## II. 최근 PKO 환경의 특징

### 1. 임무단 환경 변화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 일부 위험지역에서 무장세력, 테러리스트에 의해 유엔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하는 적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말리, 중앙아프리카,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 임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무단의 평화유지목적 임무의 실행은 점점 어렵게 되었다.

둘째, 일부 회원국에서 전개하는 군의 장비편제가 미흡하고 훈련수준이 낮은 상태로 임무단에 전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재 임무단에 파병되는 국가 중 일부 국가는 보호/대응을 위한 편제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수준이 낮다. 일부 파병부대의 훈련수준이 낮은 사실도 이러한 희생자 수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 저개발국가의 파병부대는 통신, 감시 및 기동장비 등 주요 장비의 편제 부족과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임무단에 전개된다.

셋째, 유엔 임무단에 파견된 각 국가 군사조직이 파병된 현장에서는 무장단체 및 테러단체에 의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무장단체와 정부군 사이의 교전 및 무장단체의 민간인 살상의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평화유지군은 효과적으로 민간인 보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등지에서 일어난 여러 인종살상에 대한 보고서에서 군이 좀 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유엔안보리는 평화유지활동의 무력사용 원칙으로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만을 강조하였다. 평화유지활동에서 최소한의 무력사용만을 강조하는 원칙은 군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임무 수행토록 만들었으며,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평화유지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된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이 보고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임무단 군사령관을 지낸 브라질 크루즈 중장의 보고서<sup>2)</sup>(Cruz 보고서)에서도 현장에서 군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무력사용을 포함한 보다 많은

2) Cruz 보고서 작성 목적은 “폭력 행위로 인한 평화유지군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기 위한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효과적인 권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유엔의 진단에 따르면 유엔 깃발은 더 이상 그 자체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많은 평화유지군 부대가 현대의 무력 충돌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기간 동안 유엔의 사망 원인은 “훈련, 장비 및 임무 이행의 결함”으로 지목된다. 보고서의 처방은 변화된 사고방식, 향상된 방호 능력, 대량 및 기계화 부대 사용, 그리고 강화된 책임성이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사망자와 심각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 특히 기지에 대한 매복과 공격을 줄이기 위한 18가지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https://theglobalobservatory.org/2018/02/cruz-report-peacekeeping-trilemma/>

책임과 권한을 준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들의 희생 중에 아동과 여성의 인권유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면 아동과 여성들의 보호를 위한 관심 증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엔안보리에서는 유엔평화유지임무단(UN Mission)의 위임 명령(Mandate)에 민간인 보호를 중요한 임무로 포함하고 있고,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군이 자기방어뿐 아니라 임무(위임명령) 수행을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유엔의 적극적 평화유지이행노력(A4P)

2017년 새롭게 취임한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2018년 3월 28일 유엔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안보리 고위급 논의에서 평화유지이행방안(A4P<sup>3)</sup>, Action for Peacekeeping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A4P는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계속해서 추진해 온 평화유지활동들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국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계획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임무단에 대한 전략적 평가, 유엔의 평화와 안보 활동 개선, 광범위한 행정조직과 관행의 개편, 개발협력분야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화유지이행방안은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기초로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 강화 등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구상되었다.

사무총장은 앞에서 언급한 유엔임무단에서의 환경변화, 무장세력들의 빈번한 유엔평화활동요원에 대한 공격 행위, 파병부대의 장비와 훈련 부족, 유엔파병부대 희생자 증가, 민간인 희생자 증가와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군의 역할 제한 등을 유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A4P는 유엔PKO 참여국가가 아래와 같은 분야에 관심과 책임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은 평화유지이행방안(A4P)을 통해 ①분쟁의 정치적 해결, ②여성, 평화와 안보, ③민간인 보호 임무 강화, ④평화유지요원의 안전강화, ⑤성과와 책임성 강화, ⑥평화구축과 지속적인 평화, ⑦파트너십 강화, ⑧규정준수 등 8개의 중점 분야에 개선을 추진 중이다.

3) Action for Peacekeeping (A4P), <https://peacekeeping.un.org/en/action-for-peacekeeping-a4p>



출처: UN DPO 홈페이지, <https://peacekeeping.un.org/en/department-of-peace-operations>

현재 유엔은 A4P 추진으로 회원국들에서 파병되는 부대들의 훈련수준을 높이고, 최신의 장비들로 편제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파병부대의 임무에 민간인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민간인 희생 상황이 발생 시에는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임무단에서 민간인 보호를 임무단 위임명령(Mandate)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은 임무단에서 평화유지요원들의 도덕성과 규율준수, 여성 평화유지군의 확대와 역할 증대, 삼각 파트너십을 통한 연합파병을 포함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되고 훈련된 부대의 파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유엔 임무단으로 전개하는 유엔보병대대 파병부대들이 임무수행에 적합한 최신 편제 장비를 보유하고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받아 부대 방호능력과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 3. 유엔 평화유지군의 운용개념 변화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에서 군의 운용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다소 수세적이고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토록 강제하던 방향에서 임무를 위해 특정 군부대를 투입하여 적극적인 공세 작전까지도 가능하도록 작전 개념을 변경하고 있다. 민간인에 위협이 되는 무장세력의 공격을 예방하는 행동과 함께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법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엔 평화유지임무단 중 유엔안보리에서 유엔헌장 7장(무력사용)에 기반을 둔 현장 임무단의 경우에는 민간인 보호 등 위임명령(Mandate)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이 두 가지 방어의 경우에 무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sup>4)</sup>

둘째, 주어진 위임명령(Mandate) 완수와 적극적인 작전을 위해서는 정보획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파병부대의 정보획득, 분석 및 운용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 정보(MPKI) 교범을 발간하였고, 정보수집부대의 운영개념인 PK-ISR<sup>5)</sup> 참고교범을 새롭게 발간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정보 수집과 운용은 보병대대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자산과 운용개념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UNIFIL 임무단의 경우 항공 정찰을 위한 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포탄 탐지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정보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정찰용 드론을 획득하기 위해 유엔 본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셋째, 유엔평화유지군은 현장에서 민간인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무단에서 군이 민간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민간인들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변화되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보병대대는 실질적인 정보획득을 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보획득의 한 방법으로 보병대대 전투원들이 직접적인 정찰과 순찰 등 작전활동

4) 유엔헌장 7장에는 지역안전을 위해 무력사용이 가능하게 기술되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헌장 7장(무력사용)을 적용한 PKO Mission은 무장단체들의 공격성향이 강하고 유엔군이 공세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임무단이다. 아프리카 중 가장 불안정하고 무장단체의 공격이 빈번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임무단의 군 위임명령(Mandate)에 군이 임무 수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콩고 유엔평화유지임무단(MONUSCO) : <https://monusco.unmissions.org/en/mandate>

5) PK-ISR(Peacekeeping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평화유지 정보, 정찰, 감시) 평화유지활동간 정보획득, 정찰 및 감시를 위한 정보부대들의 책임, 운용 등에 관한 교범 발간을 추진 중이다.

을 통해 첩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촉소대<sup>6)</sup>(Engagement Platoon, EP, 우리군의 민사작전부대와 유사) 개념이 발전되었다.

현재 유엔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여성과 아동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운용개념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이들 접촉소대(Engagement Platoon, EP) 개념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미군과 캐나다군 등이 운용한 개념이다.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무슬림 지역에서 남성 전투원들이 여성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인 여성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군들로 소규모 인원들을 편성하여, 경찰과 순찰 간에 보병부대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개념을 교리화해서 현재 접촉소대(Engagement Platoon, EP) 핸드북을 만들고 있고, 유엔보병대대 교범에도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참고교범에서는 접촉소대를 편성하여 민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론을 정립하였다.

### III. 유엔보병대대 임무와 요구 능력

#### 1. 부대방호 및 민간인 보호에 중점

유엔보병대대의 임무와 요구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 발간된 유엔보병대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롭게 개편된 유엔보병대대 교범은 유엔파병부대의 희생을 감소하기 위한 자체 부대방호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인 보호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위임명령(Mandate)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세적 작전까지도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유엔보병대대 교범은 경찰, 감시초소 운용, 기지 방어, 호송 등 방어적인 작전 운용개념에 집중하였고, 최소한의 무력사용에 중점을 두고 기술되어 있다. 반면 새롭게 발간된 유엔보병대대 교범에는 포위 및 수색(Cordon & Search), 공세적 작전(Conduct Offensive Operations) 등 공세적인 개념까지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세부

6) 접촉소대(Engagement Platoon, EP) : 여성의 비율이 50%이상으로 편성된 소대규모의 부대로 4-5명이 한 팀이 되어 보병대대의 중대에 배속되어 여성과 아동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민사작전임무를 수행한다. 미군과 캐나다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운용한 개념으로 우리의 민사작전부대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가나 등 PKO 참여국가중에는 이미 편제화한 경우도 있다.

적인 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방호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위협의 정의, 위기관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임무수행 단계별로 주의사항과 계획수립 및 실시 간 중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현장 임무단에서 희생자들은 적대세력들의 직·간접 사격뿐만 아니라 지뢰 및 급조폭발물(IED)에 의한 피해가 많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둘째, 민간인 보호를 위한 임무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무력의 사용, 민간인의 정의, 인권과 인도주의 보호, 취약계층(특히 아동과 여성), 분쟁 관련 성폭력, 성폭력 및 착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간인 보호에 대한 주된 논의가 시작된 키갈리 원칙(Kigali Principles, 2015)과 임무단 지역의 민간단체인 유엔 산하 기관들과 NGO, 비영리 기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이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부대방호와 민간인 보호 등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장비를 보유하고 효과적인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보병대대의 표준편성 안을 제시하며 적정 인원, 장비에 대한 보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과업 및 조건 기준을 제시하여 대대장 및 참모, 제대의 과업과 수행능력에 대한 기준을 도표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 2. 적극적인 정보활동 강조 : MPKI, PKISR

유엔임무단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직접사격 및 급조폭발물을 활용한 공격 등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위한 적시 적절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유엔임무단에서 군의 임무 수행 간 중립성과 무력사용의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군사정보<sup>7)</sup>(Intelligence)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용어인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군사적인 작전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유엔에서도 군사정보인 Intelligence에 대한 용어 사용과 운용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대방호와 민간인 보호 임무수행을 위해서 보병대대는 부대와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획득이 필요하다. 유엔 임무단에서 군의 정보획득 자산이 부족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임

7) 군사정보의 개념과 함께 단순한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정보수집체계/장비 도입, 분석가 활용, JMAC(합동임무분석센터) 강화 등이 강조됨을 의미함.

무단의 관계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임무단에서 정보 유통의 중심에는 합동임무분석센터(JMAC<sup>8)</sup>)가 있으며, 군은 임무단에서 군, 경찰, 민간 조직 중 부분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군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계획, 수집, 생산, 유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평화유지군으로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수집했던 군이 이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조직을 구성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 유통하고자 하고 있다.

UNIFIL 임무단에서도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탈리아군의 헬기를 첩보수집 목적으로 항공정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사령부 정보처가 예하대대와 여단과 함께 항공정찰을 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촬영을 위한 전문요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대대인 프랑스 대대에는 포탄 탐지레이더를 운용하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의 박격포와 포탄 공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군사령부 정보처에서는 주기적인 협조회의를 통해 예하대대에서의 정보획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획득의 중요성은 보병대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한된 자산으로 최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보병대대도 자체 첩보수집자산(소규모 드론, UAV 등)을 보유하고자 하며, 전투병으로서 첩보수집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탈리아군 헬기(정찰 목적)



프랑스군 (포탄) 탐지레이더

8) JMAC(Joint Mission Analysis Centres, 합동임무분석센터) : 임무단에서 전략적 혹은 작전술적 수준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UNIFIL의 경우 군사령부에 정보처가 있고 JMAC은 임무단 직할로 편제되어 있다. 군사령부 정보처는 여단과 대대에서 항공정찰이나 첩보수집 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종합/분석하여 일일 및 주간 정보보고를 작성하고 전파한다. 정보처는 군인들로만 구성되고 군사 정보 위주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생산한다. 반면 JMAC은 민간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일부 협조를 위한 군인들이 보직됨) 신문이나 인터넷, 민간인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정보를 생산/전파한다. UNIFIL의 경우 JMAC와 정보처는 협조관계이며, 매일 아침 협조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UNIFIL 사령부 정보관계관 회의 (MIO meeting)

Employment of Class I UAS

- Operations within 8 Km from an airfield or heliport are restricted
- Maximum altitude 400 feet above ground level
- Visual Line of Sight (VLOS) operations only
- Night operations coordination with Mission's Aviation Section
- Not flown close to other aircraft



향후 드론 확보 및 운용 추진

<그림 3> UNIFIL 임무단 - 정보·정찰·감시 (PKISR)

출처: 레바논 유엔평화유지임무단(UNIFIL) 홈페이지, <https://peacekeeping.un.org/en>

### 3. 현지 민간인과 접촉 활성화 : EP(접촉 소대, 민사작전소대)

유엔 임무단에서 부대방호와 민간인 보호 등 임무수행을 위해 정보획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전술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보병대대에 실질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은 현지인과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과 여성 등 민간인들은 군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혹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제한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미군과 캐나다군 등은 여군들로 이루어진 접촉 부대(EP<sup>9)</sup>)를 편성하여 운용하였는데 이들은 보병 전투부대들의 정찰 및 순찰 간 함께 편성되어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

9) EP (Engagement Platoon) :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이며 여군 위주로 구성되어있음. 우리의 민사작전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유엔임무단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접촉(민사)소대(EP)는 보병대대에 4-5명이 한 개 팀을 이루며, 약 4-5개 팀으로 구성된 소대 규모로 편성한다. 각 팀은 중대에 배속되어 중대의 정찰 및 순찰 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접촉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EP 핸드북이 발간되었으며, 보병대대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 토의 및 정립 단계에 있다. 민사(접촉)소대의 요구 능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만 부대의 절반 이상을 여군으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이나 일부 무슬림 국가 등에서는 보병부대에 여군이 한 명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문화의 차이와 숙영시설의 제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여군을 편성하기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EP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성들로 구성된 부대를 운영하여 민사작전을 실시하는 국가들도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과 말리 등에서 여군들로 구성된 EP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접촉 소대(EP)

출처: UNIBAT(유엔보병대대), Chapter 3, 3.6 Engagement Platoon

우리 군도 민사(S-9, CIMIC)부서에 편성된 일부 여군들을 활용하여 민가 지역 순찰 간 활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 군도 유엔에서 요구하는 여군 확대 정책과 전장에서 민간인들과 의사소통 등 효과적인 접촉을 위해 여군들의 파병 및 임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에서 의사소통과 정보획득에 필요한 기술과 기법을 익히고 자격조건 등을 세분화 발전시키고 전문 인력 풀을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해외파병부대 파병 전 교육에 대한 발전적 제언

### 1. 유엔파병부대에 요구되는 능력

무장세력, 테러리스트에 의해 유엔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하는 적대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파병부대의 희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국에서 전개하는 군의 장비편제가 미흡하고 훈련수준이 낮은 상태로 임무단에 전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저개발국가의 파병부대는 통신, 감시 및 기동장비 등 주요 장비의 편제 부족과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현지에 파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유엔 본부에서는 파병부대들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복잡한 분쟁 환경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회원국 군사조직에 요구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장비를 갖추고 잘 훈련된 파병부대를 요구한다. 일부 국가의 소총위주의 보병부대나 군기가 부족하고 훈련이 되지 않은 부대들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훈련되지 않은 부대원들이 민간인 대상의 성적 학대문제를 일으켜 임무단 전체의 도덕적 정당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소총위주의 보병부대는 적대세력의 공격에 취약하고 파병요원들의 희생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 본부에서는 헬기, 정찰 장비 등 첨단 장비를 보유한 부대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임무단 전개지역 분쟁국가 치안조직에 대한 훈련 지원이 가능한 부대이다. 유엔은 임무단 주재국의 군이 능력을 향상하여 자체적으로 위협 대응능력 및 분쟁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파병부대들이 장비와 전투기술을 보유하여 파병 대상국의 부대들을 훈련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레바논 UNIFIL 임무단의 경우 Mandate(위임명령)에 임무지역의 부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지원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UNIFIL은 파병부

대들의 훈련 향상을 위해 사격 경연대회를 실시한다. 또한 UNIFIL 예하 부대들은 레바논군과 합동훈련을 통해 사격 기술과 장비 정비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동명부대도 지역의 레바논군에게 태권도와 사격 기술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레바논군 현대화를 위해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다양한 조직/단체, 주민들과 협력을 위해 여군 파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파병되는 부대들은 유엔 본부에서 추진하는 여군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부대에서 여군의 비율은 저조한 상태이다. 여군의 역할도 행정, 의료 등의 업무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유엔 임무단에서는 다양한 협의체들의 여성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군의 편성을 희망하고 있다. 민사작전의 일환으로 지역 여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여군의 활용에 대해서 요구한다. UNIFIL 임무단에서도 여군으로 이루어진 부대의 민간인들과 접촉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탈리아군 헬기(정찰, 수송 목적)



캄보디아군 지뢰제거 장비 및 활동



프랑스군 (포탄) 탐지레이더



한국군(동명부대) 폭발물 제거 로봇



UNIFIL 해상임무단 레바논군과 합동훈련

UNIFIL과 레바논군 합동정찰(Blue Line지역)

〈그림 5〉 UNIFIL 임무단 - 첨단장비 및 임무단내 주재국 역량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

출처: 레바논 유엔평화유지임무단(UNIFIL) 홈페이지, <https://peacekeeping.un.org/en>

## 2. 한국군 파병부대에 요구되는 역량

유엔 임무단에서는 첨단장비를 보유한, 잘 훈련된 부대가 전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엔 임무단에서 한국군의 위상은 엄정한 군기와 최신 장비를 보유한 부대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부대가 한 단계 능력을 격상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평화유지요원 개개인은 잘 훈련되어 있지만, 유엔이 주도하는 분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특히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은 임무단의 지휘부와 다른 국가의 파병부대 지휘부와 잦은 회의, 토의와 합동작전 능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엔 관련 국제법, 규정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실상은 한계가 있다.

### 가. 파병 부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파병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은 파병 교육 전(2주 전)에 선발되어 사전 교육을 한다. 그리고 2주 후 본대가 소집되어 파병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 장병들을 교육한다. 이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파병을 위해 선발된 장교, 부사관 및 병사들이 소집되고, 모두가 생소하고 처음인 상황에서 파병 교육을 시작한다. 지휘관 및 주요 참모들은 2주간의 PKO센터 교수들이 교육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이후 참모들이 각자 예전 자료를 찾아서 예산, 보급품, 교육 소요 등을 찾

아가야 한다. 더욱이 지휘관은 사전 교육 2주간에 육군본부, 합참 등에 보고를 해야 하고, 참모들은 보급품 수령 및 분배, 예산, 협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하며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다.

파병교육을 하고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전 자료를 보관하고 전달해 주는 정도의 기능은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국평단은 파병부대 자료 보존과 파병 전 교육 간 부대 편성과 전투근무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노하우 전파는 제한된다. 더욱이 한빛부대(공병 분야), 아크부대(국방협력) 교육 시에는 교육 지원이 더욱 미흡하다.

파병부대 역량 강화를 위해 파병 교육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 파병 부대의 창설, 교육과 현지 임무수행, 결과 및 교훈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KO센터에 조직을 확대하여 부대파병 교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PKO센터는 파병부대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에게 2주간 사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병부대가 철수 후에는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이 PKO센터에서 1주일간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에서 복무성과를 발표한다. PKO센터에서 귀국보고서, 결과분석과 함께 파병부대가 창설형 교육을 할 때 교육 가이드와 노하우 등을 공유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나. 파병 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교육 여건 강화

사전 소집된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이 유엔에 관련된 국제법과 규정, 작전환경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지휘관은 상급부대 보고에 집중하고 참모들은 각종 부대 창설에 따른 행정업무에 집중하며 사전 교육에 열외하거나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독립된 공간에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대 소집 전 한달 전이나 부대원들이 소집되기 이전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각종 보고와 행정업무와 무관하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PKO센터를 파병 부대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한다면 파병 전 훈련 간에 지휘관과 참모들이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보병부대(동명부대) 파병 전 교육에서 파병 부대원 주

특기 교육 간에 참모들은 개인 파병자들이 교육받는 참모장교과정(UNSOC)을 교육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주요 참모들이 유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다. 여군의 PKO 참여 확대 지원

유엔 본부는 임무단에서 여군의 역할 확대를 희망한다. 유엔 임무단에서 정보수집, 지역 주민 및 단체와 원활한 소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유엔 본부의 노력으로 여군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여군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역할의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군도 해외파병에 여군의 수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역할과 임무, 직책에 대한 정립과 여군 운용 개념도 발전시켜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여군 위주의 접촉소대(Engagement Platoon, EP) 활용에 대한 개념은 정립되었으나 구체적 교류 활동을 위한 기술/기법을 개발하고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접촉소대 여군들이 현지 주민에게 교육, 홍보, 성관련 문제 해결 등 역할을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형 민사작전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 3.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 역량 강화

파병부대 교육을 강화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PKO센터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PKO센터는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능력 있는 교수(교관)진들이 편성되어 있는 국제적인 교육 기관이다. 이러한 우수한 능력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가. 국방부 차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PKO센터 교수(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육 환경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PKO센터 교수(교관)들은 해외 세미나/교육 참여 등 국제적인 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 학생측면에서는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한국군 위주 교육생으로 편성하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제한되고 국제적인 교육 환경 구성이 제한된다.

현재 PKO센터는 국방부 차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TOT(교관교육), 여성장교 역량강

화과정(VWPT) 등 여러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5년 기간이라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에 센터 교수(교관)들이 교수 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국 교관들과 함께 교수진으로 편성되어 교수(교관)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최신의 교리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나. 개도국 훈련지원으로 아시아 지역을 선도하는 PKO 교육 센터를 지향

현재 PKO센터는 유엔에서 인증받은 참모장교과정(UNSOC)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 베트남, 캄보디아 외국군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호주, 스웨덴, 핀란드,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교관을 초빙하여 합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 교수(교관)들과 함께 교육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수(교관)들도 태국에 교육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교수(교관) 상호 교환 프로그램은 교수 개인 역량 확대와 함께 센터의 권위도 향상시키고 있다.

센터의 참모장교과정에 참석한 베트남, 캄보디아 외국군 장교들은 교육에 만족하였고, 현재는 많은 장교들이 우리 참모장교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호의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이 국제적인 환경으로 변화하며 한국군 파병장교들의 교육 여건도 국제적인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 과정에 참여한 한국군은 외국군 학생장교와 토의하고 훈련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영어가 생활화되고 있다. 외국군 교관들은 대부분 유엔 파병 경험이 많아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생장교들은 다양한 실전 경험이 있는 외국군 교관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양한 학생과 교관들이 함께 토의하고 교육하면서 센터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교육훈련을 지원하면서 아시아 PKO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 V. 결론

유엔은 임무단에 전개되는 파병부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파병부대들의 장비를 최신화 하고, 훈련상태를 높이고,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군도 유엔 임무단 환경의 변화와 유엔본부의 지침 변화에 맞추어, 임무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훈련,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환경과 기준을 고려하여 파병을 준비하는 것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유엔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부합한 파병 준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파병부대의 훈련을 전담하는 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 아울러 EP, 정보자산을 포함한 정보 수집, 분석, 전파 등의 능력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파병부대 훈련 강화를 위해서 PKO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부대파병교육을 위해 PKO센터에 전담기구를 확대 편성하여 파병부대의 노하우와 기술이 잘 전수되고, 교육·파병·복귀 후 교훈분석 등 전반적인 파병부대 교육이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모장교과정, 읍저버과정 등 개인파병교육을 위한 과정들이 국제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군 교관(교수)과 외국군 학생장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PKO센터 교수(교관)들이 외국 PKO센터와 교류하고 교육, 토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국방부, 외교부 차원의 한국군 파병정책 수립 및 국가 지위에 상응한 파병규모,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유엔 보병대대 참고교범 발간 전문가그룹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러 임무단의 독특한 환경과 아프리카, 중동, 서아시아, 남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유엔 임무단을 바라보는 방향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각 국가를 대표하여 참석한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국가별 제한사항과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레바논 임무단(UNIFIL)에서 첩보수집과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군 파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해 본다.

## 참고문헌

### ■ UN Materials, 유엔 교범

- UN CPTM, The 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https://peacekeepingresourcehub.un.org/en/training/pre-deployment/cptm/intro>  
UNIBAT, United Nations Infantry Battalion Manual, 2020

### ■ Specialised Training Materials, 유엔 특별훈련교범

- STM for UN Infantry Battalions;  
<https://peacekeepingresourcehub.un.org/en/training/stm/battalions>
- STM for UN Military Staff Officers;  
<https://peacekeepingresourcehub.un.org/en/training/stm/unso>

### ■ 관련 자료

- DPO(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https://peacekeeping.un.org/en/department-of-peace-operations>
- Action for Peacekeeping (A4P):  
<https://peacekeeping.un.org/en/action-for-peacekeeping-a4p>

### ■ 논평(기사)

- Paul D. Williams, “Cruz Report: The Politics of Force and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rilemma”, 2018.  
<https://theglobalobservatory.org/2018/02/cruz-report-peacekeeping-trilemma/>
- Daniel Forti, “Action for Peacekeeping Plus (A4P+): An Update on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after Two Years”, 2023.  
<https://reliefweb.int/report/world/action-peacekeeping-plus-a4p-update-monitoring-and-implementation-after-two-years>





## 남수단에서의 유엔 평화활동의 도전과 응전

- UNMISS\*, 동부사령부의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

Challenges and Responses in  
UN Peace Operations in South Sudan:  
Focusing on the Military Activities in Sector East, UNMISS

육군중령 김세하\*\*

LTC Kim, Se-ha

---

\*) UNMISS(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는 남수단에서 유엔의 평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임무단이다. 이하 UNMISS로 지칭한다.

\*\*) UNMISS, 동부사령부 참모장 역임('23.11월~'24.12월)



## 요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UNMISS의 평화활동을 군사적 관점으로 국한하여 소개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경험이 전무한 대한민국 국군에 유엔 임무단이 어떠한 작전활동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필자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UNMISS, 동부사령부의 참모장으로 14개월간 임무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필자가 근무했던 동부사령부를 중심으로 유엔임무단이 어떠한 위임명령을 부여받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실제 작전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들을 공유하였다. 특히, 군사작전을 시행하면서 어떠한 도전들이 상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UNMISS가 겪고 있는 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끊이지 않는 종족 간의 분쟁은 남수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기후변화 그리고 제한된 기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작전적 제약이 크다. 셋째, 평화활동간 유엔을 대상으로 적대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유엔군의 작전 활동을 위축시킨다. 넷째, 이동의 자유(FOM: Freedom of Movement)가 거부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여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섯째, 넘쳐나는 오정보(Misinformation)와 역정보(Disinformation)로 인해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응전으로는 첫째, 임시작전기지(TOB: Temporary Operational Base) 설치를 통해 작전반경과 UN의 능력을 확장하고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수송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정보획득을 위해 지역의 리더십과 소통(KLE: Key Leadership Engagement)을 강화하고, 드론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the Peace Op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UNMISS) from a military perspective, with a particular focus on operations in the African reg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al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UNMISS, especially for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which has no prior experience deploying combat units in Africa.

The author has been serving as the Chief of Staff at Sector East Headquarters of the UNMISS for about 14 months from Nov 2023 to Dec 2024. This study focuses on Sector East detailing the mandate given to the UNMISS and the methodologies employed in carrying out its military operations. The author shares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gained during practical operations in that field, highlighting the persistent challenges encountered during military operations and offering several suggestions of how these challenges are overcome.

The challenges faced by UNMISS in South Sudan are as follows: First, ongoing ethnic conflicts have become entrenched as a chronic issue. Second, operational constraints stemming from weather conditions, climate change and limited infrastructure are significant. Third, there has been a continuous hostility toward the UN during peacekeeping operations. Fourth, freedom of movement (FOM) is often denied leading to operational constraints. Fifth, the abundance of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negatively impacts operations.

Effort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include: First, expanding the operational range and enhancing the UN's presence and intelligence-gathering capabilities by establishing Temporary Operational Bases (TOB). Second, making active use of diverse transportation methods. Thir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local leadership through Key Leadership Engagement (KLE) to acquire information and considering the use of drones for intelligence purposes.



# 남수단에서의 유엔 평화활동의 도전과 응전

## - UNMISS, 동부사령부의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

### Challenges and Responses in UN Peace Operations in South Sudan:

Focusing on the Military Activities in Sector East, UNMISS

육군중령 김세하

LTC Kim, Se-ha

## I. 개요

2011년 7월, 독립 이후 수단이라는 공공의 적을 잃은 남수단은 내부 종족 간의 갈등으로 폭력이 표출되고 있다. 남수단의 내전은 정부의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권력투쟁에서 발단이 되었다. 최초 대통령직을 맡은 살바 키르(Salva Kiir) 현(現)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과 대통령 권력투쟁에서 해임을 당했던 부통령 리엑 마차르(Riek Machar)가 반대파를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시작하며, 그 골은 더욱 깊어졌다.

기나긴 분쟁은 2018년 9월 신 평화협정(R-ARCSS: Revitalized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을 기점으로 잦아드는 듯 보였다. 신평화 협정을 통해 합의된 과도정부의 기간(2018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을 24개월 연장하여 2025년 2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23년 전반기에 예정되었던 대선을 2024년 12월로 재차 연기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2024년 8월까지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살바 키르 대통령의 의지는 24년 9월 재차 무산되었다. 남수단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과 선거 준비상황, 예산 부족 등의 핑계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2년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번까지 총 4번의 공식적인 선거 연장이다. 유엔과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케나다 등의 서방국과 IGAD(The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AU(African Union) 등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과거 발생했던 종족 간의 권력 쟁탈을 위한 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선거 연장이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까지 남수단 최초 대통령 선거는 2026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다.

2011년 남수단의 독립과 동시에 기존 수단에서 유엔 평화활동을 진행하던 UNMIS(United Nations Mission in Sudan)의 시대도 함께 막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유엔결의안 1996호에 따라 UNMISS(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가 남수단에 창설되었다. 현재 UNMISS는 2024년 4월 유엔 결의안 2729호에 의해 임무가 연장되어 지금까지 위임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수단의 독립과 동시에 창설된 UNMISS의 다양한 평화활동에서 군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작전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행되는 다차원 임무(Multidimensional Mission)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 아프리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사작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행되는 평화활동에 전투부대를 투입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 효과적으로 위임명령을 이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수단의 작전환경을 한반도와 비교해보면 기상, 기반시설, 생태계, 분쟁의 성격, 안보상황, 문화, 종교, 인종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상존한다. 필자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UNMISS 예하 동부사령부에서 참모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수단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평화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겪었던 다양한 작전활동과 시행착오들을 현장의 1차 자료들을 활용하여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UNMISS의 위임명령과 남수단의 작전환경, 그리고 필자가 근무했던 동부사령부에 대해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UNMISS의 작전활동간 발생하는 도전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UNMISS의 응전들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제언하며 마무리하였다.

## II. UNMISS의 위임명령과 동부사의 작전환경

UNMISS는 2011년 다차원 임무단으로 창설되어 군, 경찰, 유엔 민간직원을 포함하여 1만 8천여 명의 다양한 행위자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유엔결의안 2729호에 의거 1년간 위임명령이 연장되었고,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UNMISS는 유엔헌장 7장을 기반으로, 위임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use all necessary means)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UNMISS가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임명령은 아래 <표 1>과 같이 크게 4개의 골자로 구성된다.

<표 1> UNMISS 위임명령(2024)

- 민간인 보호
-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건조성
- 신 평화협정과 평화 프로세스 합의 이행과정 지원
- 인도주의법 위반사례에 대한 감시, 조사, 보고

출처: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29, S/RES/2729 (2024)을 정리.

유엔의 위임명령을 군사작전으로 지원하기 위해 UNMISS의 군사령관(FC: Force Commander)은 작전계획(Operational Order)에서 사무총장 특별대표(SRSG: Special Representative Secretary General)의 비전과 군사령관의 작전목적, 작전방법, 최종상태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 〈표 2〉 UNMISS 군사 작전계획

### 〈사무총장 특별대표(SRSG) 비전〉

- 신 평화협정에 대한 양질의 이행 지원
- 정치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과 안보/치안의 안정 확보
- 평화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풀뿌리 시민 정치참여 강화
- 사법기관 지원과 책임 강화, 접근성 증대
- 분쟁 당사자들의 정치 담화 촉진을 위한 국제 파트너와의 응집력, 전략 파트너십 강화

### 〈군사령관 작전목적〉

- UNMISS의 군은 UNMISS의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의 노력을 통해 통합된 작전을 시행함으로써 위 임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방패막이(protective shield)를 제공한다.

### 〈작전방법〉

- 여단급에서 시행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페트롤 및 전술적 전개 등의 작전활동을 통해 작전지역을 장악하여 민간인을 보호
- 대대급의 조기경보(early warning) 능력을 강화
- 적극적인 경호작전 제공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 보장
- 지속 분쟁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적 전개와 지역 주요 인사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분쟁 예방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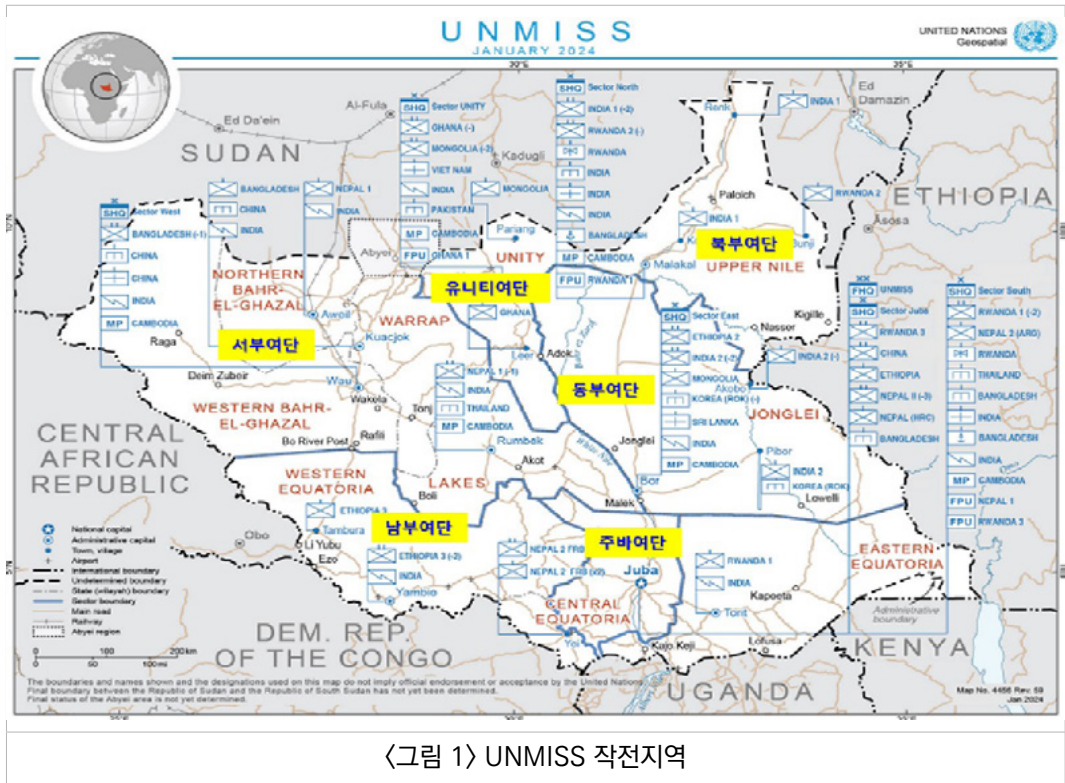
### 〈최종상태〉

- 작전지역 내 군의 적극적 현시를 통해 내부 분쟁이 현격히 감소 되어야 하며, 국가 전체에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민간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보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어, 2024년 12월 계획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sup>1)</sup>

출처: UNMISS, Operational Order.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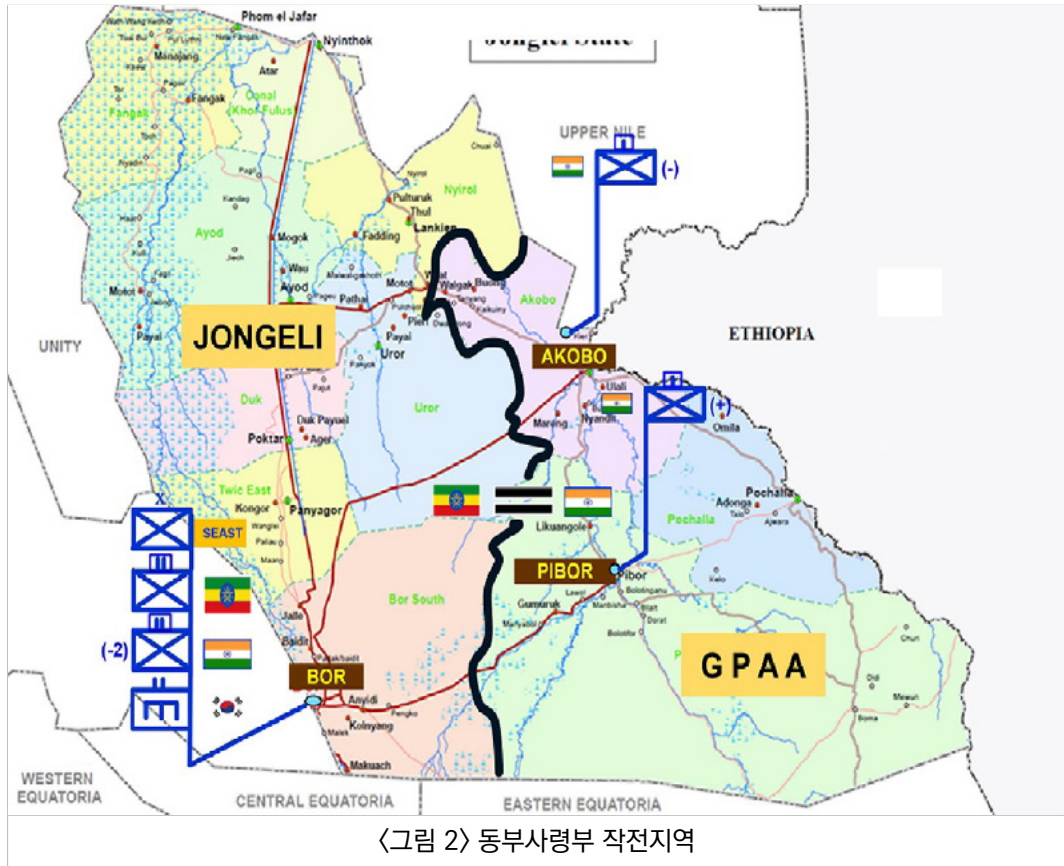
UNMISS의 작전지역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남수단 국가의 전(全) 국토를 책임지역으로 한다. 남수단은 10개의 주와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여단급 사령부가 책임지역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UNMISS의 사령부는 수도, 주바에 위치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 참고한 UNMISS의 군사 작전계획은 선거가 미뤄지기 전인 2023년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선거 기간이 2024년 12월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선거는 26년 12월 치러질 예정이다.



출처: <https://www.un.org/geospatial/content/unmiss-deployment-january-2024>.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동부사령부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남수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글레이주(主)와 1개의 행정자치구역인 GPAA(Great Pibor Administrative Area)를 작전책임지역(AOR: Area of Responsibility)으로 담당하고 있다. 6개의 여단급 사령부 중 가장 광범위한 책임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부사령부 예하에는 인도와 에티오피아에서 파병된 2개의 보병대대와 스리랑카 의무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파병된 공병(한빛)부대가 편제되어 있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 대대와 에티오피아 대대가 동과 서로 동부여단의 작전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특히 인도 대대는 피보르(Pibor)와 아코보(Akobo) 지역에 설치된 임시작전기지(TOB: Temporary Operation Base)에 예하 부대를 파견하여 위임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출처: 동부사령부 회의자료 (현지 1차 자료).

동부사령부에서 주로 시행하는 작전의 형태는 크게 민간인 보호(POC: Protection of Protection)를 위한 다양한 패트롤과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을 포함한 UN 관련 기구 및 NGO 등의 식량 운반 및 군수지원을 위한 경호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패트롤의 경우 아래 〈그림 3〉과 같이 단거리 패트롤(SDP: Short Distance Patrol), 장거리 패트롤(LDP: Long Distance Patrol), 공중 패트롤(DAP: Dynamic Air Patrol)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동거리, 소요시간, 지형, 도로상태, 접근성, 가용자산, 작전의 성격, 안보상황, 치안수준 등을 고려하여 작전의 형태를 결정한다.



출처: 동부사령부 회의자료 (현지 1차 자료).

경호작전의 경우 취약한 식량안보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교통로를 활용하여 주로 건기에 집중하여 시행한다. 특히 남수단을 흐르는 백나일강은 UNMISS의 군수지원을 위한 주요한 보급로로, 원활한 보급작전을 위해 해상과 지상에서 경호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 III. 평화활동간 직면한 도전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수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작전환경을 제공한다. 한 국가에 다양한 종족이 모여 살고, 끊임없이 보복(revenge) 분쟁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의 영향이 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도로, 배수, 강둑, 헬기장 등의 기반 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배가 되고, 작전을 실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량 부족, 난민의 유입, 여성과 아동의 납치, 성범죄 등의 생활범죄 또한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유엔과 NGO 등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매복공격이 따르기 때문에 유엔은 늘 위협에 노출된 환경에서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본 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①종족 간 분쟁, ②기상 및 기후변화, ③유엔 대상 공격, ④ 이동의 자유 거부, ⑤ 오역정보의 과다 등 다섯 가지 유형의 도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도전 #1. 종족 간 분쟁

남수단에는 공식적으로 64개의 종족이, 비공식적으로는 200개 이상의 종족이 분포해 있다. 이 중 동부사령부 작전지역인 종글레이주(州)와 GPAA주(州)에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6개의 주요 종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과도정부의 대통령직을 장기 집권하고 있는 살바 키르(Salva Kir)가 속한 종족이면서 남수단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덩카(Dinka) 족이 34.7%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한다. 덩카는 정부군인 SSPDF(South Sudan People's Defence Force)가 속한 종족이기도 하다. 반면, 반정부 군(SPLM-IO: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in Opposition)의 수장이면서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리엑 마차르(Riek Machar)가 속한 뉴에르(Nuer) 족이 49.5%로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그 외 물레(Mule) 족이 10%, 아유크(Ayuke), 지에(Jie), 카치포(Kachipo) 족이 합쳐서 5.8%를 차지한다.



<그림 4> 종글레이와 GPAA의 종족 분포

출처: 동부사령부 회의자료 (현지 1차 자료).

종족 간의 분쟁은 영국의 식민통치와 수단과의 전쟁에서 기인한 산물이다(김동석, 2016).<sup>2)</sup> 영국은 지금의 남수단 지역을 분리해서 식민통치했고, 종족 지도자에게 권력을 부여하여 주민을 지배하는 통치방식을 채택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수단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러 종족이 단일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덩카 족은 영국에 순응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뉴에르 족은 폭력적으로 저항하며, 이들 종족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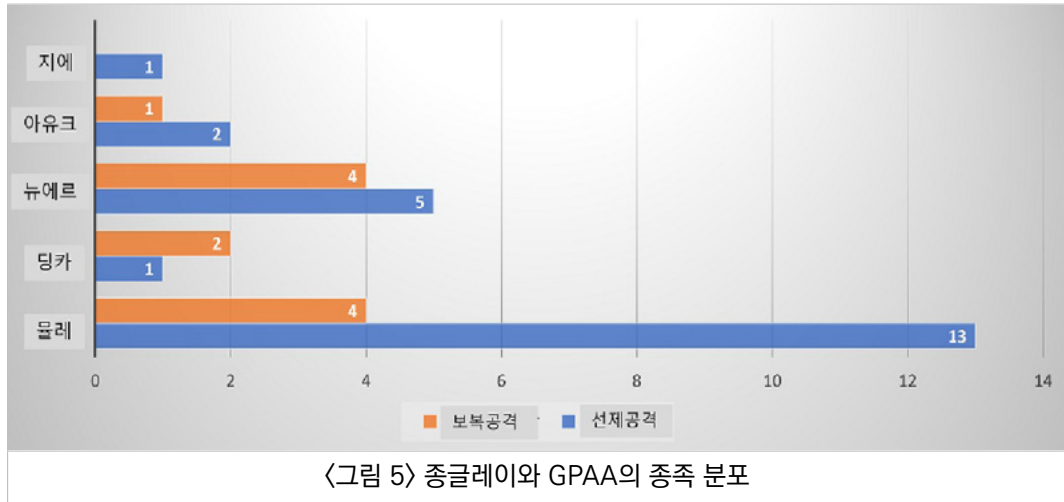
이렇듯 남수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족 간의 분쟁은 역사적으로 남수단 독립 전에 발생한 내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족 간의 분쟁은 2005년 1월에 합의한 포괄평화협정(CPA: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이후 상황이 호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일부로 정부에 의해 무장해제가 시도되었고,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으로 무장해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예컨대 2006년, SSPDF의 전신인 수단 인민해방군(SPLA: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이 덩카족과 뉴에르족의 분쟁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뉴에르족의 무기를 회수하던 중 200여 명의 군인과 6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분쟁을 이어갔던 덩카 주도의 SSPDF와 뉴에르 주도의 SPLO-IO의 군사분쟁은 2018년 평화협정 이후 잦아들었다. 다행히 정부군과 반정부군과의 군사 충돌은 잦아들었지만, 그에 반해 청년 갱들에 의한 가축 절도와 납치, 매복공격 등 종족 간 분쟁이 다른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주로 발생하는 종족 간의 분쟁은 각 종족의 청년 갱(Armed Youth)들을 중심으로 가축을 약탈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남수단은 전 세계에서 목축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목축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가축을 소유한 정도가 부유함을 나타내는 사회의 척도이기도 하다. 실례로, 혼례를 할 때 신랑이 신부의 미모나 신장 등을 고려하여 가축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여전히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족 간의 분쟁에 참여함으로써 종족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남수단의 군사화된 문화 또한 분쟁을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있다. 특히 덩카족과 뉴에르족에 대한 물레의 공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물레족과 아유크, 물레족과 동부사령부 작전지역 남쪽에 거주하는 토포사 간에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2) 주요 국제문제분석, 남수단 내전의 분석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2. 5, No. 2015-49, pp. 5

아래 <그림 5>는 지난 13년간 종글레이주와 GPAA주에서 종족 간의 분쟁이 어떤 종족에 의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준다. 물레족에 의해 발생한 분쟁이 13건으로 다른 종족에 의한 공격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뒤로 뉴에르족이 5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물레의 공격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 주를 이룬다. 그 외 물레와 아유크 간의 분쟁, 그리고 물레와 토포사 간에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특성은 또 다른 보복 공격으로 이어지며,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출처: 동부사령부 회의자료 (현지 1차 자료)

종족 간의 분쟁으로 인한 치안의 약화, 안보 공백, 국가에 대한 불신은 국가의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평화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26년 12월 계획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며 발생할 수 있는 SSPDF와 SPLO-IO의 군사충돌 재발을 간과할 수 없다. 지속적인 평화 대화와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 준비 및 시행, 평화협정의 올바른 이행 등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여 이러한 종족 간의 대규모 내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도전 #2. 기후변화, 그리고 제한된 기반시설

남수단의 기상은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 지역별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2월 ~ 3월을 건기로, 4월 ~ 11월을 우기로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3월부터 비가 내리

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속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즉 남수단의 기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그로 인해 남수단의 건기가 과거에 비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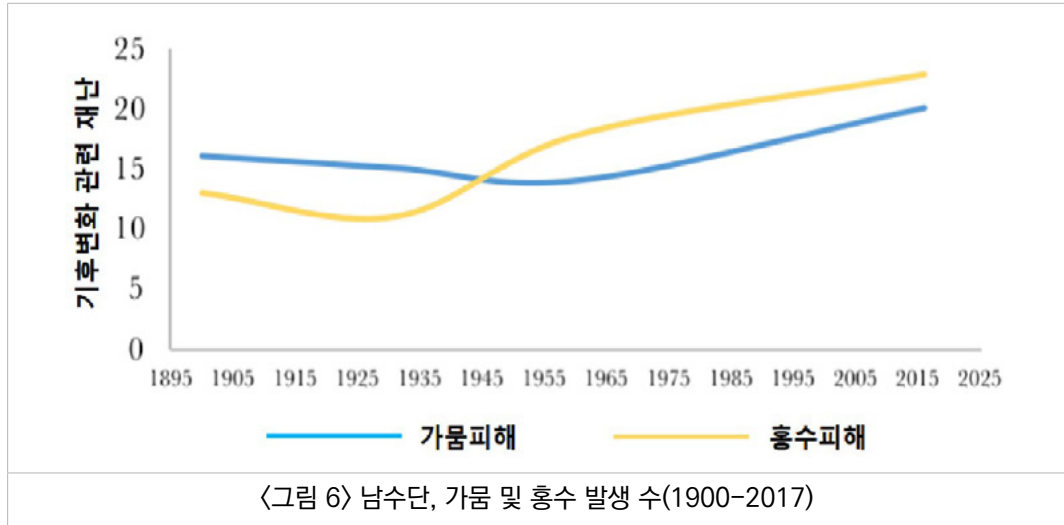
남수단에 건기가 짧아진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유엔의 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민간인 보호를 위한 각종 페트롤, 경호작전 등의 작전활동이 주로 차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약 7,000km의 도로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인 남수단은 물을 머금은 토질의 특성으로 우기가 시작되면 일반적인 차량은 통행이 불가하다. 광범위한 작전지역을 고려하여 공중으로 기동을 해야 하지만 헬기패드 또한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전지역 전 지역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취약한 기반시설은 결국, 민간인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작전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며, 생활범죄의 급증, 홍수로 인한 피난민 증가 등의 또 다른 문제들을 유발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 목적의 식량 운반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줄어든다. 차량을 통한 식량 운반은 건기가 되고 진흙 벌이었던 모래 바닥이 단단히 마르며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기에는 차량을 통한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기를 통해서 공중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다만, 제한된 헬기 수와 비용대비 식량 운반량이 크지 않은 이유로 헬기 운반은 선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식량을 운반할 수 없는 제한된 도로 상태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고려하면 필수적인 헬기운반은 반드시 필요한 운송 수단임에 틀림없다.

셋째,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며 기근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남수단의 연평균 기온이 10년 주기로 0.4℃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60년에는 1℃~1.5℃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3)</sup> 2020년 발생했던 홍수로 인해 종글레이주에서만 8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거의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sup>4)</sup>

3) Climate, Peace and Security: The case of South Sudan. 2021. <https://reliefweb.int/report/south-sudan/climate-peace-and-security-case-south-sudan>(검색일: 2023. 4. 2).

4) 김세하. “레바논 유엔 평화활동에서 주민참여가 인간안보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3.



출처: Nyathon Hoth Mai, Jok Madut Jok, Nhial Tiitmeame, Climate Change and Gender in South Sudan, Special Report, The Sudd Institute, 2018. p. 6을 토대로 재구성했음.

넷째, 우기에 제한되는 작전활동과 식량 등 구호물품의 제한된 운반으로 생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한 분야의 취약성이 다른 분야에 까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 도전 #3. 평화활동간 지속되는 UN 대상 적대행위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차원 유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유엔 임무단(MINUSCA: 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the Central Africa Republic)과 콩고 민주공화국 유엔 임무단(MINUSCO: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tabilization Mission in the DR Congo)을 비교하면 유엔 또는 NGO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는 UNMISS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대행위는 유엔의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고,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활동과 군사작전을 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 2023년 기준, 동부사령부 작전지역에서 UNMISS를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는 4건, 2024년에는 2건이 발생했고, 세계식량계획을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는 2023년에 7건, 2024년에 4건이 발생했다.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운송 시 적대행위가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이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남수단 인구의 3분의 2 수준인 770

만여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놓여있고, 5세 이하 아이들 중 140만여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sup>5)</sup> 현재 남수단이 처한 식량안보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2013년과 2016년 내전 기간의 수준을 넘어섰다.<sup>6)</sup> 뿐만 아니라, 2023년 시작된 경제위기로 국가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이 2023년 12월부터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한 각종 시위가 남수단 독립 이후 처음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위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둘째, 종족 간의 적대관계 때문이다. 식량을 운반하는 이동(보르-피보르) 중간에 특정 종족의 거주지가 변경된다. 예컨대, 식량 이동을 위한 출발지인 보르는 덩카족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목적지인 피보르는 물레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즉 식량 운반 차량이 이동하는 중간에 종족 간의 영토 경계선이 변경된다. 종족 간의 적대관계와 불신은 그들로 하여금 약탈행위 또는 식량 운반을 차단하여 다른 종족에 식량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이 외 식량 운반 시 단일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남수단의 제한된 도로 상황 또한 특정 종족에게 약탈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남수단은 광범위한 영토에 발달하지 않은 도로 사정으로 백나일강을 주요 운송로로 활용하고 있다. 백나일강을 따라 어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으며 어김없이 이러한 어업을 하는 지역에도 청년 갱들이 있다. 2023년 11월, 백나일강을 따라 북부사령부 지역인 말라칼(Malaka)로 이동하던 중 바이딧(Baidit)이라는 동부사령부 작전지역에서 무장된 청년 갱들에 의해 UNMISS 수송선이 납치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청년 갱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업용으로 설치한 어망이 UNMISS의 수송선에 의해 파손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5,000달러를 배상하고 통과하라는 것이었다. 보르 주조정관(HOFO: Head of Field Office)이 해당 지역의 고위직 관리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협상을 하는 약 10일 동안 선원들과 방글라데시 경호병력들은 수송선에서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다. 이렇듯 UNMISS는 위임명령을 이행하며 다양한 적대행위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적대행위는 UNMISS의 평화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5) World Food Programme. <https://www.wfp.org/emergencies/south-sudan-emergency> (2023. 4. 1).

6) 김세하. “레바논 유엔 평화활동에서 주민참여가 인간안보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3.

#### 도전 #4. 이동의 자유 거부(Denial of Freedom of Movement)

유엔 평화활동의 3가지 주요 원칙 중 당사국의 동의(Consent of the Parties)는 유엔의 활동에 자유(Freedom of Action)를 제공한다.<sup>7)</sup> UNMISS의 유엔결의안에도 유엔의 인원과 장비에 대한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사뭇 다르다. UNMISS는 목표하는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남수단 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사국(Host Country)과 UNMISS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한다는 미명 하에 이행되고 있다.

남수단 정부와 UNMISS 사이에 JVMM(Joint Verification Monitoring Mechanism)이라는 정부군(SSPDF: South Sudan People's Defence Forces) 소속의 연락반이 편성되어 있다. UNMISS의 작전활동에 대한 계획을 JVMM에 전달하면 JVMM에서 정부로 통보하고 UNMISS 페트롤에 대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능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JVMM에서 SOI(Sharing of Information)라고 불리는 승인문서를 UNMISS에 전달하고 나서야 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최소 2주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으로 요청해서 단기간에 “긴급 SOI”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남수단 정부로부터 SOI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라 안보상황이 불안한 지역에 민간인 보호 등의 작전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24년 3월, 청년 갱들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어 JVMM 측에 긴급 SOI를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승인을 거부했고, 평화유지군을 현장에 급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파견부대인 한빛부대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 한빛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주 보급로(MSR: Main Supply Route) 작전은 건기가 시작하는 12월경에 통상 시작한다. 11월부터 SOI를 정상적인 절차와 시기에 신청했지만, 남수단 정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SOI 지급을 지연하여 2024년 2월이 되어서야 주 보급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운반이 지연되고 민간인 보호를 위한 각종 페트롤 활동을 장기간 할 수 없었다.

7) Department of Field Support,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 and Guidance, p.32. 2008.

8) Resolution 2726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9575th meeting, on 14 March 2024 S/RES/2726 (2024).

SOI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SOI 발급 지연은 UNMISS의 이동의 자유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둔군 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따르지 않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이동의 자유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무고한 남수단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유엔과 UNMISS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UNMISS와 각종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 활동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작전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도전 #5. 오·역정보(Disinformation & Misinformation)

앞서 설명했듯이 남수단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 깊은 종족 간의 보복 전쟁과 권력 쟁탈, 상호불신 때문이다. 종족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오정보와 역정보 또한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2024년 1월~2월, 약 2달여간 청년 갱들의 이동 정보가 5건 접수되었다. 그러나 최종 확인결과 단 1건만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평화유지군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작전을 강요함으로써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양치기 소년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평화활동에서 종족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통해 신속하게 병력을 현장에 배치시킴으로써 특정 종족의 분쟁 의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제한된 이동로, 교통수단을 통해 어렵게 평화유지군을 접수된 현장에 급파하더라도 종족 이동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정보 또는 역정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오·역정보는 몇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종족 간의 분쟁에서 오는 공포감이다. 위협을 느끼는 A종족이 B종족의 공격이 예상된다는 오정보를 퍼뜨리고, 평화유지군을 유도하여 사전에 분쟁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건기가 되면 보복 전쟁이 시작될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 가능해 진다. 둘째, 오정보를 통해 주민이나 정부에 전하려는 정치적인 메시지이다. 특정 종족이 분포한 지역에 분열과 공포를 조장하여 곧 치러질 대선에서 해당 특정 종족의 지지를 받고,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엔평화유지군은 광활한 지역 대비 도로, 헬기 패드 등의 기반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서 제한된 병력으로 평화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사항은 평화유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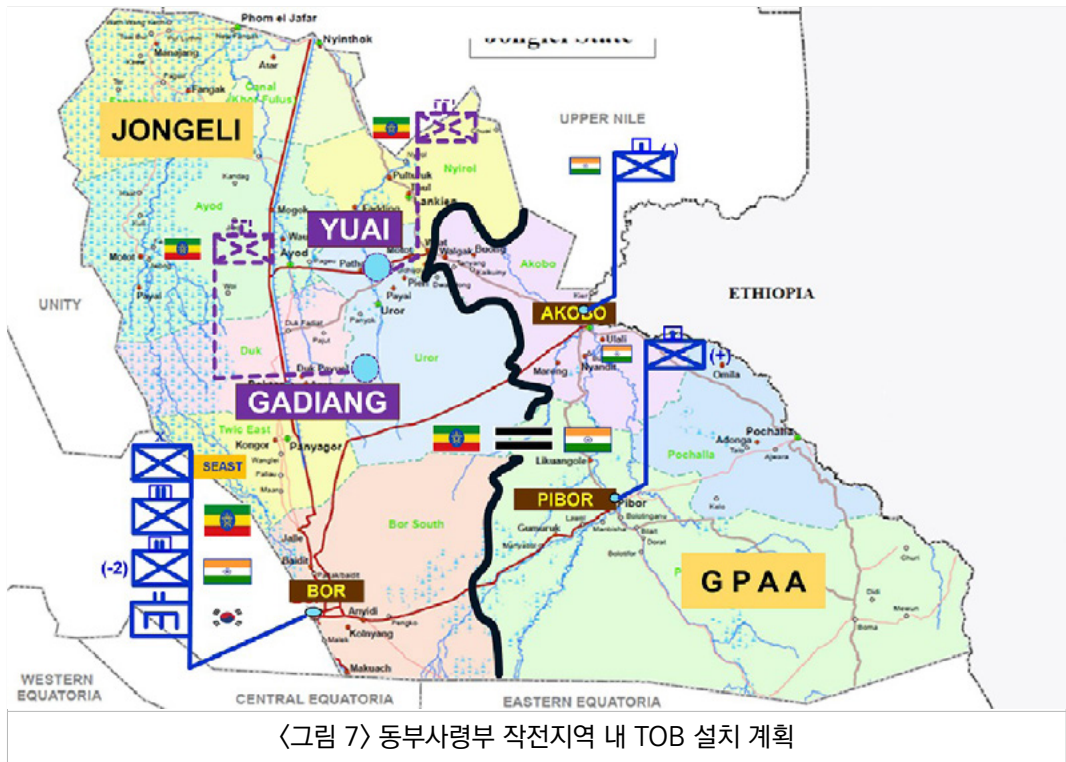
으로 하여금 늘 상황의 증차대와 긴요성 등을 고려하여 작전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강요한다. 또한, 오·역정보는 평화유지군의 병력과 노력을 집중할 수 없게 하여 작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저하시킨다.

최근 들어 오·역정보 문제는 다수의 유엔 임무단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A4P+(Action for Peace Plus) 등의 전략문서에 오·역정보에 대한 현상과 나름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통신이나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최빈국인 남수단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통신기술의 확대, 휴대폰 보급률 증가, 도로망 등의 발달은 오·역정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IV. 도전에 대한 UNMISS의 응전

##### 방안 #1. 임시작전기지(TOB: Temporary Operational Base) 설치를 통한 UN 현시 능력 확대 및 정보수집능력 강화

우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평화유지군의 작전활동에는 큰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우기의 영향으로 유엔 기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민간인 보호(POC: Protection of Civilian)를 위한 각종 순찰활동과 인도적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동부사령부 작전지역에는 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보르(Bor)를 중심으로 피보르(Pibor)와 아코보(Akobo)에 2개의 임시작전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피보르에 위치한 임시작전기지에는 인도대대의 1개 중대(+)가 파견되어 해당 지역 일대에 대한 정찰 임무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정보수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경호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아코보에 위치한 임시작전기지 또한 인도 대대 예하 중대(-) 규모가 파견되어 위와 동일한 작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시작전기지에는 주력부대인 인도대대를 제외하고 UNPOL(UN Police), UNMO(UN Military Observer), CAD(Civil Affairs Department), MSC(Mission Support Center), 유엔 민간직원, 유엔 컨츄리 팀(UN Country Team), 대한민국 공병부대인 한빛부대의 일부가 함께 파견되어 유엔의 통합(integrated)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동부사령부 회의자료 (현지 1차 자료)

남수단의 취약한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작전병력의 기동이 크게 제한되지만, 임시작전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일대는 평화유지군이 반영구적으로 파견되어 순찰 활동과 정보수집, KLE(Key Leadership Engagement)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종족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임시작전기지를 설치할 경우 종족 간 분쟁에서 유엔군이 버퍼존(buffer-zone)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시작전기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제한된 도로와 수송수단의 한계로 인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광범위한 작전지역과 도로 상태를 고려할 때 특정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건기에도 엄청난 이동 시간이 소요되지만, 우기에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작전기지는 필수 불가결한 작전요소로 볼 수 있다.

2023년, UNMISS 사령부는 전(全) 작전지역에 임시작전기지를 10개소 추가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동부사령부 작전지역 내에는 2개의 임시작전기지를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반영했지만, 증설을 위한 남수단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언급했던

SOI 문제와 유사하게 남수단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임시작전기지 또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치가 계획된 2개소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가디앙(Gadidang)과 유아이(Yuai) 지역으로 동부사령부 작전지역의 북서부에서 시공간적인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정치적, 군사적 허브로 판단되는 중요 지역이다. 두 지역의 임시작전기지가 설치되면 에티오피아 대대의 일부가 파견되어 작전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작전환경과 유엔의 제한적인 작전요소, 남수단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일기지에 모든 부대가 밀집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대배치 방안이다. 유엔의 노력과 관심이 덜 미치고, 치안이나 홍수, 기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다양한 작전지역에 중·소대 단위로 다수의 임시작전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작전지속 측면의 어려움은 상존할 수 있지만 남수단과 같은 작전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전적 요소로 볼 수 있다.

## 방안 #2. 다양한 수송수단의 적극적 활용

UNMISS는 취약한 도로망과 우기에는 전 지역이 진흙별로 변하는 악조건의 작전환경 속에서 다양한 수송수단을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래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션브(Sherp)라고 불리는 수륙양용차량을 UNMISS 예하의 6개 여단 중 동부사령부에서 시범 운용 중이다. 이 차량은 UNMISS에서 활용하기 이전부터 낙후된 지역까지 식량을 전달해야 하는 세계식량계획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UNMISS는 2021년부터 제한된 작전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의 보조기동 수단인 션브 차량의 활용을 벤치마킹하여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경호작전 등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동부사령부 예하 2개의 보병부대에서 총 14개의 션브 차량을 운용 중이다.



<그림 8> 전천후 션브 차량 운용 모습

출처: 동부사령부 회의자료 (현지 1차 자료)

헬브 차량은 주로 우기에 사용되며, 홍수로 인한 침수지역, 비교적 얇은 강이나 하천, 진흙벌이 되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통상 10~14km/h의 속도로 기동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을 오랜 기간 이동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헬브 차량은 2021년 이후 세계식량계획과 UNMISS 간의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엔과 UNMISS의 예산이 지속 삭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헬브 차량의 계약은 UNMISS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부담과 필요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브 차량을 COE (Country Owned Equipment) 장비로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7월, 헬브 차량의 재계약 시점에 계약연장 여부를 두고 UNMISS 리더십팀(MLT: Mission Leadership Team)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결과, 헬브 차량의 작전적 필요성으로 재계약이 성사되어 지금까지 운용 중이다. 헬브 차량 없이는 긴 우기 동안 적절한 작전을 진행하기 제한되기 때문에 헬브 차량은 남수단에서 필수 불가결한 작전요소임에 틀림없다. 그 필요성을 공감한 대한민국의 한빛부대 또한 최근 헬브 차량에 대한 구매를 대한민국 정부(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헬브 차량을 운용하는 보병부대(인도, 에티오피아)는 진 교대 직후에 세계식량계획에 소속된 헬브 차량 전문가에게 운전과 정비 등을 위한 집체교육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헬기의 사용이다. 위에서 소개한 헬브 차량이 전천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광범위한 작전지역과 차량속도, 정비소요, 연료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작전지역 전체를 기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반해 건기와 우기를 막론하고 헬기를 통한 이동은 남수단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공중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들이 대다수이다. UNMISS는 공중기동 순찰을 통해 안보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인권상황이 좋지 않은 관심지역에 대해 유엔의 현시능력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권, 식량, 기후, 분쟁 등으로부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불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CAD(Civil Affairs Department), HRD(Human Right Division), PTR(Protection, Transition and Reintegration), DSS(Department of Safety and Security), UNMO(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UNPOL(United Nations Police)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특정 지역에 대한 페트롤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군 또는 정부 고위관리자를 환담하여 현지정세, 인도적 지원 소요 등을 확인하는 통합된 평화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UNMISS의 작전지속지원과 인도적지원을 위해 나일강을 따라 바지선을 주요한 수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군수물자의 수송과 인도적 지원은 평화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일강이 남수단에 갖는 의미와 나일강을 따라 물자를 지원하는 작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작전을 “생명선 작전(OP-LL: Operation Life Line)”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풀이 그대로 UNMISS의 위임명령을 지속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브룬디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한 백나일강은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를 거쳐 남수단까지 닿으며 수단의 카트룸에서 청나일강과 합류하여 이집트까지 이어진다. 남수단, 수단,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를 지나며 남수단을 종으로 잇는 백나일강은 938km로, 이 중 1/3인 약 309km가 동부사령부의 작전지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동부사령부가 생명선 작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지선은 남수단 수도를 담당하는 주바사령부의 책임지역인 망갈라(Mangala)를 기점으로 북부사령부가 위치한 말라칼(Malakal) 지역까지 이동하며 연료, 식료품 등의 군수품을 주로 조달한다. 이동 기간은 편도로 일주일 이상 소요되며 작전 이동 간 주요 항구에서 휴식 및 연료 재보급, 남수단 정부로부터의 물자 및 장비 검사를 받는다. 아래 <그림 9>에서 보듯이, 바지선들은 방글라데시 해병대(BAN FMU: Bangladesh Force Marine Unit)의 직접 경호를 받으며 기동한다. 바지선 또한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커뮤니티들의 청년들에게 주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해병대의 경호작전은 필수적이다. 동부사령부는 작전지역 내에 있는 2개의 주요 항구에 바지선이 접안 할 때 항구 지역에 대한 경호작전과 신속대응팀(QRF: Quick Reaction Force) 대기, 바지 이동선 상 주변 순찰을 통한 현시능력 강화, 지역의 현지 리더들과의 소통(KLE: Key Leadership Engagement)을 통한 사전 이동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출처: 동부사령부 회의자료 (현지 1차 자료)

생명선 작전 외에도 남수단에 발달한 다양한 지류들을 활용해서 유엔의 작전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5월, UNMISS 군사령관이 동부사령부에 방문했을 때 일반 보병부대에서 고무보트를 편제화하여 작전형태의 다양성과 작전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실제로 홍수의 피해가 가장 심한 서부사령부가 위치한 벤티유(Bentiu)에는 몽골 보병대대가 고무보트를 이용한 기동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방안 #3. 정보 획득을 위한 적극적 활동 : 지역 리더십과의 소통강화(KLE)와 드론의 활용**

정보력의 부재는 유엔의 고질적인 문제로 늘 꼽혀왔다.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유엔 평화활동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르완다 대학살과 소말리아 분쟁 등과 같은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뒷받침되고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A4P+에서도 오역정보에 대한 심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전히 취약한 정보력은 유엔 임무단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제한된 예산과 정보자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활동은 지역 리더십들과의 소통(KLE: Key Leadership Engagement)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의 리더들은 분쟁을 유발하는 청년갱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갱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과 별반 차이 없이 지내고, 일반적인 형태의 반군이나 잘 조직화된 전문적인 군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주요인사들과 소통을 하면 대부분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단, 오역정보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 및 기관과의 중

검토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동부사령부의 작전지역을 담당하는 UNMISS 예하 민간 조직인 보르 사무소의 주조정관(HoFO: Head of Field Office)과 그 예하 CAD, PTR, HRD, UNDSS, UNPOL, UNMO 등 각 부서 및 기관들이 주로 소통하는 지역의 카운터파트가 일부 상이하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기관별 청취한 정보를 취합, 공유하고, 공통된 정보를 추려내는 정보의 유통과정이 절실하다.

UNMISS는 작전활동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차후 도입할 계획 또한 없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이 UNMISS의 위임명령을 이행하는데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드론의 활용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는 무엇보다 오·역정보가 과도하게 남발하는 특정 청년갱들의 대규모 이동설(說)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청년갱의 대규모 이동은 종족 간의 분쟁에 대한 가장 핵심 징후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UNMISS의 광범위한 작전지역은 종·횡으로 발달한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고, 이마저 우기가 시작하면 사용이 제한된다. 헬기를 통한 이동 또한 몇 안되는 헬기 패드가 위치한 지역으로만 기동이 가능하고, 안전 목적을 위해 7,000ft 이상의 고도로 비행을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정찰이 가능한 높이에서의 항공정찰도 쉽지 않다. 즉 헬브 차량, 일반 작전차량, 헬기 등을 활용해도 접근할 수 없는 지역들이 수두룩하다. 24시간 어디든 용이하게 기동할 수 있고, 작전지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드론의 활용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 V. 제 언

대한민국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여 작전 간 다양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국토 70%의 산악지형과 동서로 흐르는 강줄기는 기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반면 남수단의 경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기상으로 인해 작전환경이 급변한다. 그리고 유엔 임무단의 작전적 능력 또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작전환경과 작전능력, 기상의 영향은 작전활동의 감소, 생활범죄 및 난민의 증가, 전염병의 창궐, 식량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UNMISS의 위임명령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제약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과 수단을 통해 UNMISS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전들을 살펴보고, 현재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필자의 의견도 공유했다. 현 정부에서 천명했듯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평화활동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분쟁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상황들이 강요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평화활동을 대비하여 대한민국 국군은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평화활동간 다양한 작전환경과 기후변화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대와 장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에 공병부대뿐 아니라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제평화지원단 예하의 특전부대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수륙양용 전투차량과 고무보트 등을 평시부터 운영하고 훈련된 해병대 또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육군의 보병부대에 편제되어 있는 산악 오토바이크와 같은 기동성이 좋은 소규모 수송장비들도 안보환경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특전사 예하 국제평화지원단은 레바논 동명부대로 파병지가 주로 고정되어 있다. 4개 대대가 8개월씩 순환하기 때문에 해당 부대에 오래 근무한 부사관의 경우 동일한 파병부대를 4~5회 이상 경험한 자원들도 있을 정도다. 평화활동이라는 새로운 작전환경에서 유경험자는 매우 유용한 자산인 것은 맞지만 너무 오랜 경험은 다양한 외상후 스트레스와 매너리즘, 안보불감증 등으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 또한 상존한다. 현재 국평단의 4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8개월씩 파병하는 것에 더해서 해병대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부대를 통합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동명부대의 모체부대는 특전사 1개 대대 규모이지만, 아프리카의 작전환경에서는 ①특전대대 1개 지역대와 해병대대(-) 또는 ②특전대대(-)와 해병대 1개 중대로 편제를 갖출 수 있다.

부대의 유연화 외에도 장비의 다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수집 자산, 다양한 수송수단, 기후에 적합한 장비 및 복장 등은 아프리카의 혹독한 작전환경에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수륙양용 전투차량, 드론 등은 아프리카의 작전환경에 게임체인저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유엔에 의해 주도되는 평화활동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분쟁들은 지속될 것이고 유엔 또한 평화활동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평화활동 또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겠다.

---

## 참고문헌

- 김세하, “레바논 유엔 평화활동에서 주민참여가 인간안보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3.
- 김동석, 주요국제문제분석, 남수단 내전의 분석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2.5, No. 2015-49.
- UNMISS, 동부사령부 회의자료(현지 1차 자료)
- Climate, Peace and Security: The case of South Sudan. 2021. <https://reliefweb.int/report/south-sudan/climate-peace-and-security-case-south-sudan>(검색일: 2023.4.2).
- Department of Field Support,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 and Guidance. (2008).
- Resolution 2726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9575th meeting, on 14 March 2024 S/RES/2726 (2024).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29, S/RES/2729. (2024).
- UNMISS, Operational Order. (2023).
- <https://www.un.org/geospatial/content/unmiss-deployment-january-2024> (검색일: 2024.03.10.)
- World Food Programme. <https://www.wfp.org/emergencies/south-sudan-emergency> (2023.4.1).





## 남수단의 민주주의 이행과 선거 난제에 관한 연구

- 국제 평화 유지와 국제 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uth Sudan's Democratic Transition  
and Electoral Challenges

- Focusing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육군대위 임솔\*, 육군소령 박성수\*\*

Capt. Lim, Sol, Maj. Park, Seong-su

---

\*) 인사사령부 (UN Mission In South Sudan, Force Headquarters U1, Administration Officer)

\*\*\*) 인사사령부 (UN Mission In South Sudan, Movcon, Transportation Officer)



## 요약

남수단은 2011년 독립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를 겪으며, 민주적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6년으로 예정된 남수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정부와 반군 간 지속되는 갈등과 군사적 충돌, 석유 의존 경제와 부패 문제로 인한 선거 운영의 어려움, 국제 사회의 개입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남수단의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의 정치·군사·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 선거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본 연구는 군사·지정학적 관점에서 남수단의 선거 과정을 분석하고,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핵심어:** 남수단, 선거, 정치적 불안정, 경제위기, UNMISS, 평화유지작전, 국제 개입

## ABSTRACT

Since independence in 2011, South Sudan has faced ongoing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crises, preventing a successful democratic election. This study examines key challenges for the 2026 election, focusing on government–rebel conflicts, an oil–dependent economy with corruption,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

Despite global efforts to support South Sudan’s transition,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instability make the election’s success uncertai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from a military and geopolitical perspective and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peacekeeping operations.

**Keyword:** South Sudan, elections, political instability, economic crisis, UNMISS, peacekeeping, international intervention.

# 남수단의 민주주의 이행과 선거 난제에 관한 연구

- 국제 평화 유지와 국제 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South Sudan's Democratic Transition and Electoral Challenges

- Focusing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육군대위 임솔, 육군소령 박성수  
Capt. Lim, Sol, Maj. Park, Seong-su

### I. 서론

#### 1. 남수단의 독립과 내전의 역사

남수단은 2011년 7월 9일, 오랜 독립 투쟁 끝에 수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된 후 국제 사회 및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독립한 국가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남수단의 독립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무력 충돌과 외교적 협상의 결과였다. 남수단의 독립은 지역적 갈등과 국제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대가가 따랐다. 남수단의 독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수단 내전과 그에 따른 정치적 역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5년부터 1972년까지 지속된 제1차 수단 내전은 수단 정부(하르툼)와 남부 지역 간의 자치권 확대 및 정치·경제적 권리 보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1972년 아디스아바바 협정(Agreement of Addis Ababa)을 통해 잠정적인 평화가 이루어졌으나, 이 협정은 1983년 수단 정부에 의해 폐기되면서 제2차 수단 내전(1983~2005년)이 발발하게 된다.<sup>1)</sup>

1) Douglas H. Johnson, *The Root Causes of Sudan's Civil Wars*, Oxford: James Currey, 2003, p. 45.

이 전쟁으로 약 200만 명의 사망자와 4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초래하였으며, 아프리카 현대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내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sup>2)</sup>

2005년, 포괄적 평화협정(CPA,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이 체결되면서 남수단은 6년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며, 2011년 1월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98.83%의 찬성률로 독립을 결정하게 되었다.<sup>3)</sup>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9일, 남수단은 공식적으로 세계 193번째 UN 회원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는 신생 국가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정과 부족 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는 결국 2013년 내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 2. 2013~2018년 남수단 내전과 평화 합의

독립 직후 남수단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부족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초대 대통령인 살바 키르(Salva Kiir)와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간의 권력 투쟁은 남수단 정국을 급격히 악화시켰다.<sup>4)</sup>

2013년 12월, 살바 키르 대통령은 마차르 부통령이 쿠데타를 기도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부통령직에서 해임하고 반대 세력을 강경 진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남수단 내전(South Sudanese Civil War)이 발발하였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딩카(Dinka)와 누에르(Nuer)간의 민족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400만 명 이상의 난민(Refugees)과 국내 실향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 발생하는 등 남수단은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였다.<sup>5)</sup>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제 사회의 중재로 2015년 남수단 평화협정(ARCSS,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in South Sudan)이 체결되었다. 하

2) Alex de Waal, *The Real Politics of the Horn of Africa: Money, War, and the Business of Power*, Cambridge: Polity, 2015, p. 102.

3) United Nations,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PA) Between the Government of Sudan and the SPLM/A," January 9, 2005, <https://peaceagreements.org> (검색일: 2025.01.10).

4) International Crisis Group, *South Sudan's Civil War: Violence, Insurgency, and Failed Peace*, Brussels: ICG, 2022, p. 15.

5) United Nations, *Final Report of the UN Panel of Experts on South Sudan*, UN Document S/2023/492,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p. 34.

지만 2016년 수도 주바(Juba)에서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부통령 간의 무력 충돌이 재발하면서 협정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후 2018년, 새로운 평화 합의인 남수단 재활성화 평화협정(R-ARCSS, Revitalized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in South Sudan)이 체결되면서 과도정부(TGoNU, Transitional Government of National Unity)가 구성되었다.<sup>6)</sup> 이 협정은 과도정부의 구성 시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부통령이 다시 권력을 공유하는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남수단 정부군(SSPDF, South Sudan People's Defense Forces)과 반군(SPLA-IO, 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 in Opposition)의 통합을 통한 국가 통합군(NUF, National Unified Forces)을 창설하는 등 안보 개혁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일부 헌법을 개정하여 민주적 선거 준비 및 법적 체계 정비하였으며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이후 UNMISS로 표기),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와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등의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중재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23년 12월, 과도정부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준비의 미비로 인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살바 키르 대통령의 임기가 추가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일정 역시 2026년으로 조정되었다.<sup>7)</sup>

### 3. 남수단 대통령 선거: 실패한 첫 시도와 2026년 선거 계획

남수단은 독립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했다. 2015년으로 예정되었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는 내전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이후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선거 역시 정치적 준비 미비로 인해 연기되었다.<sup>8)</sup> 연기된 선거는 2024년 12월에 실시하기로 합의되었으나,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위원인 Tut Gatluak에 따르면 남수단 정부는 선거 실시 전 인구조사, 영구 헌법 초안 작성, 정당 등록 등 선거와 관

6) UNMISS, "Revitalized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in South Sudan (R-ARCSS)," September 12, 2018, <https://unmiss.unmissions.org> (검색일: 2025.01.18).

7) International Crisis Group, *Political Turmoil and Election Uncertainty in South Sudan*, Brussels: ICG, 2025, p. 19.

8) UN Security Council, *Situation in South Sudan*, UN Document S/2025/115, New York: United Nations, 2025, p. 26.

련하여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선거는 2026년 12월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sup>9)</sup>

현재 예정된 2026년 대통령 선거는 남수단의 민주적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심화되면서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수단의 민주적 전환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 경제적 위기와 부패 문제, 국제 사회의 개입과 한계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UNMISS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이 남수단 선거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수단의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 본 론: 남수단 선거의 구조적 도전 과제

### 1.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

#### 가. 정부와 반군 간의 지속적인 대립

남수단은 2011년 독립 이후 민주적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가의 정치 체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2013년 12월 발발한 남수단 내전은 정부와 반군 간의 근본적인 불신을 심화시키며, 남수단의 정치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2018년 체결된 남수단 재활성화 평화협정(R-ARCSS)을 통해 새로운 과도정부(TGoNU)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

9) Al Jazeera, "South Sudan postpones December election by two years," Al Jazeera, September 14,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9/14/south-sudan-postpones-december-election-by-two-years> (검색일: 2025.03.13).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남수단의 정치 구조는 살바 키르 대통령이 이끄는 수단인민해방운동-국정(SPLM-IG,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in Government)과 리에 크 마차르 부통령이 이끄는 수단인민해방운동-반군(SPLM-IO,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in Opposition)간의 지속적인 권력 투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이다.<sup>10)</sup> 남수단 재활성화 평화협정(R-ARCSS)에 따라 과도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측 간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최근 남수단의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1월 UNMISS Media Update에 따르면 남수단 정부 내부에서 수단인민해방운동-국정(SPLM-IG)과 수단인민해방운동-반군(SPLM-IO) 간의 권력 균형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수단 인민해방운동-반군(SPLM-IO)의 반군 세력이 특정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켜 남수단 정부군(SSPDF)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sup>11)</sup> 또한 2025년 2월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남수단의 정치적 불안정이 선거 준비 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선거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sup>12)</sup>

남수단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될 경우, 선거 과정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정부군과 반군 간의 물리적 충돌이 증가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의 투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수단의 선거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10) UNMISS, "UNMISS Situation Report: Political Tensions in South Sudan," November 2024, <https://unmiss.unmissions.org> (검색일: 2025.03.10).

11) UNMISS, "UNMISS Monthly Report on Armed Clashes," January 2025, <https://unmiss.unmissions.org> (검색일: 2025.02.28).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Electoral Challenges and Security Risks in South Sudan," February 2025, <https://state.gov> (검색일: 2025.03.02).

## 나. 군사적 충돌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남수단의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군사적 충돌이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은 선거 과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유권자들의 이동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소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둔 물리적 공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 당일 폭력 사태가 발생 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UNMISS의 선거 감시 및 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Nasir County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선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다.

### 1) Nasir 지역 내 UNMISS Personnel 사망 및 부상 발생

2025년 3월 7일, Nasir County(Upper Nile State, <그림1>)에서 남수단 정부군(SSPDF)과 지역 민병대인 White Army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남수단 정부군 28명이 사망하였고, UNMISS 소속 다수 직원들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림 1> Nasir County

출처: Google Map (검색일: 2025. 3. 11.)

특히 이번 충돌에서 남수단 정부군(SSPDF) 소속 고위 장성인 Maj. Gen. Majur Dak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남수단 정부군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sup>13)</sup> 또한, 무력 충돌 중 UNMISS의 헬리콥터가 공격을 받아 UN 소속 근무자 1명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UN에 대한 공격은 국제 사회에서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sup>14)</sup>

Nasir County 군사적 충돌 이후, 국제 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을 발표하였는데, 2025년 3월 8일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남수단 내 비상업무 인력 철수를 결정하고, 현지의 치안 불안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검토 중이라 발표하였다.<sup>15)</sup> 또한, 2025년 3월 10일 UNMISS Noon Update에 따르면 UNMISS는 Nasir County 충돌을 선거 과정의 중대한 위협 요소로 평가하며, 긴급 평화 중재 개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sup>16)</sup>

이러한 Nasir County 사태는 남수단 정부군과 민병대 간의 갈등이 선거 과정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요 군사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투표소 설치 및 유권자 보호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할 우려도 존재할 것이다.

## 2) Western Equatoria 및 Greater Pibor 지역 부족 간 갈등

Western Equatoria 및 Greater Pibor 지역에서는 부족 간 갈등이 점차 무력 충돌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계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Western Equatoria 지역에서는 2023년부터 무력 충돌이 지속되어 왔는데 특히,

13) UNMISS, "Nasir County Clashes: SSPDF vs White Army," March 2025, <https://unmiss.unmissions.org> (검색일: 2025.03.10).

14) UNMISS, "UN Peacekeeper Killed in South Sudan Clashes," March 2025, <https://unmiss.unmissions.org> (검색일: 2025.03.10).

1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South Sudan Security Alert: Non-Essential Staff Evacuation," March 2025, <https://state.gov> (검색일: 2025.03.10).

16) UNMISS, "UNMISS Deploys Emergency Mediation Team to Nasir County," March 2025, <https://unmiss.unmissions.org> (검색일: 2025.03.10).

무장 단체 간의 충돌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sup>17)</sup> Greater Pibor 지역에서도 2024년에 심각한 부족 간 갈등이 발생하여 수천 명의 주민이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8)</sup> 이러한 부족 간의 충돌은 부족의 대규모 이동으로 이어지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소로의 접근성 제한 등 선거 준비와 실행에 있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 3) 그 외 최근 군사적 충돌

그 외 남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1>과 같다. 이와 같이 군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남수단 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치안 유지 및 무장 세력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장 단체 간 충돌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가축 약탈과 납치와 같은 행위가 만연하고, 부족 간 갈등이 점차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수단 내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으며, 예정된 선거 및 국가 재건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표 1> 남수단 내 최근 군사적 충돌

발생일자	내용
2025년 3월 19일	Nasir, Upper Nile 주: 남수단 인민방위군(SSPDF)과 White Army 간 공중 폭격 및 지상 충돌. 민간인 사망 다수, 대규모 피난민 발생. 공습에 의한 심각한 피해 발생.
2025년 3월 18일	Akobo, Jonglei 주: 헬리콥터 공격으로 민간인 15명 부상. 지역 상인 차량 2대가 공격 받고 이후 주민 대피 및 상륙 강습 공격 발생.

17) Global Protection Cluster, PC SSD Western Equatoria Protection Situation Report – March 2023, Global Protection Cluster, 2023.03., <https://globalprotectioncluster.org/publications/1197/reports/report/pc-ssd-western-equatoria-protection-situation-report-march-2023> (검색일: 2025.3.13).

18) UNMISS, "UNMISS Calls for Concerted Efforts to Prevent Widespread Violence in Jonglei, Greater Pibor," UNMISS, 2024.12.17., <https://unmiss.unmissions.org/unmiss-calls-concerted-efforts-prevent-widespread-violence-jonglei-greater-pibor> (검색일: 2025.3.13).

발생일자	내용
2025년 3월 17일	Nasir, Upper Nile 주: UNMISS 헬리콥터 공격받아 승무원 1명 사망, 2명 부상.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계속됨.
2025년 3월 10일	Nasir, Upper Nile 주: 남수단 인민방위군(SSPDF)과 반군 조직인 White Army 간 충돌. 이 과정에서 남수단정부군 소속 장성인 Maj. Gen. Major Dak 사망. UNMISS 헬리콥터가 피격당해 UN 계약직 승무원 1명 사망, 2명 부상. Mayom County, Unity 주: 무장 청년 3명이 SSPDF 병력을 공격, PKM 기관총 및 AK-47 소총 탈취. 정부군 1명과 민간인 1명 부상.
2025년 3월 3일	Gumuruk 및 Likuangole 지역, Jonglei 주: White Army와 Dinka Bor, Gawar 부족 연합 세력 간 충돌 발생. 수십 명의 여성과 어린이 납치, 대규모 가축 약탈 사건.
2025년 2월 28일	Nasir 및 Ulang, Upper Nile 주: SSPDF와 SPLA-IO 간 전투 격화됨. 정부군이 추가 병력을 배치하며 대응 강화.
2025년 2월 22일	Pibor 지역: 무장 세력 간 전투 발생. UN이 긴급 개입을 요청하며 평화 유지 활동 강화 필요성 강조.
2025년 2월 18일	Nasir, Upper Nile 주: UNMISS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무력 충돌로 인해 주민들이 대규모로 피난길에 오름. 인도적 위기 심화.
2025년 1월 31일	남수단 전역: SSPDF와 SPLA-IO 간의 충돌 발생. SPLA-IO 측은 SSPDF가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군의 공세를 규탄.
2025년 1월 31일	Nagero County, Western Equatoria 주: 남수단 인민방위군(SSPDF)과 수단인민해방군-반정부군(SPLA-IO) 간 무력 충돌 발생. 교전의 원인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추정.

출처: UNMISS, Noon Media Update, Feb, Jan, Mar 2025,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https://unmiss.unmissions.org>.

이러한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민족 간 또는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특정 부족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덩카(Dinka), 누에르(Nuer), 물레(Murle) 부족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구조로 변형되고 있으며, 선거를 앞둔 세력 간 정치적 경쟁이 군사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다. 부족 간 정치 연계성과 선거의 불안정성

남수단의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정부와 반군 간의 대립을 넘어, 부족 간의 연계 구조 속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요 부족들은 각각 부족에 따라 다른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어 부족주의의 선호도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딩카(Dinka) 족은 살바 키르(Salva Kiir)대통령을 지지하고, 누에르(Nuer)족은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를 지지하는 상황이며, 실룩(Shilluk)족은 지역별로 분열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수단의 선거 과정에 특정 부족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부족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12월 남수단 부족 간 무력 충돌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부족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고,<sup>19)</sup> 2025년 2월 UNMISS 보고서에서는 일부 부족이 특정 지역에서의 유권자 등록을 막으며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20)</sup> 부족 간 갈등이 선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투표를 저하 및 특정 후보의 불공정한 당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남수단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남수단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은 2026년 예정된 선거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수단인민해방운동-국정(SPLM-IG)과 수단인민해방운동-반군(SPLM-IO)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정치적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및 선거 부정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2025년 3월 Nasir County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은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 사태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국제 사회가 선거 감시 및 유권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남수단 정부와 국제 사회가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선거 감시를 강화하며, 부족 간 정치 개입 방지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9) International Crisis Group, "Intertribal Clashes and Electoral Interference in South Sudan," December 2024, <https://crisisgroup.org> (검색일: 2025.03.12).

20) UNMISS, "UNMISS Report on Electoral Disenfranchisement," February 2025, <https://unmiss.unmissions.org> (검색일: 2025.03.12).

## 2. 경제적 위기와 부패 문제

남수단은 극도로 취약한 경제 구조와 만연한 부패 문제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적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 수입의 90%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가 운영과 선거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up>21)</sup> 또한, 정부의 예산 운용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패로 인해 국제 사회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2026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과 운영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남수단의 경제적 위기가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sup>22)</sup>

### 가. 정부 재정 위기 및 국제 원조 감소

#### 1) 남수단 경제 구조의 취약성

2025년 1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남수단의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23)</sup> 특히, 2025년 1월 기준, 남수단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15만 배럴로 감소하여 2023년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sup>24)</sup> 이는 남수단의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석유 생산량의 감소는 선거 운영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고, 석유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남수단 정부의 선거 자금 운용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국제 사회의 원조가 줄어든 상황에서 남수단 정부는 석유 수출 수익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석유 기반 재정 운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남수단 정부는 석유 판매 수익을 활용하여 공공 부문 운영과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과 남수단 내 부패 문제로 인해 재정 운영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2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outh Sudan: Economic Outlook and Fiscal Challenges*, January 2025, p. 12.

22)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UNMISS), *Noon Media Update - 10 March 2025*, <https://unmiss.unmissions.org> (검색일: 2025.03.10).

23) Ibid.

24) South Sudan Oil Ministry, *Crude Oil Production Report*, January 2025, p. 7.

## 2) 국제 사회의 재정 지원 축소

남수단의 경제 위기는 국제 사회의 원조 축소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5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남수단 정부의 재정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추가 원조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25)</sup>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역시 2025년 2월 남수단 정부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sup>26)</sup> 이러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남수단 정부가 보다 투명한 재정 운영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재정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나. 선거 예산 부족과 부패로 인한 문제

### 1) 남수단 선거관리위원회(NEC)의 운영 문제

남수단 선거관리위원회(NEC, National Elections Commission)는 2026년 대통령 선거 준비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심각한 재정 부족과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원활한 선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3월 UNMISS 보고서에 따르면, 남수단 선거관리위원회(NEC)는 선거 자금 부족 문제로 인해 투표소 설치가 전국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7)</sup> 또한, 선거 감시 시스템이 약화되어 독립적 감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sup>28)</sup>

### 2) 정부 재정 부패와 예산 유용

정부의 재정 부패는 선거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5년 3월 발표된 'List of Shame' 보고서에서는 남수단 내 15개 공공기관이 선거 예산을 포함한 국가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부패와 예산 유용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

25) World Bank, *The Impact of Oil Price Fluctuations on South Sudan's Economy*, February 2025, p. 14.

26)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Press Statement on Foreign Aid Suspension to South Sudan*, February 2025, p. 5.

27) UNMISS, *Report on Electoral Readiness and Institutional Capacity in South Sudan*, March 2025, p. 22.

28)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South Sudan*, February 2025, p. 17.

적하였다.<sup>29)</sup> 또한, 남수단의 선거 예산이 정부 내부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며, 공공 부문에서 자금 유용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는 정부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선거 준비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 3) 군부와 정부 고위층의 부패 문제

군부와 정부 고위층에서는 석유 수익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2월 UN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석유 수익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sup>30)</sup> 특히, 남수단 정부군(SSPDF)의 일부 장성들이 정부 계약을 이용하여 석유 관련 이권을 독점하며,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선거 준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31)</sup>

남수단의 경제적 위기와 행정 부패 역시 2026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과 운영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인 석유 의존 구조, 국제 사회의 원조 축소, 만연한 재정 부패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재정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남수단 정부에 대한 재정 감시를 강화하고, 선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입과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UNMISS 및 국제 원조 기관들은 남수단 정부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수단은 선거 부정 및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적인 전환으로의 도전 과정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9)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List of Shame: Mismanagement of Public Funds in South Sudan*, March 2025, p. 10.

30) UN Security Council, *South Sudan: Military Funding and Resource Allocation*, February 2025, p. 11.

31) Amnesty International, *Oil, Corruption, and Military Financing in South Sudan*, March 2025, p. 19.

### 3. 국제 사회의 개입과 한계

남수단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국제 사회는 UNMISS를 중심으로 평화 유지 및 선거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과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도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사회의 개입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남수단 정부의 주권 침해 논란과 정치적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 가. UNMISS와 국제기구(AU, IGAD)의 역할

##### 1) UNMISS 창설 배경과 역할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은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한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 Resolution 1996)에 따라 창설되었다.<sup>32)</sup> UNMISS의 주요 임무(Mandate)는 평화 유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선거 감시를 포함한 민주적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표2>와 같다.<sup>33)</sup>

<표 2> UNMISS Mandate

주요 임무	세부내용
무력 충돌 방지 및 평화 유지	주요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PKO) 배치,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 완화
인도적 지원 및 보호 활동	난민 및 국내 실항민(IDPs) 보호, 구호 물자 지원, 안전 지역 운영
정치적 중재 및 선거 감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 감시 체계 구축, 선거 관련 협상 중재
국제법 및 인권 보호	전쟁범죄 조사 및 보고, 남수단 정부 및 반군에 대한 법적 압박
안보 개혁 및 거버넌스 지원	국가 통합군(NUF) 창설 지원, 행정 개혁 및 공공기관 역량 강화

출처 : UNMISS, Mission Mandate and Strategic Goals, March 2025, p. 7.

3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96 (2011) on the Establishment of UNMISS*, 8 July 2011, p. 3.

33) UNMISS, *Mission Mandate and Strategic Goals*, March 2025, p. 7.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UNMISS와 남수단 정부 간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UNMISS의 감시 활동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sup>34)</sup> 2025년 2월 25일, UNMISS는 선거 기간 동안 폭력 예방 및 유권자 보호를 위해 Election Security Task Force를 구성하고, 국제 감시단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남수단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며, UNMISS의 개입이 과도한 개입이고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정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sup>35)</sup> 또한, 2025년 3월 1일 발표된 UNMISS 미디어 브리핑에 따르면, UNMISS가 주요 도시 및 분쟁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감시 활동을 확대하려 했으나, 남수단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UNMISS 요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했다.<sup>36)</sup>

## 2)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와 아프리카 연합(AU)의 중재 역할

국제 사회의 개입은 UNMISS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와 아프리카 연합(AU)과 같은 지역 기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는 2025년 2월 반군과 정부 간 평화적인 대화를 이끌어내하고자 시도하였고, 정치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거 투명성 협정 체결 시도하였다.<sup>37)</sup> 그러나 남수단 정부와 수단인민해방운동-반군(SPLM-IO) 간의 깊은 불신으로 인해 협상의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아프리카 연합(AU)은 남수단의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약속 및 선거 감시단 파견 계획을 발표하고, 선거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 안보 협력을 제안했다.<sup>38)</sup> 하지만 이러한 아프리카 연합(AU)의 개입 역시 남수단 정부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와 아프리카 연합(AU)의 영향력이 정부와 반군 세력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34) UNMISS, *Noon Media Update - 10 March 2025*, <https://unmiss.unmissions.org>.

35) UNMISS, *UNMISS Election Security Task Force Announcement*, February 2025, p. 10.

36) UNMISS, *Media Briefing on Electoral Monitoring Restrictions in South Sudan*, March 2025, p. 13.

37)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 *Mediation Efforts in South Sudan's Electoral Process*, February 2025, p. 17.

38) African Union, *South Sudan Election Support and Monitoring Plan*, February 2025, p. 21.

## 나. 국제 사회의 개입이 남수단의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1) 국제 사회 개입의 긍정적 효과

국제 사회의 개입을 통해 남수단 내 국제 감시단 파견, 투표소 내 감시 인력 증가 등 선거 감시 활동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 선거 방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NMISS 및 아프리카 연합(AU)의 중재 노력으로 선거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 사회의 감시 하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정치적인 안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국제 사회 개입의 부정적 효과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남수단 정부는 UNMISS의 활동을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5년 3월, 남수단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UNMISS의 선거 감시 활동과 정치적 개입을 비판하며, 일부 지역에서의 UNMISS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sup>39)</sup> 또한, 수단인 민해방운동-국정(SPLM-IG)과 수단인민해방운동-반군(SPLM-IO)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반군 세력이 국제 사회의 개입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UNMISS 및 국제기구의 감시 활동을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국제 사회 개입의 신뢰성이 약화 될 우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sup>40)</sup> 또한, 남수단 내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국제 사회의 개입이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균형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up>41)</sup> 이는 앞으로 국제 평화유지 임무(PKO) 및 선거 감시 활동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sup>42)</sup>

39) South Sudan Government, *Official Statement on UNMISS's Role in Elections*, March 2025, p. 4.

40) The Dawn, "Peace Monitor says house arrest of Machar puts peace accord in jeopardy," UNMISS Noon Media Update, 2025.3.28., <https://unmiss.unmissions.org>.

41) The City Review, "Activist says UPDF presence risks drawing in other external forces," UNMISS Noon Media Update, 2025.3.27., <https://unmiss.unmissions.org>.

42) The Dawn, "UNMISS trains Electoral Officials on boundary delineation," UNMISS Noon Media Update, 2025.3.26., <https://unmiss.unmissions.org>

### III. 결 론

남수단은 2026년 예정된 첫 민주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남수단의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과정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민주적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정치·군사·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2018년 평화협정(R-ARCSS)의 핵심 조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지도부 간 신뢰 부족, 군사적 갈등, 경제 위기, 행정 부패 등의 구조적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공정한 선거가 보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는 UNMISS와 아프리카 연합(AU),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를 중심으로 선거 감시와 중재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남수단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와 반군 세력의 정치적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수단 선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감시 활동을 넘어, 군사적 충돌 방지, 경제적 안정화, 행정제도 개혁 등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남수단 정부와 반군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제 사회의 개입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제 사회가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6년 남수단 선거는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폭력과 부정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행정 개혁과 지속적인 정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 사회 역시 남수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개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에서 채택 가능한 다음 같은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군사적 충돌 예방 및 선거 과정 보호가 필수적이다. 최근 Nasir County, Western Equatoria, Greater Pibor 등의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소 운영과 유권자 보호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선거 기간 동안 분쟁 지역 내 감시 인력을 확대하고, 유권자 이동 보호 및 투표소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정치 및 군사적 충돌이 지속될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안정화 및 재정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남수단은 정부 수입의 90%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유가 변동성이 선거 자금 조달과 직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부패 문제로 인해 선거 준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 사회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선거 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선거 기금이 부패로 유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남수단의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국가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반군 간 신뢰 부족, 부족 간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법·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선거 이후에도 정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단순한 선거 감시를 넘어, 남수단 정부와 반군 세력 간의 정치적 협력을 촉진하고, 헌법 개정과 법치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민주주의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수단의 2026년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군사적 갈등, 경제적 위기, 행정 부패 등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정치적 혼란과 폭력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UNMISS를 중심으로 선거 감시와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수단의 정치·경제·행정 개혁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선거 감시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남수단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Douglas, H. Johnson, *The Root Causes of Sudan's Civil Wars* (Oxford: James Currey, 2003), pp. 45-67.
- Alex de Waal, *The Real Politics of the Horn of Africa: Money, War, and the Business of Power*, Cambridge: Polity, 2015, p. 102.

###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Amnesty International, Oil, Corruption, and Military Financing in South Sudan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25), pp. 1-19.
- Carter Center, Electoral Integrity and Peacebuilding in South Sudan: 2025 Report (Atlanta: Carter Center, 2025), pp. 10-28.
- International Crisis Group, South Sudan's Civil War: Violence, Insurgency, and Failed Peace (Brussels: ICG, 2022), pp. 15-38.
- International Crisis Group, Political Turmoil and Election Uncertainty in South Sudan (Brussels: ICG, 2025), pp. 19-31.
- Jok, Jok Madut, "Challenges of Peacekeeping in South Sudan," *African Security Review* Vol. 32, No. 1 (2025), pp. 22-39.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South Sudan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5), pp. 17-29.
- World Bank, The Impact of Oil Price Fluctuations on South Sudan's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2025), pp. 14-33.

### ■ 공식문서 및 협정

- United Nations,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PA) Between the Government of Sudan and the SPLM/A (United Nations, 2005), <https://peaceagreements.org>.
- United Nations, Final Report of the UN Panel of Experts on South Sudan (UN Document S/2023/492,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pp. 34-52.

- UNMISS, Revitalized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in South Sudan (R-ARCSS) (UNMISS, 2018), <https://unmiss.unmissions.org>.

#### ■ 기관 및 정책보고서

- Global Protection Cluster, “PC SSD Western Equatoria Protection Situation Report – March 2023,” Global Protection Cluster, 2023.03.
- South Sudan Oil Ministry, Crude Oil Production Report (Juba: Government of South Sudan, 2025), pp. 7-16.
- UNMISS, Noon Media Update – Jan, Feb, Mar 2025(UNMISS,2025), <https://unmiss.unmissions.org>.
- UNMISS, Mission Mandate and Strategic Goals (New York: United Nations, 2025), pp. 7-15.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South Sudan: Governance, Rule of Law, and Electoral Support (New York: UNDP, 2025), pp. 12-27.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ress Statement on Foreign Aid Suspension to South Sudan (Washington, D.C.: USAID, 2025), pp. 5-11.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South Sudan Security Alert: Non-Essential Staff Evacuation, Electoral Challenges and Security Risks in South Suda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25), <https://state.gov>.

#### ■ 뉴스기사

- Al Jazeera, “South Sudan postpones December election by two years,” Al Jazeera, 2024.09.1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9/14/south-sudan-postpones-december-election-by-two-years>.
- UNMISS, “UNMISS Calls for Concerted Efforts to Prevent Widespread Violence in Jonglei, Greater Pibor,”UNMISS,2024.12.17., <https://unmiss.unmissions.org/unmiss-calls-concerted-efforts-prevent-widespread-violence-jonglei-greater-pibor>.



# Evolving Discourse on Hezbollah's Armament: Implications for Lebanon and the United Nations

해군중령 채연정\*

Commander Chae, Yeon-jeong

---

\*) Analyst at Kore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 Former Military Peacekeeping-  
Intelligence Officer,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The opinions expressed herein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reflect the official  
position of any institution with which the author is or was affiliated.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volving discourse on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both Lebanon's sovereignty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UN). It analyzes discourses supporting and opposing Hezbollah's armed status across three pivotal periods: the post-1989 Taif Agreement era, Israel's 2000 withdrawal from South Lebanon, and the 2006 Israel-Hezbollah war.

The first discourse emerged following the Taif Agreement, which required the disarmament of all militias but exempted Hezbollah due to its justification as a resistance movement. The second discourse was triggered by the withdrawal of the Israel Defense Forces (IDF) in 2000, which undermined Hezbollah's primary rationale for retaining arms, as its stated goal of expelling the IDF had been achieved. The third discourse, centered around the 2006 war, highlighted Hezbollah's growing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despite international disarmament efforts, particularly throug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559 and 1701.

This analysis finds that Hezbollah has continued its armed status in parallel with its political strengths, consistently citing the Lebanese Armed Forces' (LAF) weakness and its own role as a resistance movement both within and beyond Lebanon's borders as justification for its arma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sustainable disarmament is unlikely without strengthening the LAF through a Lebanese-led political process, supported by international assistance.

**Keyword:** Hezbollah, Lebanese Armed Forces, Israel Defense Forces, Taif Agre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Evolving Discourse on Hezbollah's Armament: Implications for Lebanon and the United Nations

해군중령 채연정

Commander Chae, Yeon-jeong

## I . Introduction

Hezbollah is both a political party and an armed non-state actor within Lebanon.<sup>1)</sup> It has widely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sup>2)</sup> For a long time, neither Lebanon's national government nor its Armed Forces have been able to effectively counter Hezbollah's political influence and military capability.<sup>3)</sup> This was particularly evident at least up until October 2023, when the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extended into another year-long war involving both Israel and Hezbollah.

Meanwhile, since the inception of statehood, a fundamental principle has been that only the state should have the exclusive right to wield

- 
- 1) Asef Bayat, "Islamic Movements," in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ed. David A. Snow, Donatella Della Porta, Bert Klendermans, and Doug McAdam (Hoboken, NJ: Wiley-Blackwell, 2022), p. 4, <https://doi.org/10.1002/9780470674871.wbespm318.pub2>.
  - 2) Clayton Thomas and Jim Zanotti, "Lebanese Hezbolla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IF10703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703>.
  - 3) Aram Nerguizian, "The Lebanese Armed Forces and Hezbollah: Military Dualism in Post-War Leban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ccessed March 15, 2025, <https://carnegieendowment.org/posts/2018/12/the-lebanese-armed-forces-and-hezbollah-military-dualism-in-post-war-lebanon?lang=en>.

military power, based on the consensus of its citizens.<sup>4)</sup> This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a stable statehood system. In line with this notion, this research posits that Hezbollah's armament is not a given or inevitable situation. To support this argument, it identifies significant discourses both in support of and in opposition to the continuation of Hezbollah's armament. It reveals that Hezbollah's armament has not been universally accepted but is rather the outcome stemming from a progression of significant discourses. Regarding the term 'discourse,' in social science, it refers to a structured system of language and practices that shape social realities and influence how people understand the world.<sup>5)</sup>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research, discourse refers to the dynamic and contentious assertions about Hezbollah's armament exchanged among various stakeholders both within and outside Lebanon.

The structure of this study comprises three main sections, each examining a different period of discourse on the continuation of Hezbollah's armament. The first followed the 1989 Taif Agreement, which required the disarmament of all armed groups in Lebanon, but Hezbollah was exempted. The second discourse developed after the Israel Defense Forces (IDF) withdrew from South Lebanon in 2000, raising questions about the necessity of continuing Hezbollah's armament. The third discourse intensified around the 2006 war between Hezbollah and the IDF, further entrenching Hezbollah's military and political influence despite international calls for its disarmament. In detail, each analysis of discourse is structured into three subsections, including an overview of each period's historical background, key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continuation of Hezbollah's armament, and the outcomes and implications of the discourse.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se discourses,

---

4) Alexander Wendt,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9, no. 4 (2003): p. 504.

5) Lene Hansen, "Poststructuralism," in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8th ed., ed. John Bayl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pp. 179-180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why Hezbollah's armament is critical and its implications for Lebanon's stability, as well a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UN) in addressing the issue.

## II. ANALYSIS OF DISCOURSES ON THE CONTINUATION OF HEZBOLLAH'S ARMAMENT

### 1. First Discourse: Post-Taif Agreement

#### A. Overview of the Taif Agreement's Background and Its Implications

Historically, the Lebanese parliament had been structured based on the outdated 1932 census, which granted Christians a parliamentary majority over Muslims at a 6:5 ratio. Over time, varying birth rates and emigration patterns among Lebanon's different religious sects led to significant demographic shifts. However, no new census has been conducted, resulting in a lack of reliable demographic data. This failed to reflect Lebanon's evolving population, fueled growing disparities in representation,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political restructuring.<sup>6)</sup> This situation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in 1975, further deepening the country's political and sectarian divisions. Amid the conflict, numerous militias emerged, with Hezbollah becoming one of the most prominent armed groups. In 1989, the Taif Agreement was signed to bring an end to Lebanon's prolonged civil war.<sup>7)</sup> The Taif Agreement was a pivotal moment in Lebanon's history, introducing substantial political and military reforms. Politically, it adjusted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to better reflect

6) Roger Owen, *State, Power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Middle East*, 3rd ed. (London: Routledge, 2004), pp. 149-151.

7)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2004/777, p. 5.

demographic realities, changing the Christian-Muslim seat ratio from 6:5 to an equal 5:5 split, aligning more closely with Lebanon's estimated demographic composition at the time. This adjustment aimed to establish a more representative parliamentary structure.<sup>8)</sup>

Militarily, the agreement required the disarmament of all armed groups to stabilize the country. However, Hezbollah was notably exempted from this requirement. This exception was justified by the assertion that it was a resistance movement against Israeli aggression, rather than a militia.<sup>9)</sup> The initial discourse on Hezbollah's armed status emerged within the context of the Taif Agreement's disarmament requirement.

## B. Core of the Discourse: Taif Agreement's Requirement vs. Hezbollah's Justifications

### 1) Taif Agreement's Disarmament Requirement

The widespread presence of armed militias during the Lebanese Civil War severely weakened state authority, deepened sectarian divisions, and prolonged the conflict. In response, the Taif Agreement, aiming to address Lebanon's deep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risis, placed disarmament at the center of efforts to restore national stability and sovereignty.<sup>10)</sup> It declared:

Disbanding of all Lebanese and non-Lebanese militias shall be announced. The militias' weapons shall be delivered to the State of Lebanon within a period of 6 months,

---

8) Owen, *State, Power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Middle East*, pp. 151-152.

9) United Nations, "First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559 (2004)," S/2005/272, pp. 10-11.

10) Augustus Richard Norton, "Lebanon after Ta'if: Is the Civil War Over?" *Middle East Journal* 45, no. 3 (1991): pp. 460-463.

---

beginning with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ccord charter.<sup>11)</sup>

The agreement required militias to disband and surrender their weapons to the state, restoring government authority across all Lebanese territory. This aimed to dismantle the militias' influence, which was seen as a major barrier to political stability and national unity. Disarmament was not just a security measure. It was a step toward reducing sectarian divides and creating conditions for a stable and unified state.

However, while the Taif Agreement articulated a clear framework for restoring state authority, the extent to which its disarmament provisions were effectively implemented is a different issue, fraught with complications.

## 2) Hezbollah's Stance on Its Armament Post Taif Agreement

Despite the Taif Agreement's disarmament requirements, Hezbollah asserte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its armament. This stance was rooted in a couple of justifications. Firstly, Hezbollah argued that its armament was essential for defending Lebanon's sovereignty, particularly in response to persistent Israeli threats. It presented itself not merely as a militia, but as a necessary resistance movement, framing this role 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sectarian armed organizations active during the civil war period. Based on this distinction, Hezbollah claimed that its continued armament was legitimate and should be exempted from the Taif Agreement's disarmament clauses, which, it argued, were applicable only to militias

---

11) *The Taif Agreement: The Document of National Accord*, October 22, 1989,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un.int/lebanon/sites/www.un.int/files/Lebanon/the\\_taif\\_agreement\\_english\\_version\\_.pdf](https://www.un.int/lebanon/sites/www.un.int/files/Lebanon/the_taif_agreement_english_version_.pdf).

engaged in the internal fighting during the period of the civil war.<sup>12)</sup>

Secondly, Hezbollah justified continuing its armament by arguing that Lebanon's Shiite population had long bee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marginalized. It cited that compared to other sectarian groups, Shiites held less power and influence. In this context, Hezbollah saw its armament as necessary to protect Shiite communities and to strengthen their representation and influence within the political system.<sup>13)</sup>

In sum, Hezbollah viewed its continued armament as indispensable not only for defending Lebanon from Israeli aggression but also for intensifying the political strength of the Shiite community. By framing itself as a resistance movement, Hezbollah justified the continuation of its armament even after the Taif Agreement.

### C. Legacy of Incomplete Disarmament Post-Taif Agreement

Without delving into the complexities of the issue, the progress leading to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after the Taif Agreement appears to center on three superficial points: the Agreement's call for the disarmament of all armed groups, Hezbollah's exemption from this requirement, and the rationale that Hezbollah's armament was necessary to resist Israeli aggression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hiite community. However, a closer analysis reveals that these simplified narratives fail to capture the full complexity of the situation. Despite the Taif Agreement's emphasis on disarmament and its broader goal of stabilizing Lebanon, Hezbollah continued to maintain its armament, citing its own justifications. Therefore,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should not be seen as

---

12) Marco Nilsson, "Hezbollah and the Framing of Resistance," *Third World Quarterly* 41, no. 9 (2020): p. 1597; and Norton, "Lebanon after Ta'if: Is the Civil War Over?" *Middle East Journal*, p. 458.

13) Nilsson, "Hezbollah and the Framing of Resistance," *Third World Quarterly*, p. 1598; and Norton, "Lebanon after Ta'if: Is the Civil War Over?" *Middle East Journal*, p. 462.

inevitable but rather understood as the outcome of the group's deliberate justifications, coupled with circumstantial demand.

This outcome highlights a fundamental flaw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aif Agreement, particularly in the selective application of its disarmament provision.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ultimately hampered the Agreement's core objectives. As a result, the incomplete disarmament has left a lasting legacy, with Lebanon continuing to grapple with the persistent challenge posed by the armed non-state actor. This situation underscore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disarmament approach that reinforces state authority, as no armed non-state actors can legitimately coexist with a sovereign and stable Lebanese state.

## 2. Second Discourse: Post-Withdrawal of IDF from Lebanon in 2000

### A. Overview of IDF's Withdrawal and Its Implications

As examined in the first discourse analysis, in response to the Taif Agreement's disarmament requirement, Hezbollah retained its arms with various justifications, including the need to resist Israeli forces. Following this, throughout the 1990s, Hezbollah sought to expel these forces. Ultimately, in 2000, the IDF withdrew from Lebanon. This withdrawal was widely regarded as a significant victory for Hezbollah and reinforced its status as a powerful resistance group.<sup>14)</sup>

However, the IDF's withdrawal marked a critical turning point, as the departure of Israeli forces from Lebanon raised questions about the continued necessity of Hezbollah's armament. As revealed in the preceding section, although the 1989 Taif Agreement called for the disarmament of all militias, Hezbollah had been exempted due to its role in resisting Israeli

---

14) Bryan R. Early, "Larger than a Party, yet Smaller than a State: Locating Hezbollah's Place within Lebanon's State and Society," *World Affairs* 168, no. 3 (2006): p. 123.

occupation. Following the IDF's departure in 2000, this exemption became the subject of renewed discourse among various Lebanese factions, who began to question the justification for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This discourse sparked significant arguments within Lebanon, raising doubts about the legitimacy of Hezbollah's claim to retain its arms.<sup>15)</sup>

Understanding this historical context is crucial for grasping why there were intense discourses about the necessity of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following the IDF's withdrawal. It not only highlights the contentious nature of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but also shows that its continuation was neither pre-determined nor universally accepted within Lebanon.

## **B. Core of the Discourse: Lebanese Christian and Sunni Groups' Demands vs. Hezbollah's Resistance**

### **1) Calls for Disarmament: The Arguments of Lebanese Christian and Sunni Groups**

Proponents of disarmament argued that with Hezbollah's objective of expelling Israeli forces achieved, it was time for Lebanon to fully implement the disarmament of militias, particularly Hezbollah, as outlined in the Taif Agreement, and to exercise full sovereignty over its territory. Consequently, key political figures, especially from the Christian and Sunni Muslim communities, contended that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after the IDF's withdrawal would compromise Lebanese state sovereignty. They asserted that all military power should reside with the state, claiming that the presence of an armed non-state actor posed a serious threat to national stability.

For instance, concerns over Hezbollah's weapons and their impact on Lebanese sovereignty were expressed among Christian leaders

---

15) Early, "Larger than a Party, yet Smaller than a State," *World Affairs*, pp. 124, 126.

in Lebanon. They viewed Hezbollah as an extrajudicial force that perpetuated instability. Furthermore, they argued that its continued armament obstructed Lebanon's ability to assert full governance over its territory, preventing the nation from fully reclaiming its independence, particularly from Iranian influence.<sup>16)</sup>

Similarly, Sunni figures, such as former Prime Minister Rafik Hariri, underscored that Hezbollah's activities extended beyond the boundaries of Lebanese legal jurisdiction, thereby impeding the unification of state powers. They contended that true national cohesion necessitated the integration of all armed groups under the centralized command of the state. Moreover, they warned that Hezbollah's persistent armed status not only risked estranging Leban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posed a potential breach of international standards.<sup>17)</sup>

## 2) Counterarguments to Disarmament: Hezbollah's Justifications

Conversely, Hezbollah remained steadfast in its refusal to disarm and presented several justifications for maintaining its armament. One of the primary reasons was the continued need for resistance. Hezbollah argued that Israel had not withdrawn from all Lebanese territory, but remained in parts of southern Lebanon. In particular, the IDF still occupied the disputed Shebaa Farms region, and for Hezbollah, this ongoing occupation justified the continuation of its armed status as a

16) "Lebanon: Independent No More," *Middle East Quarterly*,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meforum.org/middle-east-quarterly/lebanon-independent-no-more>; and "Breaking Away from Iran, Part 1: Lebanon," *Middle East Forum*,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meforum.org/breaking-away-from-iran-part-1-lebanon>.

17) Amanda Rizkallah, "The Paradox of Power-Sharing: Stability and Fragility in Postwar Lebanon," *Ethnic and Racial Studies* 40, no. 12 (2017): pp. 2070-2073.

resistance movement.<sup>18)</sup>

Furthermore, Hezbollah also emphasized that its role as a resistance force went beyond Lebanon's borders. It described its armed resistance as part of a wider regional struggle, highlighting its ideological ties with Iran and its place within what it called the Axis of Resistance. According to Hezbollah, this regional role made its armed capabilities even more necessary. Iran supported this view and provided Hezbollah with significant backing, seeing its armament as important for pushing back against Israeli influence in the region.<sup>19)</sup>

Another justification was the perceived weakness of the Lebanese Armed Forces (LAF). Hezbollah contended that the national military lacked sufficient resources and capabilities to protect Lebanon, particularly its southern border, from Israeli threats. As a result, the group asserted that its trained combatants were essential for safeguarding the country's security.<sup>20)</sup>

### C. Missed Opportunity Despite Favorable Conditions for Disarmament

After Israel's withdrawal from Lebanon in 2000, the discourse on Hezbollah's armament engaged Christian and Sunni Muslim leaders, reflecting the growing nationalization of the issue and drawing in a broader spectrum of Lebanese political fa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

18) Benedetta Berti, "War, Resistance, and 'Combatant Identity': Hezbollah's Political Identity and the Legacy of Conflict,"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34, no. 8 (2022): p. 1571.

19) Benedetta Berti, "Engineering a 'Resistance Axi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Lebanon," in *The Ongoing Battle for Beirut: Old Dynamics and New Trends* (Tel Aviv: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11), pp. 46-50.

20) Frederic C. Hof, "Securing the South: Syrian and Lebanese Interests, Capabilities, and Likely Actions," in *The Last Arab-Israeli Battlefield? Implications of an Israeli Withdrawal from Lebanon*, ed. Patrick Clawson and Michael Eisenstadt (Washington, DC: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2000), pp. 77-79.

those advocating Hezbollah's disarmament, Israel's withdrawal represented a favorable moment to call on Hezbollah to relinquish its weapons. However, Hezbollah remained armed, justifying its position by citing Israel's continued occupation of disputed areas such as the Shebaa Farms, its expanded role within the Iran-led Axis of Resistance, and the perceived weakness of the LAF. Among these justifications, the claim regarding the LAF's limited capability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Hezbollah framed the weakness of the LAF as a justification that its opponents found hard to deny, due to the reality of the LAF's limitations. As a result, strengthening the LAF increasingly came to be viewed as a prerequisite for any credible disarmament process.

In short, the period following Israel's withdrawal in 2000 can be characterized as a missed opportunity for Hezbollah's disarmament, as the rationale for its continued armament had considerably weakened. However, the absence of national consensus, the broader regional dynamics, and the weakness of the LAF all contributed to the failure to seize that moment. This suggests that any future disarmament efforts must be based on a viable approach that goes beyond Lebanon's efforts alone.

### **3. Third Discourse: Prelude and Aftermath of the 2006 Israel-Hezbollah War**

#### **A. Overview of Hezbollah's Political and Military Expansion and Its Implications**

As detailed in prior discourse analyses, despite the 1989 Taif Agreement, which was originally intended to disarm all militias, Hezbollah continued to arm itself. Moreover,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IDF from Lebanon in 2000, Hezbollah not only maintained its armament but also significantly enhanced both its political influence and military capabilities. Politically, Hezbollah's presence in the Lebanese parliament, alongside its allies, has

grown markedly, reflecting its increased influence. From holding 12 seats in 1992, their representation surged to 35 in 2005 and reached 57 in 2009 out of a total of 128 seats.<sup>21)</sup> This electoral outcome underscores Hezbollah's deep integration into Lebanese politics and its ability to mobilize substantial support across various groups within the Lebanese population, positioning it as a significant player in Lebanon's political landscape.<sup>22)</sup>

Militarily, the 2006 war between Hezbollah and Israel underscored Hezbollah's substantial military capabilities, backed by robust support from Iran. Despite Israel's intensive counterattack, Hezbollah withstood the offensive, thus enhancing its reputation as a formidable armed group and a crucial ally to Iran. The war solidified Hezbollah's status as an armed organization capable of extending its operational reach beyond Lebanon, thereby presenting a direct security challenge to Israel.<sup>23)</sup>

Given Hezbollah's political and military growth, it has emerged as an armed non-state actor with the capability to operate across borders and influence regional security dynamics. In turn, Hezbollah's expanding political influence and military strength have become matters of international concern, transcending Lebanon's internal affairs. Consequently, the situation in Lebanon deteriorated to the point that the UN declared it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sup>24)</sup> In this context, the discourse surrounding Hezbollah's armament evolved amid international disarmament demands led by the UN through its resolutions, while Hezbollah firmly rejected these calls.

---

21) Inter-Parliamentary Union, "Lebanon: Parliamentary Elections 2022," Parline: *Global Data on National Parliaments*, accessed March 15, 2025, <https://data.ipu.org/parliament/LB/LB-LC01/election/LB-LC01-E20220515/>; and United Nations, "Lebanese Parliamentary Elections 2018: Results and Figures,"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8.

22) Nilsson, "Hezbollah and the Framing of Resistance," *Third World Quarterly*, p. 1597.

23) Paul Salem, "The Future of Lebanon," *Foreign Affairs* 85, no. 6 (2006): p. 13.

2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1 (2006)," S/RES/1701, Preamble.

## B. Core of the Discourse: International Calls vs. Hezbollah's Sophisticated Rationale

### 1) International Demands i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1559 and 1701

International demands for Hezbollah's disarmament are encapsulated in UNSCRs 1559 and 1701. UNSCR 1559 explicitly calls for the disbanding and disarmament of all militias, emphasizing that the continued presence of armed groups in Lebanon impedes the government's ability to exercise full sovereignty over its territory.<sup>25)</sup> Meanwhile, as part of disarmament efforts, the UN has advocated for a Lebanese-led political process. This approach significantly influenced initiatives such as the Lebanese National Dialogue. This forum brought together major political and religious groups to develop a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foster consensus on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to Lebanon's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Although the overall outcome of the Lebanese National Dialogue was limited, particularly regarding the disarmament of Hezbollah, it is notable that collective efforts from within Lebanon were made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Hezbollah's armed status.<sup>26)</sup>

UNSCR 1701 also calls for the disarmament of all militias and highlights that the continued presence of armed militias hampers the Lebanese government from fully governing its territory, echoing the demands stated in UNSCR 1559. Furthermore, UNSCR 1701 asserts that a robust, capable, and well-resourced LAF is crucial for the country's defense and internal stability.<sup>27)</sup> This emphasis is especially pertinent given that Hezbollah has used the perceived weakness of the LAF as a justification for its continued armament.

2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RES/1559, para. 3.

26) United Nations, "Third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2006/248, pp. 2-5.

27) United Nations, S/RES/1701, Preamble.

Additionally, the UN mandated the expansion of 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initially established in 1979, to assist the LAF. This support involves helping with their deployment throughout southern Lebanon and establishing an area free of unauthorized armed personnel, assets, and weapons, other than those of the Government of Lebanon and of UNIFIL.<sup>28)</sup>

Moreover, it is crucial that UNSCR 1701 clarifies that the disarmament of Hezbollah aligns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1989 Taif Agreement.<sup>29)</sup> This underscores that the disarmament of all militias in Lebanon, including Hezbollah, as outlined in UNSCR 1701, is ultimately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established in the Taif Agreement and refle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firm support for its implementation.

## 2) Hezbollah's Resistance through 2009 Manifesto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demands for its disarmament, Hezbollah firmly asserted its intention to maintain its armed status.<sup>30)</sup> Once again, Hezbollah leveraged the perceived weaknesses of the LAF as further justification for its continued armament, arguing that the national military lacked the capability to independently defend Lebanon against external aggressions. However, this was not merely a repetition of earlier positions. The rationale for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became more sophisticated. This stance was staunchly reiterated in its 2009 manifesto, a public document that outlined the group's core beliefs and political goals, in which Hezbollah's secretary-general, Hassan Nasrallah, declared the group's unwavering intention to remain armed. The manifesto stated:

---

28) United Nations, S/RES/1701, para. 11 (b).

29) United Nations, S/RES/1701, paras. 3, 8, 10.

30) United Nations, "Eleventh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2010/193, pp. 4-5.

The continuous Israeli threats oblige Lebanon to endorse a defensive strategy that couples between a popular resistance that participates in defending the country and an army that preserves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safeguards its security and stability in a complementary process that has proved in the previous phase to be successful.<sup>31)</sup>

This statement carried particular importance, highlighting key points in Hezbollah's vision of its armament. First, Hezbollah expressed a willingness to work with the LAF, while emphasizing its autonomy as a separate military organization. Second, Hezbollah didn't view the LAF as an adversary but rather as a supportive auxiliary force that needed to collaborate with Hezbollah to defend Lebanon. This framing suggests that Hezbollah saw itself as assuming the primary role in national defense, with the LAF serving in a secondary position.<sup>32)</sup>

Overall, the manifesto not only highlighted Hezbollah's resistance to UN disarmament efforts but also emphasized the group's view of the LAF as merely a complementary force. It reveals that Hezbollah has developed a more strategically refined approach to resisting disarmament calls, showing a clear understanding of how to maintain and even strengthen its armed status while coexisting with the LAF over the long term.<sup>33)</sup>

However, this also suggests that the discourse around disarmament remains deeply entrenched, making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SCRs a protracted and complex process.<sup>34)</sup>

---

31) Benedetta Berti, "The 'Rebirth' of Hizbollah: Analyzing the 2009 Manifesto," *Strategic Assessment* 12, no. 4 (2010): pp. 97-98.

32) Berti, "The 'Rebirth' of Hizbollah," *Strategic Assessment*, p. 98.

33) Berti, "The 'Rebirth' of Hizbollah," *Strategic Assessment*, p. 99.

34) Berti, "War, Resistance, and 'Combatant Identity,'"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pp. 1568-1569.

### C. Persistent Challeng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for Disarmament

Given the analysis of discourse around the 2006 Israel-Hezbollah War, several key implications emerge concerning Hezbollah's armament. First of all, Hezbollah's continued armament has transcended a national issue, becoming an international concern that draws broader attention and reflects the growing apprehens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Hezbollah's opposition to disarmament demands, rooted in its significant political influence and formidable military capability, underscores the challenges of reconciling international expectations with Lebanon's internal realities.

As a result, it is evident that only minimal action has been taken to effectively address this pressing issue, which remains pivotal to Lebanon's sovereignty and stability. As part of efforts to ensure sincere implementation, the UN Secretary-General is required to submit semi-annual reports on the statu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The report issued in 2024 concludes that no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 Hezbollah's disarmament.<sup>35)</sup>

Despite this, as of 2024, the efforts mandated by the UNSCRs continue to provide the framework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Hezbollah's disarmament. As it stands, the most recently published semi-annu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701 underscores that a strong and adequately resourced LAF is essential for the resolution's successful implementation.<sup>36)</sup> Therefore, despite the lack of significant progress, the current framework remains centered on strengthening the LAF, as it is considered a critical prerequisite for disarming Hezbollah. While this

---

35) United Nations, "Thirty-Ninth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2024/319, pp. 7-8; 10.

36) United Nations,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1 (2006) During the Period from 21 June to 20 October 2024," S/2024/817, p. 17.

approach continues to receive international support, it is also emphasized that the disarmament process must be led by Lebanon itself in order to ensure las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country.

### III. CONCLUSION

This study has analyzed three pivotal discourses surrounding the continuation of Hezbollah's armament.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key assertions can be drawn. Firstly, while Hezbollah's armament was initially framed as a temporary measure to resist the IDF, it has progressively deteriorated into a deeply entrenched and persistent reality. This trajectory cannot be inherently justified or regarded as permanently acceptable, as evidenced by recurring discourses, both within Lebanon and internationally, that continue to challenge the justification of Hezbollah's armed status. Recognizing that Hezbollah's armament is neither a predetermined necessity nor a universally accepted reality is a necessary first step in addressing the complex and contested issues surrounding its status as an armed non-state actor. This recognition provides the foundation for a constructive examination of the way forward.

Subsequently, what is the fundamental and practical solution for Hezbollah's disarmament? It lies in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LAF. Hezbollah has repeatedly argued that the LAF is incapable of defending Lebanon without the support of its military presence, citing persistent Israeli threats. According to this view, Hezbollah's armament remains essential because the LAF alone cannot fully protect the country. However, this stance challenges the core principle that the state should hold the exclusive authority over the use of armed force. It undermines Lebanon's sovereignty and weakens the legitimacy of its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rmed forces. Therefor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issue is to adequately enhance the

LAF's capabilities, in turn reducing Hezbollah's justification for maintaining its arms. Moreover,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LAF is underscored by UNSCR 1701, which also highlights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support in facilitating a lasting and effective disarmament of Hezbollah.

In addition, international support must be coupled with a concerted effort by the Lebanese themselves, encompassing all sects of Lebanese society. This approach aligns with the UN's perspective, as reflected in UNSCRs 1559 and 1701, which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Lebanese-led political process to achieve Hezbollah's disarmament. Furthermore, this emphasis is consistent with the UN's broader peacekeeping principles. In particular, the promotion of national and local ownership is recognized as a critical factor in the success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alongside other founda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consent of the parties, impartiality, and the non-use of force except in self-defense and in defense of the mandate.<sup>37)</sup>

To wrap up this study, it is worth turning attention to early 2025, where a new chapter in Lebanese history is unfolding. Despite the official end of the 2024 war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some units of the IDF continue to occupy parts of southern Lebanon, claiming their presence is necessary for Israel's security.<sup>38)</sup> In response, Hezbollah's new leader, Naim Qassem, who succeeded Hassan Nasrallah following his death during the war, reaffirmed the group's commitment to resisting Israeli forces. He rejected the idea that the LAF alone could deter Israel and questioned its capability to do so. He maintained that Hezbollah would continue its resistance and insisted that the

---

3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Capstone Doctrine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2008), pp. 38-40.

38) Hugo Bachecha, "Israeli Troops Stay Inside South Lebanon After Withdrawal Deadline," *BBC News*,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d3j7d9zzk8o>; and Naharnet Newsdesk, "Netanyahu Says Israel 'Won't Give Up' 5 Hills in Lebanon," *Naharnet*,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naharnet.com/stories/en/311609-netanyahu-says-israel-won-t-give-up-5-hills-in-lebanon>.

group has the right to defend Lebanese territory from Israeli aggressions.<sup>39)</sup> Meanwhile, Joseph Aoun was inaugurated as Lebanon's president and pledged to ensure that only the state holds the authority to bear arms.<sup>40)</sup> Shortly afterward, the UN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supporting the LAF.<sup>41)</sup>

Amid these developments, the Lebanese government launched a reform plan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ully implementing the Taif Agreement.<sup>42)</sup> As the discourse surrounding Hezbollah's armament resurfaces once again, this study provides a structured framework for understanding Lebanon's current yet recurring reality. Its findings offer a clear rationale for the new president's pledge to uphold the state's exclusive right to arms, the UN's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LAF, and the Lebanese government's renewed focus on the Taif Agreement. Ultimately, the study concludes that sustainable disarmament is unlikely without a credible, well-resourced, and nationally supported Lebanese army, coupled with international support.

39) Naharnet Newsdesk, "Qassem Says State in Charge of Defense but Hezbollah to Stay as 'Resistance,'" *Naharnet*,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naharnet.com/stories/en/311511-qassem-says-state-in-charge-of-defense-but-hezbollah-to-stay-as-resistance>.

40) David Gritten, "Army Chief Elected Lebanon's President After Years of Deadlock," *BBC News*,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dxzxd32lzvo>.

41)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UN Secretary-General's Press Conference in Beirut, Lebanon (18 January 2025)," *UNIFIL*, accessed March 15, 2025, <https://unifil.unmissions.org/un-secretary-generals-press-conference-beirut-lebanon-18-january-2025>.

42) Naharnet Newsdesk, "Govt. Launches Reform Plan, Stresses Need to Implement Taif Accord," *Naharnet*,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naharnet.com/stories/en/311439-govt-launches-reform-plan-stresses-need-to-implement-taif-accord>.

## BIBLIOGRAPHY

- Baram, Amatzia. “Breaking Away from Iran (Part 1): Lebanon.” *Middle East Forum*.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meforum.org/breaking-away-from-iran-part-1-lebanon>.
- Bachega, Hugo. “Israeli Troops Stay Inside South Lebanon After Withdrawal Deadline.” *BBC News*.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d3j7d9zzk8o>.
- Bayat, Asef. “Islamic Movements.” In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edited by David A. Snow, Donatella Della Porta, Bert Klandermans, and Doug McAdam. Hoboken, NJ: Wiley-Blackwell, 2022. <https://doi.org/10.1002/9780470674871.wbespm318.pub2>.
- Berti, Benedetta. “The ‘Rebirth’ of Hizbollah: Analyzing the 2009 Manifesto.” *Strategic Assessment* 12, no. 4 (2010): 91-100.
- ———. “Engineering a ‘Resistance Axi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Lebanon.” In *The Ongoing Battle for Beirut: Old Dynamics and New Trends*. Tel Aviv: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11.
- ———. “War, Resistance, and ‘Combatant Identity’: Hezbollah’s Political Identity and the Legacy of Conflict.”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34, no. 8 (2022): 1564-1579. <https://doi.org/10.1080/09546553.2020.1810026>.
- Early, Bryan R. “Larger than a Party, yet Smaller than a State: Locating Hezbollah’s Place within Lebanon’s State and Society.” *World Affairs* 168, no. 3 (2006): 115-128. <https://www.jstor.org/stable/20672740>.
- El Khazen, Farid. “Lebanon: Independent No More.” *Middle East Quarterly* 8, no. 1 (2001).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meforum.org/middle-east-quarterly/lebanon-independent-no-more>.
- Gritten, David. “Army Chief Elected Lebanon’s President After Years of Deadlock.” *BBC News*.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dxzxd32lzvo>.
- Hansen, Lene. “Poststructuralism.” In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8th ed., edited by John Baylis, 177-19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 Hof, Frederic C. “Securing the South: Syrian and Lebanese Interests, Capabilities, and

Likely Actions.” In *The Last Arab-Israeli Battlefield? Implications of an Israeli Withdrawal from Lebanon*, edited by Patrick Clawson and Michael Eisenstadt, 69–88. Washington, DC: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2000.

- Inter-Parliamentary Union. “Lebanon: Parliamentary Elections 2022.” *Parline: Global Data on National Parliaments*. accessed March 15, 2025. <https://data.ipu.org/parliament/LB/LB-LC01/election/LB-LC01-E20220515/>.
- Middle East Eye Staff. “Explainer: Lebanon Politics – Who is Nabih Berri.” *Middle East Eye*. Published September 17, 2024.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middleeasteye.net/profile/explainer-lebanon-politics-who-nabih-berri>.
- Naharnet Newsdesk. “Govt. Launches Reform Plan, Stresses Need to Implement Taif Accord.” *Naharnet*.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naharnet.com/stories/en/311439-govt-launches-reform-plan-stresses-need-to-implement-taif-accord>.
- ———. “Qassem Says State in Charge of Defense but Hezbollah to Stay as ‘Resistance.’” *Naharnet*.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naharnet.com/stories/en/311511-qassem-says-state-in-charge-of-defense-but-hezbollah-to-stay-as-resistance>.
- ———. “Netanyahu Says Israel ‘Won’t Give Up’ 5 Hills in Lebanon.” *Naharnet*.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naharnet.com/stories/en/311609-netanyahu-says-israel-won-t-give-up-5-hills-in-lebanon>.
- Nerguizian, Aram. “The Lebanese Armed Forces and Hezbollah: Military Dualism in Post-War Leban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ccessed March 15, 2025. <https://carnegieendowment.org/posts/2018/12/the-lebanese-armed-forces-and-hezbollah-military-dualism-in-post-war-lebanon?lang=en>.
- Nilsson, Marco. “Hezbollah and the Framing of Resistance.” *Third World Quarterly* 41, no. 9 (2020): 1595–1614. <https://doi.org/10.1080/01436597.2020.1779587>.
- Norton, Augustus Richard. “Lebanon after Ta’if: Is the Civil War Over?” *Middle East Journal* 45, no. 3 (1991): 457–473. <https://www.jstor.org/stable/4328316>.
- Owen, Roger. *State, Power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Middle East*. 3rd ed. London: Routledge, 2004.

- Rizkallah, Amanda. "The Paradox of Power-Sharing: Stability and Fragility in Postwar Lebanon." *Ethnic and Racial Studies* 40, no. 12 (2017): 2058-2076. <https://doi.org/10.1080/01419870.2017.1277031>.
- Salem, Paul. "The Future of Lebanon." *Foreign Affairs* 85, no. 6 (2006): 13-22.
- *The Taif Agreement: The Document of National Accord*. October 22, 1989. accessed March 15, 2025. [https://www.un.int/lebanon/sites/www.un.int/files/Lebanon/the\\_tauf\\_agreement\\_english\\_version\\_.pdf](https://www.un.int/lebanon/sites/www.un.int/files/Lebanon/the_tauf_agreement_english_version_.pdf).
- Thomas, Clayton, and Jim Zanotti. "Lebanese Hezbolla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IF10703.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accessed March 15, 2025.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703>.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RES/1559. New York: United Nations, 2004.
-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2004/777. New York: United Nations, 2004.
- ———. "First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559 (2004)." S/2005/272. New York: United Nations, 2005.
- ———. "Third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2006/248. New York: United Nations, 2006.
-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1 (2006)." S/RES/1701. New York: United Nations, 2006.
- ———.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Capstone Doctrine.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2008.
- ———. "Eleventh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2010/193. New York: United Nations, 2010.
- ———. "Lebanese Parliamentary Elections 2018: Results and Figures."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8.

- ———. “Thirty-Ninth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59 (2004).” S/2024/319. New York: United Nations, 2024.
- ———.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1 (2006) During the Period from 21 June to 20 October 2024.” S/2024/817. New York: United Nations, 2024.
-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UN Secretary-General’s Press Conference in Beirut, Lebanon (18 January 2025).” *UNIFIL*. accessed March 15, 2025. <https://unifil.unmissions.org/un-secretary-generals-press-conference-beirut-lebanon-18-january-2025>.
- Wendt, Alexander.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9, no. 4 (2003): 491-542.





# Training & Experience

블루라인(Blue Line)에서의 13개월 파병 생활의 의미  
| 육군소령 박보영





블루라인(Blue Line)에서의  
13개월 파병생활의 의미  
(13 Months on the Blue Line  
: Lessons on Sustained Support in War)

육군소령 박보영\*  
Major. Park, Bo-young

\*) 육군사관학교 인사계획장교



# 블루라인(Blue Line)에서의 13개월 파병생활의 의미

## (13 Months on the Blue Line : Lessons on Sustained Support in War)

육군소령 박보영

Major. Park, Bo-young

### I. 서론

'23년 8월 26일 주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이하 UNIFIL) 연락처(Liaison Branch) 연락장교(Liaison Officer)로서 파병 생활을 시작하였다. UNIFIL 사령부 소개교육(UNIFIL Induction Training)을 이수하고 블루라인<sup>1)</sup>(Blue Line, 이하 BL) 지역 경찰훈련(Training Patrol)을 받았다. 이후 서부여단 경찰을 완료하고 10월부터 경찰하게 될 동부여단 지역의 지리 및 특성을 숙지 중이었다. 이 시기 특정 블루라인 일대에서 연락장교의 경찰을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GWB(Green Without Borders)의 활동이 증가한다. GWB는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로 헤즈볼라와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락처는 BL 일대 이들의 의심스러운 활동과 정황을 여러 차례 보고하였고 이내 '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이하 이 - 하 전쟁)이 발발하였다.

6.25 전쟁 이후 정전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본인은 전쟁을 직접 경험해본 적은 없었기에, 전쟁상황을 일상으로 겪은 레바논에서의 13개월은 인사·군수 등 지속지원을 비롯한 제반 기능의 실전적 중요성을 절감하는 기회였다. 향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

1) Blue Line (BL) is a line of withdrawal between Lebanon and Israel,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on 7 June 2000, UNIFIL Liaison Branch Blue Line Booklet, March 2023.

속지원 체계 구축의 실질적 의미를 전달하고, 개인파병을 준비하는 인원들과 파병부대의 교육에도 활용되는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 II. 전쟁을 통해 경험한 지속지원의 중요성

### 1. 전시 불안정한 급식지원과 개인파병자

UNIFIL은 '23년 이 - 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민간직원과 계약업체의 안전을 이유로 '23년 10월 이후 필수근무지원을 축소하였고, 영내 병영식당도 '24년 8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대대급 이상 파견국가는 국가별로 사령부 참모장교들의 급식을 지원하였으나 본인을 비롯한 한국 참모장교들은 민간 택시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구해 한국관에서 취사하였다. 상황 악화로 비주기적으로 운영하던 사령부 마트(PX)의 판매 담당 민간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아 식수 구매도 어려워졌다. '24년 2월 나쿠라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한국관이 수몰되었고 취사까지 불가해진다. 이후 기획장교가 소속되어있는 기획처(J5)의 선임장교인 이탈리아 처장을 통해 이탈리아의 병영식당을 '24년 4월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레바논 내부의 식자재 공급 차질과 식당직원들의 출근 최소화로 병영식당의 운영이 불안정한 가운데 개인파병자가 동명부대에 기대할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파병부대의 급식은 인원을 기준으로 급식비의 개념을 적용<sup>2)</sup>하며, '인원'은 부대파병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1〉 파병부대 급식비

구분	계	UN부식	국내조달 (해상 재보급)	파병증식	물가보조
내용	11,292원	5,060원 (1인 1일 기준 \$4.6 기준)	3,232원 ('18년 기준)	1,000원	2,000원

출처 : 육본 해외파병업무 실무지침서, '18. 10. 1, p. 3-81-20

'18년 동명부대 파병자 329명 급식비는 1인 1일 기준 11,292원으로 약 459억 원 수준에서, '23년에는 레바논의 심각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20.95억 원으

2) 육본 해외파병업무 실무지침서 제3장 제1절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 p. 3-81-20

로 예산 증액을 추진하였다. '25년에는 급식비 1인당 32,553원, 33.3억 원<sup>3)</sup>이 반영되었다.

〈표 2〉 '23년 동명부대 급식예산 증액계획

<p>2) 동명부대 급식 지원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 4.68억 원 → 20.95억 원 반영 추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현재 동명부대 1인 1일 급식비는 15,394원이며, 레바논의 심각한 경제난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식품 물가 628% 상승)으로 급식 수준 낮음</p> </div> <p>* 국내 장병 수준의 급식을 위해서는 1인 1일 25,000원으로 예산 증액 추진</p>
--

출처 : 육본 군수참모부, '23년 해외파병부대 군수지원계획, p. 6-2

특히 '25년에는 〈표 3〉과 같이 전쟁 중인 레바논의 상황을 감안하여 동명부대의 방호기준이 최고 단계로 격상될 경우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전투식량으로 급식을 대체하도록 했다. 우리 군은 이처럼 파병부대 지원 시 해당국의 안보와 경제상황, 전시 인플레이션과 방호 단계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현실화한다.

〈표 3〉 동명부대 방호기준별 식당 운영

방호기준	LEVEL 1(평시) · 2(실위활동 자제)	LEVEL 3 (대피호 점령)
식당 운영	정상운영	식당 미운영, 전투식량

출처 : 육본 군수참모부 '25년 해외파병부대 군수지원계획, p. 7-3

파병부대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한편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상황을 겪는 개인파병자에 대한 비상시 급식 지원 대책은 없는 점이 아쉬웠다. 레바논 경제위기 및 전쟁 등을 분석하여 부대파병 계획에 반영하듯이 개인파병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나 팬데믹, 전쟁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임무단의 철수도 우발상황 중 하나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UNIFIL의 철수를 요청했었으며, 실제로 기획처는 국가 단위 철수 시나리오를 검토한 바 있다. 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따라 개인 단위 파병인원의 철수는 파병임무가 종료되었거나 국제연합 또는 주도국과 사전 · 사후에 협의한 파병기

3) 육본 군수참모부, '25년 해외파병부대 군수지원계획, p. 7-3

간이 만료되었을 때 실시하거나, 파병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국방부가 임무종료를 결정할 경우 철수한다. 우발사태 발생으로 인한 파병인원의 철수(이하 우발철수)는 임무수행 중 현지 상황의 악화로 계속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때 또는 국내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정되었을 때 실시하며, 군사지원본부장은 우발철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합참의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도로 수립한 우발철수작전계획에 의거 철수시킨다.<sup>4)</sup>

#### 〈표 4〉 Administrative Control 권한

The contributing Member State retains “Administrative control” over non-operational administrative issues (such as benefits and salaries) of deployed uniformed contingent personnel and units.

Administrative control over uniformed contingents and units is exercised by an NCC (National Contingent Commander) deployed within the mission area.

출처 : UN Policy ‘Authority, Command and Control’ Paragraph

UN은 개인파병자의 투입과 철수, 본국송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속국가의 부대장(National Contingent Commander, NCC)의 승인을 받는다. 〈표 4〉와 같이 UN 정책에 따르면 Administrative control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리에는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은 없으나,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지휘·감독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임무지역 내 부대장이 행사하도록 설명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해외파병 예산을 검토할 때 개인파병자들의 생존보장을 위한 예비자금을 파병부대에 책정, 동명부대장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파병자들의 안정적인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 2. 전쟁 중 민간 수송을 통한 귀국 : 레바논에서의 마지막 날

휴가출발 및 복귀는 물론, 파병종료 후 복귀 시에도 민간 택시를 이용하였다. 본인과 인수인계하는 후임자가 레바논에 도착할 무렵 ‘24년 9월 17일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인 무선 호출기(삐삐)와 무전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여 2,7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4) 합참규정-444-01, 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 제68조 (철수), p. 64-36

5) 국제평화활동센터, UNIFIL 사령부(레바논) 참모장교 귀국보고서, 2024.10.30.

했다. 레바논 주민들의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UN 활동에 대한 기동저지 및 전자기기 탈취, 구급이나 역류 등의 사건이 증가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동명부대에 후임자의 수송을 건의하였고, 동명부대의 배려로 무장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었다. '24년 9월 24일은 파병 종료일로 레바논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하루 전날인 23일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한다. 이 공습으로 최소 180여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지역 300여 곳을 타격했고 필요하다면 지상군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림 1〉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BL 일대 마을

전면전에 대한 위기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이튿날인 24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레바논 현지교민에 대한 철수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공항이 폐쇄될 수 있으므로 항공편이 있을 때 신속히 출국하라 권고한다. 본인의 귀국 항공편도 2차례나 취소되었으나 가까스로 항공권을 확보하여 공항까지 이동을 위해 평소 이동하던 택시의 운전사 핫산에게 연락한다. 원래 동명부대에 무장차량을 이용한 호송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앞서 언급한 호출기 폭파사건으로 UNIFIL에 실망하고 분노한 레바논 주민들이 UN 차량을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결국 동명부대로부터 자체 복귀 계획을 수립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핫산과 새벽까지 공습경보의 수준과 영외 상황을 공유하며 출발 가능여부를 논의하고 평소 두 배의 운임을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위병소 통과부터 지체되었다. 사령부는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며 위병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위병소를 나간 순간부터 신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UN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하라는 연락을 받고, 연락처 부처장에게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는 통화 후 위병소를 나올 수 있었다. 약속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한 핫산은 택시에 아내

와 아들, 딸을 모두 대동한 상태였고, 트렁크에는 가족의 짐이 있었다. 전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온 가족이 함께 갈 것이며 누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 했다. 이동 중 레바논 주민 1명과 합승했고, 공항까지 짐 운송을 요청하는 주민이 있었다. 포탄으로 파손된 도로가 많았고, 피난 행렬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핫산은 우회에 우회를 거듭하여 계속해서 베이루트 공항을 향해갔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 위를 걷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 낡은 트럭에 한가득 넘치게 탄 사람들, 연료가 바닥나 아무렇게나 버려진 차들 사이를 걸어가는 피난민들이 있다. 커다란 쌀자루에 어깨끈을 꿰매어 만든 가방을 메고 북쪽으로 향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인형을 안고 끌려가듯 걷는 아이를 보았다. 핫산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전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림 2〉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피난민들

가까스로 도착한 공항에서도 스크린 앞을 한 시도 떠나지 못했다. 스크린 속 항공일정의 절반 이상이 이미 취소되었고, 실시간으로 취소되는 일정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예약한 항공편이 결항되면 다시 부대로 돌아갈 방도가 없었다. 핫산이 헤어지며 빌어준 신의 가호가 함께 해준 덕분인지 레바논에서 아부다비행 비행기는 결항되지 않았고 최종 목적지인 인천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귀국을 위해 민간택시로 공항까지 이동한 본인의 경험은 수송지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

### 3. 전시 인력 운영과 효율적인 인사 관리 : 전쟁과 연락처의 변화

이 - 하 전쟁 이전 연락처 상황관리장교(Liasion Duty Officer, 이하 LDO)는 지정된 1명이 연락처 사무실 내에서 06:30 ~ 23:00 까지 근무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사령부의 지휘통제실(Joint Operations Center, JOC)에서 팀장 1명과 팀원 1명, 총 2명이 1개조로 휴

무일 없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한다. 지휘통제실은 각 기능이 모여 작전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전쟁 이후 연락장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됨에 따라 '증강된 지휘통제실'을 구성할 때 LDO의 위치를 기존 연락처 사무실에서 지휘통제실로 옮겼다. LDO는 소속된 UNIFIL 연락처와 이스라엘군(Israel Defense Forces, 이하 IDF), 레바논군(Lebanese Armed Forces, LAF) 연락 담당자 간의 주요 소통 창구 기능을 하며 연락처장 및 지휘통제실에 정보를 제공한다. 지휘통제실에서 주 업무 파트너는 지휘통제장교와 상황근무자(Watch Keeper), 동부·서부여단과 해상임무단(Maritime Task Force, MTF) 각 예하부대의 연락장교, 정보수집 및 분석장교(Report Cell Officer) 들이다. 전술적 수준의 제반 상황 관련 정보와 첩보는 LDO를 통해 전파되고 유지된다.

연락처는 연락처장(프랑스 대령)을 중심으로 총 24개국 39명(연락장교 30명)이 근무하는 참모부로 규모가 큰 처부 중 하나이다. 주요 임무가 블루라인을 정찰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 사령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전쟁 이후에는 정찰활동을 대폭 축소하여 정찰인원 5~6명, 동부여단 파견 연락장교 1명, 서부여단 1명, 이스라엘 3명을 제외한 전 인원을 상황관리에 투입한다. 연락처는 또한 LDO 근무팀의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감독, 교육을 총괄하는LDOS(Liaison Duty Officer Supervisor) 직책을 신설하고 연락처 예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에 반영한다. 연락처 상시 지침에 LDOS에 대한 임무를 설명하고, 하단에 '이 직책이 연락처의 연락 및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적대 행위가 중단되는 즉시, 우리는 이 직책의 적절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전 시 직책임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표 5〉 LDOS 직책 신설 및 주요역할

##### 5. Liaison Duty Officer Supervisor (LDOS)

Main role: LDOS supervises the duties of Liaison Duty Officers (LDO).

- a. Works to ensure that the JOC duties are performed in a professional manner.
- b. Anticipates events that need liaison.
- c. Monitors and assesses current operations between IDF and UNIFIL.
- d. Supports patrol team from his office when they are on the field. Attends radio communications and vehicle locations with Turbonet.
- e. Executes missions and tasks according to CLO and DCLO orders.

- f. Acts in support of SSLO.
- g. Controls the perception of equipment by patrol teams.
- h. Rosters individual LOs as LDO 1 to 5 and as reserve.
- i. Propose new tools or processes to facilitate liaison work with the Parties.

\* This post has been created since October 2023 to reinforce LB liaison and coordination capacities. As soon as there is a cessation of hostilities, we will have to reassess the relevance of this function.

출처 : Liaison Branch Permanent Guidance n° 5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상황근무자의 수요가 증가하나 사령부 예규에는 전시를 고려한 편제나 보직변동에 대한 사전계획이 없어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부서별로 필요한 직책을 신설했다. 파견인원 모집 시 사령부 참모장(프랑스 장군)에게 건의하고 승인을 받는데 국가적 인맥이 활용된다. 연락처의 경우에도 군수관련 전문가 2명, 정보수집 및 분석 전문가 2명, 상황관리 전문가 1명 등 관련 경력을 가진 연락장교들을 타 부서로 3개월에서 5개월 간 파견 보내야 했다. 상황관리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을 파견 보내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종 결정권자인 참모장이 프랑스인이고, 연락처장도 프랑스인이라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프랑스는 참모장의 지시로 유엔본부(United Nations Headquarters, 이하 UNHQ)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예비대(Force Command Reserve, FCR)에 보직된 인원을 지휘통제실에 보강하였고, 차후 직책을 신설하는 등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요 요직을 확보하였다.

지휘통제실도 인력이 부족하여 전 처부를 대상으로 상황관리 요원 파견을 요청하나, 3교대에 상황관리 피로도가 높고 주말과 휴일이 없어 기피하는 자리인지라 장기간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의전처 소속의 한국군 의전장교가 파견됐다. 의전처의 주요업무인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해당 부서의 업무량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네팔 국적의 처장의 상대적 으로 미비한 영향력이 결정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전시 인력운영의 중요성을 알고 평시에도 전시편제를 관리하며 인사명령을 최신화하여 유지한다. UNIFIL과 비교해보면 바람직하다. 전시 상황을 예측할 때에는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필수직위의 수요를 정확히 산출하여 인력운영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국방인사정보체계 인사기록과 같이 개인별 자력과 이수 받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발사태나 도발, 전쟁 등 각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가진 인원들을 신속하게 배치,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전시 인력 공백 최소화 및 적재적소 보직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인사 기능의 핵심이라 믿는다.

#### 4. 전시 민간인 인력 활용과 그들의 안전관리, 신원확인

UNIFIL은 다른 유엔 임무단처럼 시설관리나 청소, 보안, 차량관리 등 일부 지원업무에 대하여 하청, 계약업체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한다. 특히 비군사적인 행정과 지원업무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SIP(Stay In Place)<sup>6)</sup>가 2단계 이상이라면 이들 민간직원은 출타 및 출근을 제한한다. 필수직위의 직원 중 일부만이 출근하고 전투근무지원 관련 인원들은 대다수 재택근무로 전환되는데 자동차 정비, 재정부서, 우체국, 식당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하청업체를 통해 계약된 청소, 시설 관리직도 출근하지 않는다. 전시 이들의 임무를 고려, 긴급한 직책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길 수 있으나, 앞서 언급 하였던 한국관 수몰의 원인시설 관리직과 관련이 있다. 민간직원 출타 최소화 지침에 따라 환경관리 및 정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고 레바논의 우기(12월과 2월 사이)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를 생략하면서 2월 집중호우로 한국관 및 여군 숙소 일부, 이탈리아 중령 숙소 등이 수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3〉 '24년 집중호우로 수몰된 한국관

한편 전쟁 이후 영내에 다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는데, 여군 숙소도 창을 넘어 방으로 침입하여 노트북, 귀중품, 돈을 훔쳐 갔다. 본인도 도난사건을 겪어 군사경찰 조사를 요청했다. 범인은 여군 숙소 청소담당 레바논 현지 남자 직원이었는데, 해당 인원의 편지를 받기도

6) SIP는 이스라엘군(Israel Defense Forces, IDF)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의 강도 및 상황을 고려하여 UNIFIL 부대원과 직원들 대상으로 지정된 위치에 대기(Stay In Place, SIP)를 권고하는 메시지로 3단계로 구분됨.

하였다. 2주의 시간을 주면 훔쳐 간 돈을 돌려주겠다 했지만 2달여간의 이스라엘 파견에서 레바논으로 복귀한 후에도 그의 소식은 없었다. 하청업체에서는 청소관리인들의 담당구역을 전면 변경하였고, 특히 도난사건이 많았던 여군 숙소에는 상주하던 민간직원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UNIFIL 민간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령부 주둔지 인근 남부 해안도로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던 청소 용역업체 직원과 그의 친척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현장에서 사망한다.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대상 비인도주의적, 무차별적 공격행위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사건이었으나 비 공식적으로는 피해자들이 헤즈볼라 활동을 돕는 활동을 하던 일종의 스파이를 이스라엘이 정밀타격으로 노린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확인된 바는 없으나 UNIFIL 직원 중 일부가 헤즈볼라와 연관되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있었으며 실제로 UN 직원들에 의해 UN 기밀 (Confidential) 자료들과 영상이 휴대폰으로 촬영되어 유출되는 일이 있어 전 부대원들이 보안 관련 교육을 받았다. 특히 사령부가 주둔한 나쿠라 지역은 시아파 이슬람이 종교로, 이슬람 종교 집단이 우세하고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로 헤즈볼라들의 활동 근거지라며 다수가 믿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역시 전시상황에서 전시근로역을 비롯하여 공무원근로자, 하청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시에 일하게 되는 인원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들의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신원확인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급품(방탄조끼, 방탄모, 방독면 등)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안전을 위해 SIP 레벨과 같이 상황을 고려한 출근과 퇴근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남 간첩 사례와 UNIFIL 민간 직원이 헤즈볼라를 도와 유엔 기밀 서류 일부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민간인 근무자에게 임무를 부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Ⅲ. 전쟁 이후 블루라인 정찰과 추가 임무수행

#### 1. 블루라인(BL) 정찰과 변화

##### 가. 연락처 임시기지의 급식 중단과 해결 노력

연락장교는 블루라인 일대를 동부지역과 서부여단으로 나누어 주기적인 정찰

(Patrol)을 시행하며, 정찰간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동부지역 정찰('24년 3월)

BL은 UN이 설정한 군사경계선으로 그 길이가 121km에 이르며 도로 포장 상태도 좋지 않아 2주 단위의 파견 및 정찰 간에는 숙식을 해결할 임시 기지(Base)가 필요하다. 동부지역 정찰 간 연락처 임시기지는 스페인군의 UNP(United Nations Position) 7-2에, 서부지역은 이탈리아군의 UNP 2-45에서 숙소를 이용하는데 전쟁 이후 레바논 현지에서 식자재 공급이 요원해지자, 스페인대대와 이탈리아대대는 연락장교에게 제공하던 급식을 중단, 식대를 청구하였다.

연락처장은 각 부대와 협의하였으나 실패하여 추가 협의를 위해 동부여단에는 스페인 연락장교를 비롯하여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 소속의 연락장교들을 파견 보내고, 서부여단에는 이탈리아 연락장교들을 파견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식대는 개인 부담이다.

#### 나. 가짜뉴스 확산과 블루라인 정찰팀의 확인 임무

BL 일대 정찰 간 전쟁으로 인해 추가된 임무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 즉 허위정보와 오보, 조작된 정보에 대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여 확인하는 일이었다. 사령부에서는 특정 뉴스와 영상을 연락처로 전송해주었고 정찰팀은 블루라인 인근의 관련된 장소에서 실제로 영상과 같은 대규모 시위가 있는지, 로켓 발사준비 행위나 유엔활동 저지 행동 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데 BL 일대 방호벽(T-wall)을 망치로 부수는 주민들, 대량의 무기를 숨기는 미상의 사람들 무리, 블루라인 너머로 바위와 돌을 던지는 청소년들의 영상도 있었다. 막상 현장으로 정찰을 나가면 대다수의

기사들이 '가짜'였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도 심리전과 선전전으로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흔하였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24년 1월 IDF가 UNIFIL 기지를 공격했다고 레바논 매체에서 보고한 적이 있었고, 이후 UNIFIL 측은 기지 공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24년 3월에는 가자지구 피난민 수용소 공격 영상 조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헤즈볼라 세력은 서로 상대국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조작된 거짓 뉴스를 퍼뜨리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유도하려 하였다.

#### 다. 이스라엘로의 파견

'24년 6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2달간 이스라엘 북부 BL일대 파견 간 우리 팀은 BL 정찰 외에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철수계획 수립 및 FTX(Field Training Exercise)를 통한 계획 수정·보완의 임무를 맡았다. 철수계획은 이스라엘 내 긴장이 고조되면 파견팀을 안전한 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레바논으로 복귀시킨다는 내용으로 IDF 연락처장에 BL 정찰 및 FTX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FTX를 위한 주요도로 숙지와 UN 관련 기지 방문을 제외한 제반 BL 정찰은 안전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숙소는 마알롯(MA'ALOT) 지역 내 민간 주택으로 BL에서 9km 거리로 박격포와 미사일, 드론 공격의 사정권 내에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의 비우호적인 행위는 위협적이었다. 손가락을 이용한 욕이나, 운전 중 차를 막아서고 위협적으로 끼어드는 일 등을 겪으며 숙소를 IDF 주둔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UNIFIL 신임 연락처장은 '24년 6월 부임 후 그간 담보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부대 내 숙소 등 각종 사안을 IDF 연락처에서 논의하자 제안하였으나, 부대 출입은 거절되었고, 마알롯 숙소에서 양측의 연락처장이 만나 논의 하여 숙소는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IDF는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는 UNIFIL이 과연 헤즈볼라의 적대행위를 과연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있는지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공식서한으로 연락처를 통해 항의한 바 있다. 그 연장선인지 그들은 BL 정찰과 숙소이전 등의 문제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연락장교 중 일부는 숙소에 도청장치와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고, 일부는 설치된 와이파이에는 해킹에 취약하다며 휴대폰용 데이터를 별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실제로 해당 숙소는 IDF 소속 군인 소유로 그는 주 1회 방문하여 집 외부와 정원을 정비하였는데, 본인도 자연스럽게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머무는 2달 동안 이웃 주민들은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집과 집 사이 높은 담장이나 조경용 나무가 우거져 집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였으며,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 모습이였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생활 물가가 세계적으로 높은 데다가 전쟁까지 겹쳐 실시간으로 우상향하는 물가를 체감할 수 있었다. 만약 상황이 급변하여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철수계획을 실행하게 된다면 높은 물가와 일부 주민들의 UN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레바논 복귀까지 절대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되었다.



〈그림 5〉 이스라엘군 연락처 연락장교들과 간담회

#### 라. 여군 연락장교로서의 IFAK 훈련과 팀원의 안전

‘24년부터 연락장교는 UNIFIL에서 IFAK(Individual First Aid Kit) Training인 개인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3년 11월 BL 정찰간 연락장교들이 미상의 인원들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나 이후 연락처의 차량을 방탄차량으로 변경하고, 정찰훈련 간 라디오를 활용한 메디백(MEDEVAC) 보고 요령을 숙달하였다.



〈그림 6〉 연락처 IFAK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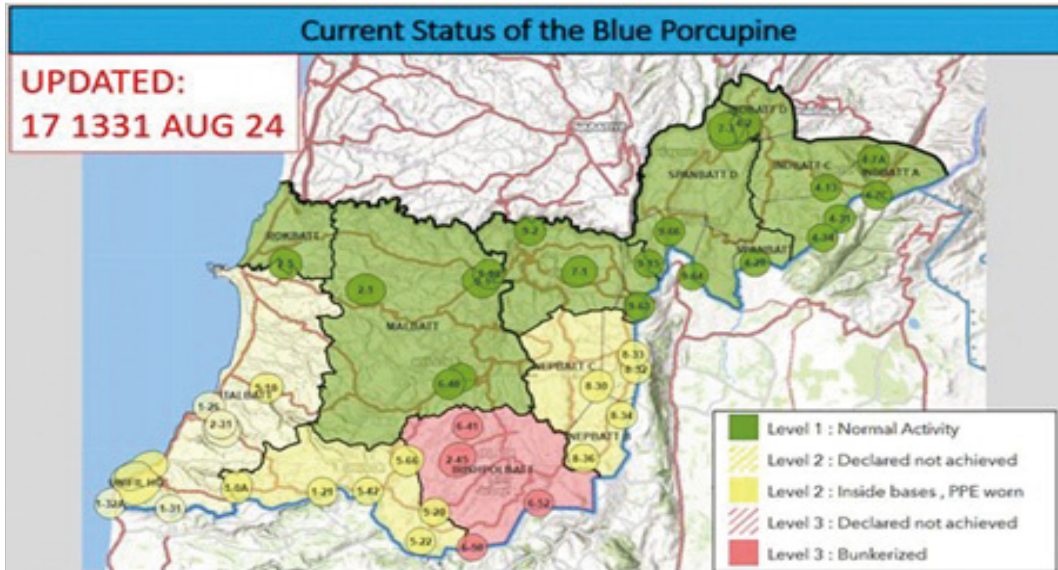
IFAK 훈련은 그 이후에 연락처장의 의지로 추가되었다. 각종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이 걸린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중요한 훈련들로 항상 실전처럼 임하였으며 최선을 다 하였다. 응급조치 훈련 프로그램인 IFAK 훈련은 지혈대를 이용하여 출혈 멈추기, 상처 감염을 예방하기, 기초적인 심폐소생술(CPR), 기도 확보하기, 압박붕대 사용하기 등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되고, 이후에는 야외에서 1 : 1 종합 관찰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인은 연락처의 유일한 여군 연락장교로 외국군에 비해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아 같은 정찰팀으로 결성된 팀원들에게 ‘팀원으로서 나의 가치’, 즉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응급조치할 수 있으며, 다른 팀원들을 충분히 구조하고 라디오를 통해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 2. 전쟁 이후 연락처에 부여된 추가 임무

### 가. SIP(Stay In Place) LEVEL 전파

IDF는 레바논에 대한 공격의 강도 및 상황을 고려하여 UNIFIL 부대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위치에 대기(Stay In Place, SIP)하라는 단계별 메시지를 LDO에게 전송한다. SIP는 일종의 경계 또는 비상상태(Alert Status) 혹은 공습경보와 의미가 같다.



〈그림 7〉 지휘통제실 SIP 레벨 상황도

출처 : UNIFIL 지휘통제실(JOC)

SIP는 3단계로써, 공격의 강도 및 범위를 고려하여 정상단계(LEVEL 1 : Normal UN Operational Activity)부터 경계단계(LEVEL 2 : UN Personnel in Camps), 완전경계(LEVEL 3 : UN Personnel in Bunkers)가 있다. 앞서 언급한 동명부대의 방호 기준도 이 SIP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있다. LDO는 IDF로부터 본 요청을 받은 즉시 지휘 통제실에 전파해야 하며, 지휘통제실은 방송을 통해 UNIFIL 사령부에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 SIP 레벨 변경 메시지를 전파받음과 동시에 연락처는 지휘통제실과 위험지역 내 정찰 및 작전 수행 중인 부대에 전파하고, 이는 실시간 사령부 내부 방송으로 송출된다. 동시에 비상통신 기능이 탑재된 사무실 전화기에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 또한 UN 계정 개인별 메일과 휴대폰으로도 메시지가 발송된다. 3단계가 되면 전 인원은 대피호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사령부 외부활동은 전면 중지된다.

#### 나. 사령부 전원 대피호 점령 여부를 이스라엘군에 통보

UNIFIL 사무실과 숙소 근처에는 대피호가 마련되어 있다. UNIFIL의 모든 부대원과 직원은 3단계 경보가 울리면 지체없이 대피호로 이동하고 소속부대(서)로 대피호 일련 번호를 보고하여 대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내부에는 전화기가 설치되어있어 사령부 본부와 소통하면서 부대원 및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을 위한 연락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UNIFIL 사령부 전 인원이 대피를 완료하면, 연락처는 이를 IDF에 알리고,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공격이 개시된다.



〈그림 8〉 사령부 지하 대피호 내부 및 예하부대 대피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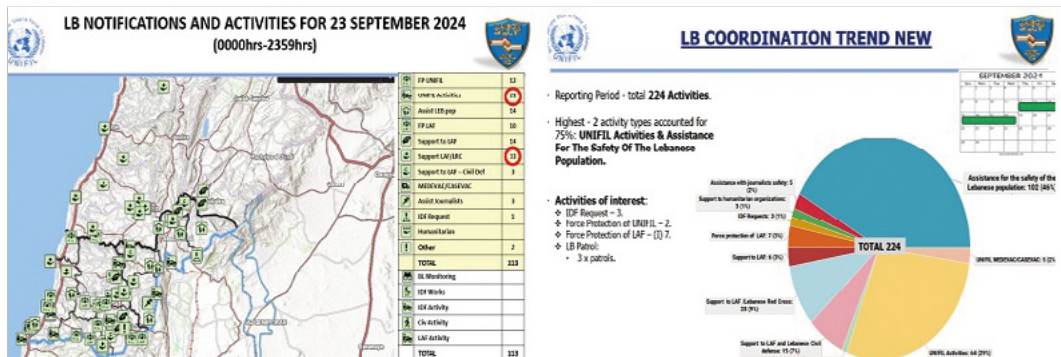
짧게는 30여분, 길게는 8시간 넘게 대피호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때에 따라 식사나 취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일례로, '23년 10월 본인이 동부여단 파견된 초기, 합참에서 개인파병자들의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마침 해부대에 SIP 3

단계가 발령되어 5시간 넘게 병커에 머무르고 있던 터라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아 연락이 온 줄 모르고 있었다. 합참에서는 답장이 없어 한동안 소동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UNIFIL에서도 샤워 혹은 취침으로 인해 대피호 점령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부서원들을 찾느라 애쓰는 모습은 흔했다. 대피호 인원 실점과 관련한 간편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

UNIFIL 대피호 내부는 의자, 전투식량, 식수, 전화기가 설치되어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자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피호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대피호에 대해 '생존'만이 아닌 '생활'을 위해 설비 개선을 고민해봐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에 대비할 공기정화 시스템, 동부여단에서 설치해준 전자렌지와 같은 간편한 생활가전 등 장시간 대피호에 머무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동부여단 스페인대대는 대피호 내부에 전자렌지를 설치해 주어 전투식량 파스타를 데워먹었더니 맛이 좋아진 기억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투식량과 식수 관리의 중요성이다. UNIFIL 일부 대피호는 전투식량과 식수를 도난 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결국 일부 대피호는 전투식량과 식수를 보충하지 않았고, 종종 불편을 겪어야 했다.

#### 다. 전시 데이터(기록물) 관리

LDO 임무를 수행하며 전시 초기 상황관리는 엑셀을 통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고, 사령관에게 일일 단위로 보고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락처는 엑셀에서 나아가 LAM(Liaison Activities Managemnet) 이라는 업무도구에 상황처리 결과를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통계와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를 정기적으로 UNHQ에 보고하고 있다.



〈그림 9〉 LAM 시스템을 통한 상황관리 및 데이터 축적

출처 : UNIFIL 지휘통제실(JOC)

UNIFIL은 체계적 데이터 통계와 분석을 위해 발 빠르게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강하였다. UNHQ는 각 대대별로 SIP 단계별 빈도 및 지속시간도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생성되는 자료는 모두 데이터화하였다. 전시 데이터, 기록물 축적은 추후 분석 및 활용은 물론 당시 역사적 사실 입증의 1차 자료이므로 각종 증빙에 중요하다는 것을 있으나 덕분에 연락장교는 실시간 SIP 관리, 상황관리에 데이터 관리도 함께 수행해야 해서 나날이 업무가 과중해졌다.

### 3. 개인파병자 보급품 및 기타 의견

#### 가. 장기보존식의 일정 비율 구비 의무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주변 해상 항로와 항구가 공격 위협에 처하게 되어, 해상 운송이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 지역의 해상 물류에 차질이 생긴다. 한국에서 동명부대로 발송한 해상 재보급 물자 역시 적시적으로 도착하지 못했다.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항로의 위험성으로 해상 운송이 제약되므로 파병 시 우발상황을 대비하여 깡통이나, 염장, 장기보존이 가능한 식품과 식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구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본인의 경우 병영식당이 폐쇄되고 이탈리아식당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교대를 앞둔 동명부대의 후배가 내어준 전투식량이 현재 몇 개가 남았는지 헤아리고, 한국서 공수해온 라면 등 식자재의 잔여량을 자주 확인해야 했다.

#### 나. 지혈대 보급 검토

일부 선진국의 연락장교들은 지혈대를 보급품으로 소지하여 IFAK 훈련 간에도 활용하였는데, 한국도 읍저버나 연락장교와 같이 파병지에서 영외에서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한하여 지혈대를 보급하면 현지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것이다. 파병 전 기본적인 의약품인 소화제, 지사제, 소독약과 밴드 등을 불출할 때 함께 보급하고, 이후 파병지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파병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보급이 어렵다면 개인 필수품목으로 구비를 추천한다.

### 다. 남녀공용 시설과 문화 차이에 대한 짧은 생각

동부여단에 SIP 3단계 발령으로 대피호에서의 대기가 길어지면서 그 안에서 취침을 하였다. 남녀구분 없이 웅크리고 잠을 잤다. 스페인 군인들과 벤치 아래쪽에 일렬로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다. 병커의 바닥은 자갈로 되어있어 온몸이 배기지만, 밖에서 끊임 없이 들려오는 폭음과 진동은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한다고 재촉하는 듯했다. 사실 동부여단 임시기지의 샤워시설도 남녀공용(UNISEX)이다. 부스형태로 누구든 한 칸씩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문화차이가 흥미로웠다. '우리 군도 남녀 병커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병커 안에서 취침을 하면 남군·여군 구역 설정을 해야하는지, 대피하면서 급하게 뛰어 들어온 병커가 여성 병커가 아니라 남성 병커면 밖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지' 전 시 남성·여성 시설을 나누지 않고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역차별 논란도 없이 평등한 부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개인 프라이버시나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불편함도 우려된다. 동부여단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효율적인 남녀공용 시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 IV. 레바논에서 배운 것 : 전우와 평화를 위한 바람

'23년 10월 7일 이후 일상과 업무가 급변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다. 식자재를 구하러 영외로 나가려면 위험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했고, 연락처장의 승인이 필요했다. 휴가를 나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라면, 동명부대 소속 후배가 내어준 전투식량이 몇 개가 남았는지 습관처럼 확인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문제가 아니었다. 상황근무 때는 상황처리를 하다 자주 끼니를 놓쳤다. 유일한 휴식은 수몰된 한국관 테라스 구석에 남겨둔 탁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 기도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하루 동안 마주한 낯선 전시 상황들에 우리 군을 대입해보았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떤 모습일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역시 레바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나의 전우'들이 전시에 겪을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 하나였다. 평소 가지고 있는 병과 지식과 상식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발전시키고 싶었다. 전쟁에 대한 간접경험은 차마 문장으로 담지 못하는 경험치가 되었으리라. 연락장교로서의 13개월은 앞

으로의 군 생활 동안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로 작용하길 바란다.

레바논에서의 수많은 밤을 헤아려본다. 신경을 긁으며 새벽마다 날아다니던 드론의 비행 소음, 공습의 충격으로 화장실 창문과 거울 유리가 깨지는 일들, 이스라엘 파견 동안 아이 언동 요격 미사일 잔해가 떨어져 경보 사이렌을 들으며 대피한 날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 중 잊지 못할 한 소녀를 떠올리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3년 9월 정찰훈련을 위해 방문한 동부지역에서 만난 가족과 사진을 함께 찍었다. 한국에서 온 이방인이 신기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어 본인 옆으로 딸을 데려다 놓았다. 부모님의 등쌀에 이방인 옆에 홀로 선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그 꼬마 아가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24년 4월 블루라인 정찰을 위해 다시 찾은 그곳은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콘크리트 잔해만 남아있었다. 소녀와 소녀의 가족 모두가 그곳을 무사히 탈출하였으며 잘 살아있기를, 레바논 사람들이 그들의 환한 미소를 닮은 평화를 하루빨리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림 10〉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이전 레바논 사람들과 소녀

2025년 6월 15일 인쇄

2025년 6월 15일 발행

| 발행처 |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Tel: 041) 831-5731~5732  
[www.kndu.ac.kr/pko](http://www.kndu.ac.kr/pko)

| 편집위원장 |

국제평화활동센터 센터장 대령 **백동균**

| 편집 및 심의위원 |

연구개발처장 중령 **현석범**  
기획운영처장 중령 **이진우**  
교육훈련처장 중령 **남석진**  
국방대학교 전문교수 **최태원**  
국방대학교 전문교수 **경수진**

| 편집간사 |

지역연구담당 5급 **기필수**

| 인 쇄 |

피오디컴퍼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나길 7, 3F  
Tel: 02) 715-4857

---

